

제10차(200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남재량 · 이상호 · 최효미
신선옥 · 배기준

목 차

요 약	i
제1장 머리말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10차 조사의 개요	14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14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 내용	17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7
2. 설문 내용	19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24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24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28
제4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32
1. 응답 가구의 특성	32
2. 조사성공가구의원의 특성	36
제5절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39
1. 이사가구의 특성	39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42
3. 비성공가구의 특성	43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45
제6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47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48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48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49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51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51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55
1. 가구주의 특성	56
2. 가구원의 특성	57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58
제4장 가계경제	62
제1절 가구소득	62
1. 가구의 총소득	64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65
제2절 가구소비	66
1. 생활비	67
2. 저 축	69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70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72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73
2. 주택의 종류	76
제4절 자산 및 부채	77
1. 부동산자산	77
2. 금융자산	79
3. 가구의 부채	81
제5절 자녀 교육비	82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84
제1절 경제활동상태	84
제2절 취업자의 특성	88
제3절 미취업자	93
1. 구직활동	93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95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97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97
제2절 근로시간	101
1. 평균 근로시간	102
2. 초과근로시간	104
제3절 임 금	106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106
2. 월평균 임금	107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113
1. 비정규직의 규모	113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115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117
제1절 종사상 지위	118
제2절 근로시간	120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121
2. 주당 근로시간	122
제3절 근로소득	125
제4절 사업체의 창업	129
제8장 고용형태 부가조사	131
제1절 고용형태	132
제2절 비정규 근로의 일자리 특징	137
제3절 간접고용의 특징	143
제4절 특수고용의 특징	147
제9장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150

표 목 차

<표 2- 1> 1~10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15
<표 2- 2> 1~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8
<표 2- 3> 10차년도(2007년) 설문 내용	20
<표 2- 4> 각 연도별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26
<표 2- 5> 각 연도별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26
<표 2- 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27
<표 2- 7> 시기별·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원가구	28
<표 2- 8>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와 KLIPS 원표본유지율	30
<표 2- 9>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32
<표 2-10> 1~10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33
<표 2-11> 1~10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35
<표 2-12> 1~10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	36
<표 2-13> 1~10차년도 계속응답가구원의 특성	39
<표 2-14> 10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41
<표 2-15>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	42
<표 2-16> 10년도 비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	44
<표 2-17> 각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	45
<표 2-18> 각 비성공사유별 평균 방문 횟수	45
<표 2-19> 10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47
<표 2-20> KLIPS의 가중치의 사례 수	50
<표 3- 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52
<표 3- 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53
<표 3- 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55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	56

<표 3- 5> 1~10차년도 조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58
<표 3- 6> 2~10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59
<표 3- 7> 2~10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60
<표 4- 1> 연간 가구의 총소득	64
<표 4- 2>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66
<표 4- 3> 2~10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67
<표 4- 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68
<표 4- 5> 2~10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69
<표 4- 6>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71
<표 4- 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71
<표 4- 8> 2~10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73
<표 4- 9> 2~10차년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76
<표 4-10>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78
<표 4-11>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79
<표 4-12> 부채 잔액 분포	81
<표 4-13> 10차년도 가구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82
<표 4-14> 10차년도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83
<표 5- 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1~10차년도	85
<표 5- 2> 경제활동상태 비교: 1~10차년도	86
<표 5- 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7년	88
<표 5- 4>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7년	89
<표 5- 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7년	90
<표 5- 6> 경활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1998~2007년	90
<표 5- 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10차년도	91
<표 5- 8>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 10차년도	92
<표 5- 9> 특성별 구직방법: 10차년도	94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96

<표 6- 1> 임금근로자수와 비중	98
<표 6- 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2007년	100
<표 6- 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2
<표 6- 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7년	103
<표 6-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7년	103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7년	105
<표 6- 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2007년	105
<표 6- 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2007년	107
<표 6- 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2007년	108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	109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2007년	110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2007년	111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2007년	112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2007년	114
<표 7-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118
<표 7- 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119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119
<표 7-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2007년	121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평균 근로시간	123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007년	124
<표 7- 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007년	124

<표 7- 8> 월평균 소득 비교	126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 2007년	127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 2007년	128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 2007년	129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2007년	129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2007년	130
<표 8- 1> 고용형태별 비중	134
<표 8- 2> 고용형태별 인적 특성	135
<표 8- 3> 고용형태별 일자리 특성	136
<표 8- 4> 정규직 선호 여부 및 고용형태 선택 이유	138
<표 8- 5> 정규직 존재 여부 및 근로조건의 차이	139
<표 8- 6> 정규직으로의 전환	140
<표 8- 7> 동일 업무 수행자 및 상급자/하급자	141
<표 8- 8> 업무 성격 및 업무 적응	142
<표 8- 9> 호봉제 여부, 전직 희망, 퇴직금 방식	142
<표 8-10> 파견용역회사 근무 여부	144
<표 8-11> 주된 업무 지시 및 고객회사 종업원과의 업무 여부	144
<표 8-12> 복수 고객회사 근무	145
<표 8-13> 계약 종료 후 복귀	145
<표 8-14> 임금 지급업체 vs 실제 일하는 곳	146
<표 8-15> 사회보험 등 가입 여부 및 납입 주체	147
<표 8-16> 특수고용 근로자의 계약체결 및 경영 독립성	148
<표 8-17> 특수고용 근로자의 전속 계약	149
<표 9- 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51
<표 9- 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52
<표 9- 3>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54
<표 9- 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56

그림 목 차

[그림 2-1]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수	34
[그림 2-2]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37
[그림 2-3]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수 추이	38
[그림 2-4]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43
[그림 2-5] 비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추가된 이유 (2~10차년도)	46
[그림 3-1] 10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54
[그림 3-2] 사망자의 사망원인	61
[그림 4-1]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65
[그림 4-2] 10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70
[그림 4-3] 10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 면적·연건평 및 시가 ...	74
[그림 4-4] 10차년도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75
[그림 4-5] 10차년도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	75
[그림 4-6] 10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78
[그림 4-7] 2~10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	80
[그림 5-1] 최근 7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 2001~2007년	87
[그림 5-2] 최근 7년간 실업률 비교: 2001~2007년	87
[그림 5-3]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10차년도	94
[그림 5-4]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95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 2007년	99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 2007년	99
[그림 6-3]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2007년	114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07년	115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22
[그림 7-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 차액 비교	127

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0차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KLIPS는 횡단면이나 단편적인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과 가구에 대한 미시자료를 패널로 얻기 위한 조사이다.

패널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조사를 위해 추출한 최초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도 계속 조사할 수 있는가라는 표본유지율의 문제이다. 지난 제9차 조사에서 KLIPS의 유효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76.5%였고 이번 제10차 조사에서는 75.5%이다. 이는 외국의 주요 패널조사들의 표본유지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조사원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한 조사과정 점검, 데이터 클리닝 강화, 자료 사용자 조연의 적극 반영 등을 통해 KLIPS 자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본 보고서는 KLIPS의 조사내용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KLIPS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조사는 다시 가구에 대한 조사와 개별 가구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제1장과 제2장은 각각 보고서의 머리말과 제10차 조사에 대한 개관이다.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조사내용을 각각 조사가구의 특성과 가계경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제5장과 제6장 및 제7장은 개별 가구원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각각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및 근로특성을 살펴본다. 제8장은 부가조사로 실시한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한다. 마지막 제9장은 패널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동태적 특성 가운데 경제활동상태의 동학(dynamics)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동패널조사는 자주 받는 질문들(FAQ)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를 SAS 및 SPAS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1차부터 10차까지 설문을 통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패널조사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CNEF)도 기울이고 있다.

제 1 장

머리말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0차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KLIPS는 기존의 단편적인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를 패널로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이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한편 자체 예산도 일부 투입하여 실시하는데,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에 제10차 조사가 완료되었다.¹⁾ 이 보고서는 열 차례에 걸친 패널조사 가운데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을 마친 제10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1~8차 조사 결과와도 비교하고 있다.²⁾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표본 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사활은 무엇보다도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지난 제9차 조사에서 원표본인 5,000가구의 76.5%를 조사하여 높은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여 오고 있다.

* 본 연구는 남재량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노동패널팀의 이상호(제2장, 제3장), 배기준(제4장, 제5장), 신선옥(제6장, 제7장), 최효미(제8장) 그리고 남재량(제1장, 제9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1) 2008년 11월 현재 제11차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2) 각 연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해당 연도의 기초분석보고서를 찾아보면 된다.

2 제10차(200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이번 제10차 조사에서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5.5%이다.³⁾ 이는 PSID, GSOEP, BHPS 등을 비롯한 외국의 우수한 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제10차 조사에서도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노동패널팀은 조사원 교육과 CAPI 교육에 참여하여 조사원들의 노동패널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노동패널팀 팀원들은 조사 현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차적인 노력에 추가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입력 단계를 마친 자료상의 오류들을 다시 걸러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학술대회용으로 미리 공개한 자료를 사용한 학술대회 발표자들의 문제 제기와 조언들은 KLIPS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또 한 번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8년 1월 3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 총 2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지난 학술대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참가자들의 열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에 비추어볼 때 KLIPS는 양과 질 모두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공적인 조사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패널팀은 앞으로 거듭될 차수에서도 조사가 성공적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료 사용자 제위께서도 KLIPS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탄없이 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주시기 바란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노동패널이라는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는 있으나 분석 기법상의 한계로 인해 자료에 들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그리고 엄밀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지난 제6회 학술대회는 특별 분과(special session)를 마련하여 패널자료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 번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노동패널팀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시 한번 패널분석방법론

3) 잠정적으로 집계한 제11차 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도 낮지 않다.

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명께서 2시간에 걸쳐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여 200명을 훨씬 넘는 청중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LIPS 자료를 사용하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우수한 패널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더욱 엄밀하고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KLIPS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제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언이 다시 KLIPS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KLIPS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의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하고 보충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미 지난 보고서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FAQ는 노동패널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팀에 접수되는 질문들 가운데 빈도가 높은 질문들을 29개로 추려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사용자 지침(user's guide)에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올려 두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SAS와 SPSS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FAQ는 그동안 자료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는 FAQ의 문항을 더욱 늘리고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 역시 홈페이지에 올려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자료 사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문의는 앞으로도 FAQ를 더욱 확충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노동패널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자료 사용자들이 일관된 분석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단위 무응답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무응답 대체(imputation) 기법을 개발하고 그 대체치를 구현하여 완성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구가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응답의 부정확성을 보정하기 위해 노동패널조사 자료에 있는 가구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추정(tax imputation)하는

4 제10차(200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연구도 진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KLIPS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 외국의 연구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KLIPS를 보다 일관되고 꼼꼼하게 영문화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였다. KLIPS를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패널자료(CNEF: Cross-National Equivalent File)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CNEF란 주요 국가들의 대표적인 가구패널자료들을 국가 간에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재구축한 자료로서 PSID(미국), BHPS(영국), GSOEP(독일), SLID(캐나다), HILDA(호주) 등을 포함하고 있다. KLIPS가 CNEF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면 KLIPS의 활용도를 크게 제고하는 한편 국제적인 위상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KLIPS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 KLIPS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된다.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다양하다.

본 보고서의 구성도 KLIPS의 설문과 유사하다. 제2장은 제10차 조사에 대해 개관하고 있으며,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각각 조사가구의 특성과 가계경제에 대해 다룬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가구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한다.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개별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8장은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KLIPS는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3차 조사에서 처음 실시된 부가조사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반영하여 청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차 조사는 건강과 은퇴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제6차 조사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을 반영하여 중·고령자에 대한 조사를 부가조사로 실시하였다. 제7차 조사는 ‘근로시간과 여가’를 부가로 조사하였다. 제8차 조사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제9차 조사는 청년층에 대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청년 무업자를 비롯한 새로운 청년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제10차 조사는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를 부가로 실시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깊은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히 정리하자.

제2장은 10차년도 패널조사의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 표본유지율, 응답가구와 가구원 특성,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등과 같은 전반적인 조사 개요를 다루고 있다. 10차년도 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원표본 3,775가구 및 분가한 1,294가구를 합하여 총 5,069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다. 개인응답자는 전체 11,855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459명,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이 396명이었다.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유지율은 75.5%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하였다.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10차년도 4,899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76.9%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 77.8%보다 0.9%포인트 증가하였다. 따라서, 4차년도 이후 노동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은 가구 소멸로 인한 자연 감소를 제외하고는 표본 감소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사의 질적 측면 역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응답자 중 본인 응답 비율은 지난해보다 0.7%포인트가 증가한 90.7%로 나타났으며, 면접 비율이 처음으로 90%를 넘는 91.3%를 기록하였다. 1~

6 제10차(200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10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의 비율은 53.9%이며, 계속응답 개인의 비율은 42.0%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성공 가구의 비성공 사유로는 ‘강력 거절’이 지난해(51.1%)와 비슷한 수준인 49.9%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 한국 노동패널의 조사 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조사에 성공한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우선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수는 3.1인이며, 4인 가구의 비중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가구주와 가구주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65%로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은 16.5%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남성이 81%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0세로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구주의 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5세 이상 전체 개인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51.45%로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평균 연령은 41.8세로 역시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가 2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제4장은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다. 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10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1절은 가구소득 부문으로서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은 가구의 소비를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

여 알아본다. 또 10차년도부터 대폭 설문이 보장된,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3절은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은 가구의 자산과 부채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알아본다.

연도별로 가구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10차년도 연간 총소득은 3,690만 원(월평균 30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8만 원 늘어났으며,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9차년도에 비해 239만 원이 증가하였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13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의 증가폭은 4차년도까지 점차 커지고 5차년도부터는 완만해졌지만 10차년도 들어 다시 상당한 폭으로 커졌다.

10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9.7%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52만 6천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9차년도에 설문이 대폭 강화된,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5%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66.5%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70.5%, 65.7%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25.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제적 교류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0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3.7%로 전년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은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10차년도 65.8%로 지난 9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8차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여 10차년도에는 2,084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제10차(200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편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52.4%를 차지하였다. 부채 잔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10차년도 3,488만 6천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및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8.7%였으며, 그리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에서는 자녀 수가 2명인 경우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6.2%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가 1명인 경우가 7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47만 3천 원(자녀당 교육비는 29만 4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평균 643만 5천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평균 52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⁴⁾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 2007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통계청 60.9% 대비 노동패널 55.9%로 낮게 나타났지만, 1998년 이후 추이 자체는 별 차이가 없었다. 두 자료는 가구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4)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상태 분류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조사 대상 기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20%가 약간 넘는 탈락률에도 불구하고 KLIPS가 비농가 부문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10차년도에는 전체 4,346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으며,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1차년도 이후 꾸준히 늘다가 8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9차년도부터 다시 증가하여 10차년도에는 70.9%에 달했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비중이 32.3%로 가장 높고, 연령별로는 30대가 3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⁵⁾이 34.8%,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3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차년도(2007년) 기준 48.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비하여 약 5.3시간 가량 길었으나⁶⁾,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정규 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0차년도에 28.1%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4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근로자의 93.0%는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받는다’와 ‘매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2.6%, 3.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산정방식별로도 월급제가 76.9%로 가장 많았으며,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9.6%에 그쳤다.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에서 135만 원이었

5) 공공서비스업에는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사업 등이 포함된다.

6) 2007년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당 총근로시간은 43.4시간(월 188.4)으로 나타났다.

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10차년도에는 182만 6천 원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10차년도에 여성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34만 4천 원으로 남성의 59.3%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에 월평균 임금이 270만 3천 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157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7장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10차년도의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2,049명이었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9.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7.4%, 자영업자 55.2%,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7.5%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10차년도(2006년)에 주당 근로일수는 5.8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4.1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4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와 7차년도, 10차년도 조사에서 소폭 상승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지난 10년간 월평균 명목소득은 1998년 132만 2천 원에서 2차년도에 128만 3천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07년에는 255만 6천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KLIPS에서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았으며 그 격차는 1차년도 26만 1천 원에서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6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또다시 7차년도 이후 격차가 커졌으나 8차년도 이후 감소하여 10차년도에는 61만 3천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창업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선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84명이었다. 창업 주체와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3.9%)보다는 본인 스스로 창업한 경우(91.7%)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게 된 응답자에게 사

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 대상자의 68.4%가 본인 가족, 친지를 통해 사업 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사채업자의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제8장은 고용형태에 대한 부가조사를 소개하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고용형태에 관한 부가조사는 10차년도 조사 일 현재 임금근로자이거나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자기 사업장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는 비정규 고용형태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상의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이하 임시적 고용), 둘째, 일하는 곳과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다른 고용형태(이하 간접고용), 셋째, 일일/호출근로 등의 일자리, 넷째, 임금과 비임금의 경계선상에 있는 특수형태의 고용(이하 특수고용), 다섯째, 시간제 근로가 그것이다.

10차년도 부가조사의 응답자는 총 4,447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임시적 근로의 비중이 2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한시 근로의 비중은 12.5%였으며, 비한시 근로의 비중이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일/호출 근로가 8.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고, 시간제 근로는 5.8%, 간접고용은 5.2%, 특수고용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근로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임시적 근로나 간접고용, 시간제 근로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일/호출 근로는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이 61.4%로 월등히 높았다. 직종별로는 임시적 근로, 간접고용의 경우는 생산직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특수고용의 경우에는 서비스직이나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에서는 비정규 근로의 특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비정규 근로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했으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그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보다 정규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면서도 현재의 고용형태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는 ‘정규직 일자

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재 일자리에 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는 간접고용일 때 가장 높았고, 임시적 근로일 때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직장 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비정규 근로자들은 승진, 인사고과, 임금 및 퇴직금, 상여금에 있어서 정규 근로자에 비해 낮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교육훈련과 사회보험은 다른 항목에 비해 그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특수고용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다른 비정규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사원이 있다는 응답은 임시적 근로의 경우 60.1%, 시간제 근로는 58.5%, 간접고용이 4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급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하급자는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절과 제4절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에 한해서 질문한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우선 간접고용의 경우 임금 주는 회사와 일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가 88.1%였으며, 그 회사가 파견/용역 회사인 비중이 77.9%였다. 업무 지시를 하는 회사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하고 있는 곳의 관리자나 직원이라는 응답이 44.5%,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의 관리자나 직원이라는 응답이 43.8%, 둘 다에게서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응답이 11.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현재 하는 업무에 고객 회사 종업원도 함께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보다 약간 적은 46.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다수의 고객 회사와 일을 하는 경우보다 하나의 고객 회사와 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간접 고용된 근로자 본인도 하나의 고객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는 경우가 91.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각종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납입 업체에 관해서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된 간접 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60% 내외였으며, 국민연금의 경우는 49.4%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특수고용의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추가적으로 진행

되었는데,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상 비임금 근로자라 할지라도 임금근로자처럼 계약을 맺은 업체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경우가 3/4 가량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특수고용근로자의 대부분은 하나의 업체와만 계약되어 있었으며, 평균 계약 기간은 22.5개월이었다.

제9장은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패널자료란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자료이므로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시간에 걸쳐 동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패널자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실시한 분석이 제9장의 분석이다. 노동시장 전체로 보아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간의 이동을 먼저 분석한 뒤,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들의 이동경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9차와 10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동태적 분석뿐 아니라 8차와 9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분석도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하였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10차 조사의 개요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가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10월에 10차년도 실사까지 완료되었다.⁷⁾

KLIPS의 진행 상황을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우선 1998년에 실시된 1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원표본 5,000가구 총인원 17,505명 중 3,775가구의 조사에 성공하여 원표본 성공률은 75.3%였으며, 추가 표본으로 1,227가구를 조사하여 총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였다. 이 중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 중에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3,321명이었다.

7)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노동부의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 33601).

〈표 2-1〉 1~10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수 ⁵⁾	실사 기간
1차('98)	5,000	5,000	5,000	100.0	100.0	-	13,321	6~10월
2차('99)	5,000	4,508	4,378	87.6	87.6	130	12,038	7~12월
3차('00)	5,000	4,266	4,044	80.9	80.9	222	11,205	5~10월
4차('01)	5,000	4,248	3,866	77.3	77.3	383	11,051	5~10월
5차('02)	5,000	4,298	3,798	76.0	76.0	500	10,966	4~ 9월
6차('03)	4,993	4,592	3,862	77.2	77.3	730	11,541	4~ 9월
7차('04)	4,950	4,762	3,863	77.3	78.0	899	11,661	4~ 9월
8차('05)	4,935	4,850	3,823	76.5	77.5	1,027	11,580	4~10월
9차('06)	4,914	5,002	3,821	76.5	77.8	1,181	11,756	4~10월
10차('07)	4,899	5,069	3,775	75.5	76.9	1,294	11,855	4~10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대비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1999년에는 한국노동패널 제1차 조사에 포함된 원(原)표본가구⁸⁾에 대하여 제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2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⁹⁾는 4,379가구로 표본유지율은 87.6%이며 원표본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130 분가 가구¹⁰⁾를 포함하여 제2차 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509가구였다.

8)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에 표본으로 추출되어 1차 조사 완료된 유효표본가구를 의미한다.

9)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표본가구를 의미하며, 조사 대상 표본가구에 속한 면접 대상 가구원, 특히 우선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응답한 '면접 대상자'들이 설문지의 거의 모두와 핵심적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조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 대상 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 중인 가구원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하며 우선 조사 대상 전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만이 '유효표본가구'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0) '분가가구'는 1차년도 조사시에는 '원표본가구원'이었으나 조사 이후 결혼이나 세대

2000년에는 제3차 KLIPS가 실시되었으며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3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0.9%이며 분가한 222가구를 포함하여 제3차 조사에 포함된 총가구수는 4,267가구였다. 이어서 제3차 조사의 총 응답가구원은 11,205명이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739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66명이었다.

2001년에 실시된 제4차 조사에는 총 4,248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원표본가구는 3,865가구로 77.3%의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분가한 가구는 383가구이며 총 응답가구원은 11,051명이었다. 가구원의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은 11,051명이었으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607명, 신규 조사자는 444명이었다. 제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10,332명이며 신규 조사자 중 원가구원은 240명이었다.

2002년에 실시된 제5차 KLIPS에는 원표본 3,798가구 및 분가한 500가구를 합하여 총 4,298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6%로 전년도에 비해 1.3%포인트가 감소하였다. 표본유지율을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조사에 성공한 개인 10,966명 중에서 기존 조사자는 10,557명이며, 신규 가구원도 409명에 이른다.

2003년에 실시된 제6차 KLIPS에는 원표본 3,862가구 및 분가한 730가구를 합하여 총 4,592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7.2%로 전년도에 비해 1.2%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541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0,983명, 신규 가구원이 558명이었다.

2004년에 실시된 제7차 KLIPS에는 원표본 3,863가구 및 분가한 899가구를 합하여 총 4,762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7.3%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661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217명, 신규 가구원이 444명이었다.

2005년에 실시된 제8차 KLIPS는 원표본 3,823가구 및 분가한 1,027가구를 합하여 총 4,850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분리 등으로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한 가구 또는 분가하여 들어간 다른 가구를 말한다.

76.5%로 전년도에 비해 0.8%포인트가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580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199명, 신규 가구원이 381명이었다.

2006년에 실시된 제9차 KLIPS는 원표본 3,821가구 및 분가한 1,181가구를 합하여 총 5,002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6.5%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756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358명, 신규 가구원이 398명이었다.

2007년에 실시된 제10차 KLIPS는 원표본 3,821가구 및 분가한 1,181가구를 합하여 총 5,069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5.5%로 전년도에 비해 1%포인트가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855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459명, 신규 가구원이 396명이었다.

결론적으로 10차년도의 전반적인 실사 현황은 지난해에 이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5~6년간 1%포인트 이내에서 표본이탈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원표본가구를 포함하는 전체 표본 역시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 2 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 내용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 1~10차년도 release 버전 자료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각각의 연도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졌던 설문지의 종류와 자료 및 변수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종단면 일치성(longitudinal consistency)를 갖도록 하였다. 개편된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서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1~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자료 명		내용	
가구용 자료	KLIPS_H	가구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설문(소득, 소비, 주거 등)	
개인용 자료	KLIPS_P	주된 일자리의 특성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응답자 공통	취업자
			미취업자
신규 조사자 문항			
부가조사 자료	KLIPS_A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청년층 조사(9차) 고용형태 조사(10차)
직업력 자료	KLIPS10W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	

우선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용 자료는 크게 조사 당시 갖고 있던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조사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되는 문항들(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연령이 15세가 되거나 혼인 등으로 조사가구에 편입되어 조사에 새로 참여한 응답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조사 차수별로 각각 존재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1개의 데이터셋만을 가지게 된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조사 자료와는 달리 2000년 3차년도부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차년도에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이동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자 처음으로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1년 4차년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장애,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질문하고, 만 45세 이상의 개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는 은퇴 여부, 은퇴 시기, 은퇴 이전 일자리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6차년도에는 4차년도 부가조사에서 다루었던 ‘건강과 은퇴’라는 주제에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은퇴 과정에 집중하여 만 50세(1953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개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중고령자’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차년도에는 법정 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과 이로 인한 생활시간 사용의 변화와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모든 개인 응답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8차년도에는 모든 개인 응답자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9차년도에는 15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일자리 특성 등을 다룬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0차년도에는 고용형태의 대안적인 측정, 근로조건의 차이,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승진 및 고용형태 전환 등에 대해 다룬, ‘고용형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 내용

KLIPS의 10차년도 설문지는 본 설문 부분으로 가구용 설문, 예비조사 설문, 유형 설문, 취업 및 미취업자용 설문, 신규 조사자용 설문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취업자의 ‘고용형태’와 관련된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별로 설문 내용¹¹⁾을 조사자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참조).

우선 가구용 설문은 크게 가구원과 관련된 내용과 전체 가구 관련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9차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설문 내용상에 다음과 같은 소폭의 변동이 있었다.

11) 1~10차년도 조사자료의 설문 내용은 ‘각 연도별 설문지 및 KLIPS 1~10차 User’s Guide’를 참조.

〈표 2-3〉 10차년도(2007년) 설문 내용

<p>가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인적사항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문항 ▪ 주거 관련 문항 ▪ 자녀교육 및 자녀보육 관련 문항(영어 및 논술교육 포함) ▪ 가구의 소득 ▪ 가구의 소비 ▪ 가구의 자산과 부채 ▪ 가구의 경제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 유동성 제약
<p>예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 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 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 여부
<p>임금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 사항 ▪ 일자리 형태 및 규모 ▪ 근로계약 관련 문항 ▪ 근로시간 관련 문항 ▪ 임금 관련 문항 ▪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일자리의 노동조합 ▪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구직활동 관련 문항
<p>비임금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 사항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 관련 문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현재 하는 사업의 가치(금액으로 환산) ▪ 사업체의 장기적 전망 ▪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의사 ▪ 사업체 시작 당시 비용 혹은 투자액 ▪ 사업비용 조달방법 ▪ 창업 과정의 어려움
<p>응답자 공통 (취업자 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취업)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근로시간 관련 사항 ▪ 직무 만족도

〈표 2-3〉의 계속

응답자 공통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수준 적합도 ▪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공통) ▪ 교육 및 직업훈련(공통) ▪ 사회보험 수급 관련 사항(공통) ▪ 정규교육 관련 사항 (공통) ▪ 혼인상태(공통) ▪ 생활 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공통) ▪ 어학 연수, 영어 시험점수, 영어 능력의 취업·승진·업무상 연관성
응답자 공통 (미취업자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미취업) ▪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 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문항 ▪ 혼인상태 ▪ 생활 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 어학 연수, 영어 시험점수, 영어 능력의 취업·승진·업무상 연관성
신규조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5세 이후의 이전 일자리의 경력 ▪ 부모님의 학력 ▪ 만 14세 무렵의 아버님(계시지 않았던 경우 어머니)의 경제활동 상태 ▪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형제자매의 수
고용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형태의 판별 ▪ 정규직 선호 여부/고용형태 선택 이유 ▪ 승진, 인사고과의 차등 여부 ▪ 교육훈련/임금, 퇴직금, 상여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 및 실제 전환 여부 ▪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 ▪ 계약 체결시 업무 지시 관련 내용 ▪ 근로계약 형태 및 소속감 등

가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 가구원의 성별·연령·학력·가구주와의 관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 이외에 가구원의 추가·분가·사망 등 가구원의 변동 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가구 단위로 조사된 내용 역시 지난 조사와 같이 주거(변동) 상황,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관계, 가구의 소득·소비·자산·부채 등이 조사되었다. 가구용 설문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는 최근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영어 및 논술에 대한 사교육 문항을 추가한 것이다. 자산 관련 정보

를 확대하고자 자동차 소유 및 구입 가격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출 시도, 성공 등의 유동성 제약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였다.

개인 단위로 조사되는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에게 어떠한 일자리 유형을 갖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예비 설문, 응답자의 일자리 단위로 조사하는 일자리 유형 설문, 일자리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는 내용이외에 응답자 전체에 대해 공통으로 질문된 취업자 및 미취업자용 설문, 새로 조사에 진입한 응답자에 대해 조사하는 신규 조사자용 설문, 마지막으로 ‘고용형태’ 부가조사 설문으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 조사되는 내용(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⑤, 유형 ⑥)으로는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기업 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 상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 단위로 가입되는 사회보험 관련 내용, 노동조합, 구직활동 등이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기업 형태에서 정부기관과 정부외기관으로 선택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내용(유형 ③, 유형 ④, 유형 ⑦, 유형 ⑧)으로는 일자리의 종업원 수, 근로시간, 매출액과 소득, 구직활동 관련 문항, 직업 및 산업 등이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개인을 취업자 혹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조사된 설문에는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사회보험 수급, 학교명,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 혼인상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생활 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등이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관련 추가 문항, 직무 만족도, 일의 교육, 기술수준 적합도 등이 조사되었으며,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성, 비구직 사유 등 미취업 상태와 관련된 문항이 조사되었다.

취업자 및 미취업자 설문의 가장 큰 변화는 영어 학습 및 영어 능력과 관련된 문항들이다. 가구용 설문에서 사용된 영어 문항과 달리 개인용 설문에서 추가된 영어 관련 문항들은 15세 이상 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어학 연구 경험, 영어 시험점수(토플, 텡스, 토익), 일자리 채용, 승진, 업무상에서의 관련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영어 관

런 문항 외에 8차년도에 조사된 바 있었던 키와 몸무게 관련 문항들도 다시 추가되었다.

그 외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최근 변화도 반영되었다.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하여 지난 1주간 한 일에서 발령 대기나 결혼 준비, 쉬었음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현재 일자리의 자발성/비자발성 여부, 현재 일자리의 작업환경 문항이 신설되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정책에 대응하여 교육훈련 관련 항목에서도 추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7차년도 조사 때 이루어졌던 위험에 대한 태도 문항, 8차년도 조사에서 시도한 바 있는 키와 몸무게 문항 등도 그간의 변동 사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재삽입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항목은 다시 제외되었다.

조사에 새롭게 포함된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항들이 조사되었다. 이들은 개인 단위의 조사에 처음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만 15세 이후에 가졌던 일자리의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학력, 만 14세 무렵 부모님의 경제활동상태,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및 혼인력과 출산력에 대한 조사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용 설문에는 개인용 설문에 반영된 모든 변경 사항이 동일한 구조로 반영되었다.

부가조사는 주요 이슈에 대해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심층 조사이다. 10차년도에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측정과 각각의 고용형태별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고용형태의 판별, 정규직 선호 여부 및 현재의 고용형태 선택 이유, 정규직과 근로조건의 차별적 적용,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 등이 조사되었다.

제 3 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¹²⁾

KLIPS의 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0차년도 조사는 2007년 4월에서 10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 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 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이 설문지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응답 시기가 가구용 설문지와 달라지게 되고, 한 가구 내에서도 개인 간의 응답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용 설문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면접하였으나 일부는 자녀나 노부모를 통한 설문 응답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면접을 통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

12)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 틀 및 추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klips>)를 참고.

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첫째, 실사 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전화조사를 하였다. 셋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 방식이 어떤 비중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0차년도에는 91.3%에 이르렀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7%나 되었지만 10차년도에는 1.1%로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나머지 전화조사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조사 방식이 결합된 경우는 3% 미만에 그쳤다. 즉 대부분의 경우 면접설문을 실시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순수한 전화나 대리응답보다는 기본적으로 면접설문을 실시한 이후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전화나 유치를 병행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5>는 대리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대리응답의 비중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약 11%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7차년도에는 대리응답이 9.7%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데 이어 9차년도에는 최대 3.0%까지 하락하였다가 10차

〈표 2-4〉 각 연도별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개인 응답자수	13,321	12,038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11,85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면접	64.4	77.8	83.0	83.7	83.8	86.3	88.0	85.4	89.7	91.3
유치	21.8	7.6	5.1	3.4	2.6	1.7	1.8	1.6	1.5	1.1
전화	1.5	7.4	5.3	4.6	3.9	3.8	4.1	2.8	2.9	3.2
면접+전화	2.6	4.7	3.9	4.9	6.4	5.7	3.7	6.1	2.8	3.1
유치+전화	3.7	2.5	1.5	1.2	1.0	0.9	0.4	1.4	0.7	0.6
면접+유치	2.6	0.1	0.9	1.8	1.0	1.3	1.6	1.7	2.3	0.6
면접+유치 +전화	0.1	0.0	0.2	0.5	1.3	0.4	0.5	1.0	0.3	0.1

〈표 2-5〉 각 연도별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개인 응답자수	13,321	12,037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11,85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본인	74.0	88.6	88.3	83.3	83.8	83.1	85.7	87.3	90.0	90.7
대리인	19.7	11.3	8.1	11.0	9.8	11.2	9.7	5.0	3.0	5.6
본인+대리인	0.4	0.0	3.6	5.5	6.4	5.8	4.7	7.7	7.0	3.7

년도에 다시 5.6%로 상승하였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요 대리응답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응답 거부’가 가장 높은 비중인 31.8%로 9차 년도의 30.7%, 8차년도의 20.9%보다 증가했으며, ‘늦은 귀가’로 인해서 접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3.7%를 차지했다. 요컨대 조사의 반복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재중’이나 ‘이사추적 불가’와 같은 조사 접촉상의 문제보다는 응답자의 조사에 대한 부정적 태도 때문에 조사 실패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10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 횟수는 평균 2.6회로 9차 년도의 3.1회보다 감소하였다(표 2-6 참조). 방문 횟수를 지역별로 살펴

〈표 2-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단위: 회)

	6차 조사	7차 조사	8차 조사	9차 조사	10차 조사
전 체	2.9	3.0	3.3	3.1	2.6
서울	3.4	3.3	3.5	3.2	
부산	3.0	3.3	3.5	3.3	2.5
대구	3.4	4.2	3.8	3.3	3.3
대전	1.8	2.2	3.3	3.2	2.9
인천	2.8	2.3	2.5	3.0	1.9
광주	2.3	3.1	3.4	3.9	2.8
울산	2.9	2.8	3.6	3.0	3.2
경기	2.9	2.5	2.9	2.6	3.5
강원	2.1	2.4	2.7	1.8	2.3
충북	2.3	1.9	3.7	3.6	2.1
충남	1.8	2.9	4.0	3.2	2.6
전북	2.6	3.1	3.5	3.1	2.4
전남	2.6	2.9	4.0	3.9	2.5
경북	2.6	2.9	4.0	3.9	3.4
경남	3.4	4.1	3.3	2.4	2.2
제주	2.9	3.2	3.6	3.3	3.2
체 주	1.8	3.7	3.5	5.5	1.5

보면, 울산이 3.5회, 부산이 3.3회로 가장 많은 방문 횟수를 기록하였으나, 대전과 제주는 2회 미만의 평균 방문 횟수를 보였다. 그러나 평균 방문 횟수와 조사 성공률 간에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2-7>은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10차년도 조사는 9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조사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0차년도 조사는 2007년 3월 21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부산에서 각각 1일씩 진행되어 3월 30일에 면접원 교육을 완료하였다. 10차년도 조사에는 대전과 충청 지역에 대한 CAPI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CAPI 조사 교육이 실시되었다. 조사의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으며, 조사진행 상황에 대한 집계는 설문지가 조사업체의 각 지방사무소와 면접원에게 배포된 후 5월 초부터 이루어졌다. 조사진행 상황은 초기에는 낮은 진척도를 보이다가 조사진행이 본격화되는 5월 말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름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에는 주춤하다가 다시 8월 이후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표 2-7〉 시기별·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 원가구

(단위: 조사진행률)

	04월 30일	05월 14일	05월 28일	06월 11일	06월 25일	07월 09일	07월 23일	08월 06일	09월 17일	10월 03일
서울	11.1	20.3	31.4	42.2	50.7	61.0	65.2	67.0	71.1	71.5
인천	7.8	20.4	31.6	37.1	48.0	63.6	70.7	72.4	77.2	77.9
대전	9.2	19.0	25.4	28.2	31.0	41.5	49.3	63.6	71.8	73.2
광주	7.3	15.2	27.8	34.4	43.7	53.0	61.3	68.9	72.8	72.8
대구	13.3	25.9	29.8	35.0	37.9	48.5	59.4	64.6	71.0	71.3
부산	14.0	23.4	27.5	35.8	42.4	61.4	68.5	73.1	79.7	79.7
울산	11.5	11.5	13.3	22.1	34.5	54.9	59.3	63.7	76.8	76.8
경기	7.1	16.5	26.9	41.2	53.6	64.0	71.4	75.3	79.4	80.3
강원	0.0	4.5	15.2	26.5	39.4	55.3	66.9	68.5	76.2	77.7
충남	11.2	40.3	49.3	56.0	60.3	66.2	70.6	81.6	84.6	84.6
충북	13.9	24.3	33.0	47.8	54.8	61.4	62.6	71.1	73.9	75.7
전남	16.8	26.0	30.5	33.6	37.4	55.7	64.1	79.4	86.3	86.3
전북	14.7	29.5	40.5	50.0	51.8	69.1	81.2	82.8	84.4	84.4
경남	6.3	13.9	23.1	33.7	44.9	52.8	62.3	71.1	80.7	80.7
경북	12.3	21.6	23.8	27.1	30.9	56.3	63.5	67.6	77.6	77.6
제주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0.2	20.2	28.8	38.3	46.7	59.5	66.5	71.1	76.6	77.1

질적으로는 조사 수행 정도가 시기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응답에 응하거나 조사가 용이한 가구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 후기에는 응답을 거부하거나 이사 추적 등, 보다 높은 면접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가구들을 조사한다.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차년도 KLIPS의 총 조사표본은 5,002가구와 그 가구 내에 포함된 가구원 11,756명이며, 이들 중에서 15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의 수는 기존 조사자가 11,358명과 신규 조사자 398명을 합한 11,756명이다.

<표 2-1>을 통해서 1차년도 5,000가구 대비 원표본가구, 즉 기준 1에 따른 원표본유지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차 조사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원표본가구의 87.6%인 4,378가구였으며, 3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수는 4,044가구로 원표본가구의 80.9%에 해당한다. 4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수는 3,866가구로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7.3%이며, 5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수는 전년도에 비해 1.3%포인트가 하락한 3,798가구로 76.0%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6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1.2%포인트가 증가한 77.2%, 7차년도에는 다시 0.1%포인트가 증가한 77.3%를 기록하였다. 8차년도와 9차년도에는 76.5%로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KLIPS의 표본유지율은 외국의 주요 패널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8>은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비교하고 있다. 원표본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가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는 분모가 되는 원표본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000가구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차년도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미국의 PSID나 독일의 GSEP, 영국의 BHPS와 비슷한 88%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차년도의 표본유지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독일의 패널조사에 비해 5%포인트 낮으나 영국의 BHPS의 결과와 동일하며, 4차년도의 유지율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6~8%포인트, 영국에 비해서는 3%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5차년도의 유지율은 외국 패널과의 격차가 더욱 좁혀져서 미국에 비해서는 4%포인트, 영국에 비해서는 1%포인트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6차년도에 표본유지율이 1%포인트 증가하고 이것이 7차년도부터 유지됨으로써 결국 다른 선진국 패널조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표 2-8〉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와 KLIPS 원표본유지율

(단위: %, 연도, 가구)

	미국 PSID	독일 GS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기준 1	기준 2	가구수
2차 년도	89.0 (1969)	89.9 (1985)	87.7 (1992)	79.0 (1994)	87.6 (1999)	87.6 (1999)	4,379
3차 년도	86.3 (1970)	86.0 (1986)	81.5 (1993)	66.0 (1995)	80.9 (2000)	80.9 (2000)	4,044
4차 년도	83.7 (1971)	84.9 (1987)	79.9 (1994)	59.0 (1996)	77.3 (2001)	77.3 (2001)	3,867
5차 년도	81.2 (1972)	81.3 (1988)	76.8 (1995)	56.0 (1997)	76.0 (2002)	76.0 (2002)	3,798
6차 년도	78.8 (1973)	79.2 (1989)	77.3 (1996)	44.0 (1998)	77.2 (2003)	77.3 (2003)	3,862
7차 년도	76.6 (1974)	78.4 (1988)	76.0 (1997)	종료	77.3 (2004)	78.0 (2004)	3,863
8차 년도	74.1 (1975)	78.9 (1989)	74.1 (1998)	-	76.5 (2005)	77.5 (2005)	3,823
9차 년도	71.2 (1974)	78.4 (1990)	72.1 (1999)	-	76.5 (2006)	77.8 (2006)	3,821
10차 년도	69.0 (1975)	78.8 (1991)	70.4 (2000)	-	75.5 (2007)	77.1 (2007)	3,775

주: 1) 기준 1은 5,000가구 대비 성공률임.

2) 기준 2는 소멸가구를 제외한 수치임. 6차년도 4,993가구, 7차년도는 4,950가구, 8차년도 4,935가구, 9차년도 4,914, 10차년도 4,899가구임.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차년도부터는 원가구원의 사망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년 이러한 가구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소멸가구를 제외한 기준 2에 근거한 원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차년도에는 전체 4,993가구 대비 77.3% 표본유지율로 5,000가구 대비 표본유지율과 동일하지만, 7차년도에는 소멸가구가 50가구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표본유지율이 78%임을 확인할 수 있다. 8차년도에는 추가적으로 15가구가 더 소멸하여 4,935가구 대비 수준에서는 77.5%의 표본유지율을 보였으며, 9차년

도에는 다시 21가구가 소멸하여 77.8%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기준 1에서 나타나고 있는 6차년도 이후의 표본유지율 하락은 소멸가구로 인한 자연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패널조사 표본은 표본 설계 당시의 모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의의 특성에 따라 편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KLIPS의 표본 추출은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15개 광역시 및 도를 층화하여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지역에 따라 고른 조사성공률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KLIPS의 표본유지율을 조사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격차가 매년 감소하여 수렴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표본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사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대구·충북·강원 지역에 대한 조사성공률 향상 노력도 아울러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표본성공 비율을 살펴보면, 도 지역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충남·전북·경북 등의 도 지역은 83%가 넘는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서울과 더불어 가장 많은 표본을 보이고 있는 경기 지역의 표본유지율도 80%가 넘어 전체 성공률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는 지난 연도와 마찬가지로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70%를 넘기는 데에는 성공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조사성공률을 기록하였다. 충북 지역은 예년에 비해 조사성공률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다. 거의 전국 최하위권을 형성하다가 9차년도에는 전국 평균에 가까운 77.2%의 조사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9차년도에도 예년 수준의 성공률 격차가 대체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 간의 성공률 격차는 소폭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 단위의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성공률 편차가 그리 크지

〈표 2-9〉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체	100.0	87.6	80.9	77.3	76.0	77.3	78.0	77.5	77.8	77.1
서울	100.0	84.9	74.8	68.4	69.7	73.5	72.9	72.2	71.9	71.9
부산	100.0	90.5	89.4	85.0	84.6	80.8	78.7	78.6	79.2	79.8
대구	100.0	84.1	94.3	67.5	71.5	76.9	70.2	72.6	71.7	71.5
대전	100.0	83.7	96.9	81.0	76.4	80.3	81.5	80.7	78.9	73.4
인천	100.0	85.6	93.9	74.5	76.3	75.2	79.9	78.5	81.0	78.7
광주	100.0	78.5	97.3	77.2	81.3	80.3	80.4	77.6	76.2	73.0
울산	100.0	96.5	97.3	88.8	86.2	85.3	85.1	81.4	80.7	77.0
경기	100.0	90.2	82.4	78.4	72.2	76.7	81.6	80.6	80.2	79.2
강원	100.0	87.7	97.4	71.5	66.2	62.2	66.2	72.8	73.7	77.9
충북	100.0	87.6	97.9		75.0	70.5	70.2	72.1	77.2	75.2
충남	100.0	91.6	97.1	82.8	83.1	84.7	84.7	83.0	83.1	85.3
전북	100.0	88.9	96.3	87.7	83.4	81.4	81.8	80.2	83.3	84.8
전남	100.0	92.1	97.1	87.3	87.3	82.1	84.2	82.8	83.3	86.2
경북	100.0	89.4	94.5	80.7	80.9	83.0	84.1	81.9	83.1	77.6
경남	100.0	90.1	93.4	93.0	85.5	83.0	81.7	80.7	81.2	80.7

주: 6차년도 4,993가구, 7차년도 4,950가구, 8차년도 4,935가구, 9차년도 4,914가구, 10차년도 4,899가구 기준임.

않으며,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별 편차가 감소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지역별 성공률 격차가 조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응답 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만일 조사 중간에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가구의 비중이 많다면 실사 과정의 어려움은 물론이요 궁극적으로는 자료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표 2-10>은 1~10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6,616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75.6%(5,000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비원가구는 24.4%(1,616가구)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10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5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4.0%(2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가가구 중에서는 9차례 모두 조사에 응답한 가구가 3.8%인 반면, 1회만 응답한 가구가 1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1~10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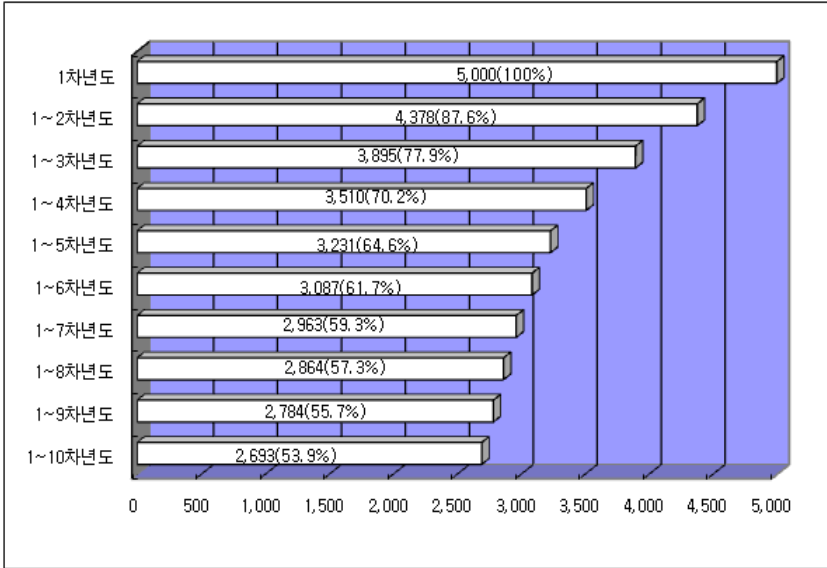
(단위: 가구수, %)

	전 체		원가구		비원가구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1회	382	5.9	200	4.0	298	18.4
2회	472	7.3	208	4.2	264	16.3
3회	409	6.3	203	4.1	206	12.8
4회	426	6.6	200	4.0	226	14.0
5회	399	6.1	196	3.9	203	12.6
6회	332	5.1	197	3.9	135	8.4
7회	395	6.1	254	5.1	141	8.7
8회	388	6.0	306	6.1	82	5.1
9회	604	9.3	543	10.9	61	3.8
10회	2,693	41.4	2,693	53.9	-	-
전 체	6,616	100.0	5,000	100.0	1,616	100.0

[그림 2-1]은 KLIPS 연도별로 계속해서 응답한 가구수와 1차년도 대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1~10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는 2,693가구로 1차년도 5,000 원표본가구의 53.9%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표본 비중이 2차년도의 경우 87.6%를 보여주었으며, 3차년도 77.9%, 4차년도 70.2%, 5차년도 64.6%, 6차년도 61.7%, 7차년도 59.3%, 8차년도 57.3%, 9차년도 55.7%, 10차년도 53.9%를 보여주고 있어 매년 원표본 비중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수

(단위: 가구, %)



1~10차년도 계속응답가구에 속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가구주의 80.5%가 남성으로 1차년도 조사(85.9%) 당시에 비해 그 비중이 5.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한 97.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 40대(27.9%) > 30대(27.1%) > 50대(19.7%) > 60세 이상(17.7%) > 30세 미만(7.6%) 순으로 나타난 데 반해, 1~10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60대 이상이 3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와 40대가 각각 27.1%, 26.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경우는 0.3%에 그치고 있어, 조사 차수에 따른 연령 증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비교적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가구주가 고학력자일수록 지속적인 응답에 보다 덜 참여하는 현상이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계속응답가구 중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가 1차년도(38.6%)보

〈표 2-11〉 1~10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¹⁾

(단위: 명, %)

		1차년도 원표본가구(1차)		1~10차년도 계속응답가구 ²⁾	
전 체		5,000	100.0	2,651	100.0
성 별	남 성	4,293	85.9	2,134	80.5
	여 성	707	14.1	517	19.5
혼인상태	기혼(무배우 포함)	4,657	93.1	2,585	97.5
	미 혼	332	6.6	66	2.5
연 령	30세 미만	380	7.6	6	0.3
	30대	1,356	27.1	168	6.3
	40대	1,397	27.9	711	26.8
	50대	984	19.7	718	27.1
	60세 이상	883	17.7	1,048	39.5
교육수준	고졸 미만	1,910	38.6	1,209	45.9
	고 졸	1,819	36.1	883	33.3
	대학 재학 및 중퇴	147	3.2	56	2.1
	전문대졸	241	4.8	113	4.3
	대졸 이상	882	17.5	390	14.7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2,229	44.6	1,031	38.9
	비임금	1,440	28.8	760	28.7
	미취업자	1,331	26.6	860	32.4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10차년도: 해당 가구에 가구주가 없거나, 개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는 제외함.

다 7.3%포인트 증가한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는 1차년도보다 2.8%포인트 감소하였다.

취업상태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소폭 감소한 데 비해, 비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10차년도 계속응답가구주 중 임금근로자는 38.9%, 비임금근로자는 28.7%, 미취업자는 32.4%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살펴볼 때, 2~10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들은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

에서 단순하게 살펴볼 때, 가구주의 특성이 여성인 경우보다는 남성인, 기혼인 경우보다는 미혼인, 중고령자보다는 저연령층인,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인,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표본이탈가구의 가구주 특성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 대상 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10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17,603명이다.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5,601명으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로 52.9%이며,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218명으로 2.1%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비원표본가구원은 신규 가구조사에 진입하는 연도에 따라 응답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응답 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1~10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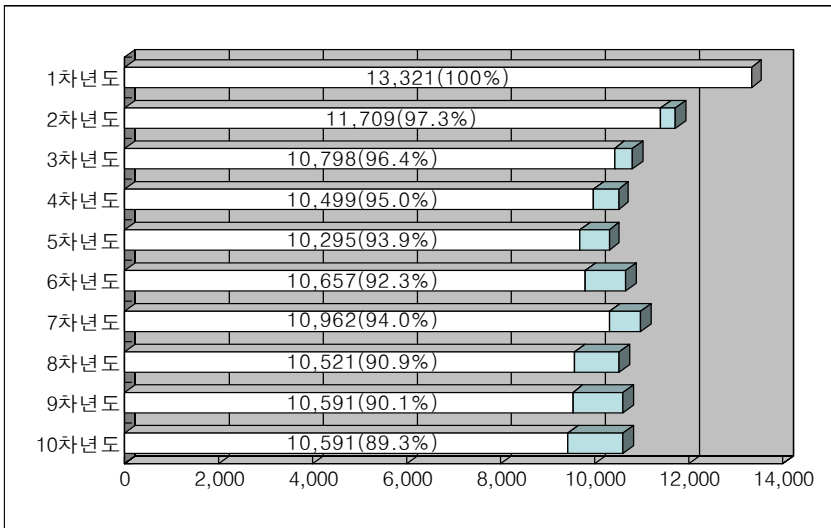
(단위: 가구, %)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1회	1,416	8.0	218	2.1	1,198	17.1
2회	1,373	7.8	246	2.3	1,127	16.1
3회	1,234	7.0	257	2.4	977	13.9
4회	1,267	7.2	318	3.0	949	13.5
5회	1,263	7.2	418	3.9	845	12.1
6회	1,098	6.2	512	4.8	586	8.4
7회	1,346	7.6	791	7.5	555	7.9
8회	1,338	7.6	928	8.8	410	5.8
9회	1,667	9.5	1,302	12.3	365	5.2
10회	5,601	31.8	5,601	52.9	0	0.0
전 체	17,603	100.0	10,591	100.0	7,012	100.0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인 17,506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이었다. 2차년도에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원 12,037명 중 97.3%에 해당하는 11,70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3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205명 중 96.4%에 해당하는 10,798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총 11,051명의 조사성공가구원 중 95%에 해당하는 10,49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5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0,966명 중 93.9%에 해당하는 10,295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으며, 6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541명 중 92.3%에 해당하는 10,657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7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661명 중 94%에 해당하는 10,962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8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580명 중 90.9%에 해당하는 10,521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9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756명 중 90.1%에 해당하는 10,591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10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855명 중 89.3%에 해당하는 10,591명이 응답하였다. 즉 1~

[그림 2-2]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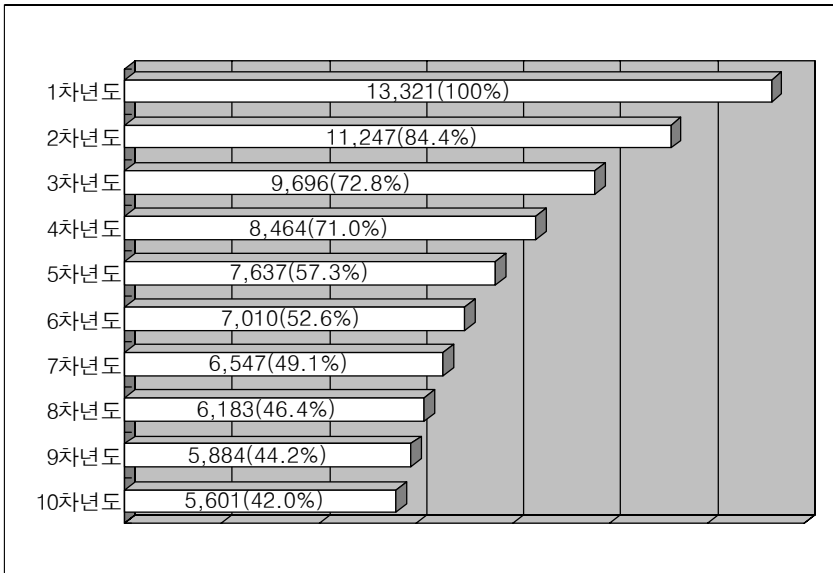


10차년도 기간 동안 당해 연도 전체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원표본가구원의 절대적인 수치는 6차년도 이후 지금까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성공률에 비하여 원표본조사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1차년도 총 조사성공가구원 13,321명 중 84.4%인 11,247명이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는 전년도보다 11.6%포인트가 감소한 9,696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4차년도에는 9.3%포인트가 감소한 8,464명의 가구원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6.2%포인트가 감소한 7,637명이 조사에 성공하였다. 6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7%포인트가 감소한 7,010명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7차년도에는 3.4%포인트가 감소한 6,547명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다. 8차년도에는 2.8%포인트가 감소한 6,183(46.4%)명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9차년도에는 2.2%포인트가 감소한 5,884(44.2%)명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 2-3]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10차년도에는 2.2%포인트가 감소한 5,601(42.0%)명에 대한 조사가 성공하였다. 이처럼 1~10차년도 기간 동안 계속응답가구원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감소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이탈했던 개인이 다시 복귀할 경우 중간에 누락되었던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임금 등과 같은 주요 특성들에 대한 설문에서 복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당해 연도에 직접조사할 경우와 비교할 때 자료의 일관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 2-13〉 1~10차년도 계속응답가구원의 특성¹⁾

(단위: 명, %)

		1차년도 가구원 ²⁾		1~10차년도 계속응답가구원	
전 체		13,321	100.0	5,601	100.0
성 별	남 성	6,471	48.6	2,488	44.4
	여 성	6,850	51.4	3,113	55.6
혼인 상태	미 혼	3,845	28.9	520	9.3
	기혼 유배우	3,854	62.4	4,236	75.6
	기혼 무배우	1,164	8.7	845	15.1
연령	15~19세	1,445	10.9	-	-
	20~24세	1,248	9.4	29	0.5
	25~29세	1,451	11.2	293	5.2
	30~39세	3,047	22.9	914	16.3
	40~49세	2,616	19.6	1,471	26.3
	50~59세	1,706	12.8	1,218	21.8
	60세 이상	1,807	13.6	1,676	29.9
교육 수준 ²⁾	무 학	856	6.4	398	7.1
	고졸 미만	4,575	34.4	1,962	35.0
	고 졸	4,403	33.1	1,886	33.7
	대졸 미만	1,136	8.5	139	2.5
	전문대졸	717	5.4	410	7.3
	대졸 이상	1,633	12.3	806	14.4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4,012	30.1	2,025	36.2
	비임금근로자	2,415	18.1	1,294	23.1
	미취업자	6,894	51.8	2,282	40.7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고졸 미만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수료·중퇴자를 포함.

계속응답가구원과 1차년도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원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표 2-13>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가구원 중 여성의 비중이 55.6%로 1차년도 51.4%와 비교할 때 4.2%포인트 높은 가운데, 혼인상태 별로도 기혼자(기혼 무배우 포함)의 비중이 90.7%로 1차년도보다 71.1%보다 19.6%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지난 10년간의 자연 증가가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60세 이상의 계속 응답자 비중이 29.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과 고졸의 비중이 1~10차년도 계속응답자의 6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6.1%포인트 증가한 반면, 미취업자의 비중은 1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절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가구의 특성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이 1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LIPS 10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2007년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4,78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10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695가구로 분가가구를 제외한 전체 성공가구의 14.5%이다. KLIPS의 이사율은 7~10차년도 평균으로 16.2%에 이르고 있는데, 7차년도 이사율은 18.8%, 8차년도는 15.0%, 9차년도는

13) 통계청 홈페이지, 『2006년 인구이동 통계결과』에서 인용하였다.

16.3%, 10차년도는 14.5%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2-14>를 통해 7-10차년도 기간 동안 평균적인 이사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 지역이 각각 21.5%와 1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사가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10.7%), 광주(11.5%)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가동이 활발하며, 최근 신행정도시로 결정된 바 있는 대전·충북 지역의 이동률도 지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의 <표 2-9>에서 살펴보았던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이해하는 데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사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이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현재의 경우 경기·대전과 같이 이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이사가구를 추적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인력이 투입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4> 10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단위: %)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7~10차 평균
전 체	18.8	15.0	16.3	14.5	16.2
서 울	21.8	15.2	18.9	17.3	18.3
부 산	11.7	9.4	12.2	11.5	11.2
대 구	16.9	12.5	14.9	13.4	14.4
대 전	18.0	21.4	11.9	12.5	16.0
인 천	22.5	13.1	13.0	15.8	16.1
광 주	13.3	6.9	15.0	10.9	11.5
울 산	12.7	15.9	11.2	12.7	13.1
경 기	27.1	20.2	21.3	17.2	21.5
강 원	15.0	10.8	14.3	13.9	13.5
충 북	12.2	21.2	17.2	15.3	16.5
충 남	9.0	15.6	13.6	13.6	13.0
전 북	12.8	12.9	12.8	13.1	12.9
전 남	14.7	12.3	12.1	12.2	12.8
경 북	11.2	8.9	12.5	10.1	10.7
경 남	15.1	14.9	15.4	9.4	13.7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KLIPS 10차년도 조사성공가구(5,069가구) 중에는 원표본 3,775가구 이외에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는 아니었지만, 2차년도 이후 분가하여 새롭게 조사에 진입한 비원표본 1,294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분가성공가구 중 2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5가구이며, 3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02가구, 4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46가구, 5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35가구, 6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2가구, 7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55가구, 8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48가구, 9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5가구, 10차년도에 116가구로 나타났다(표 2-15 참조).

〈표 2-15〉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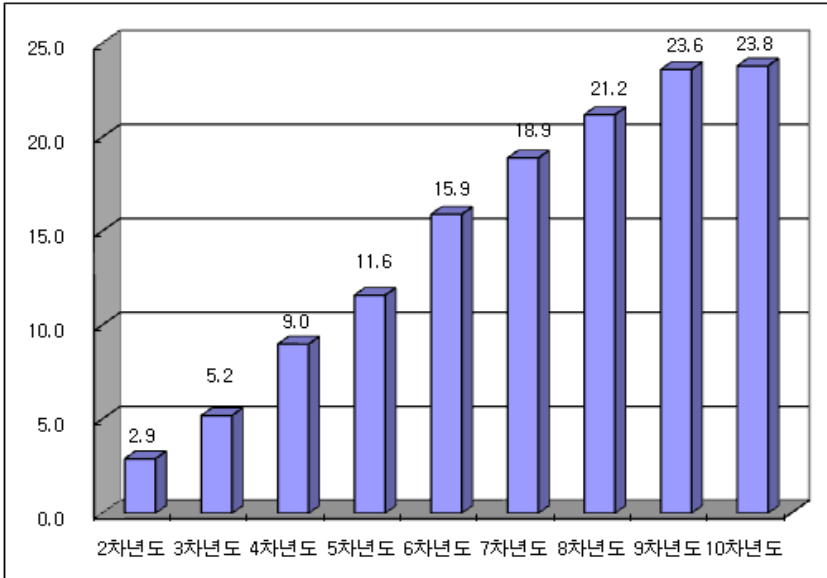
(단위: 가구수)

	전 체		응답가구		비응답가구	
	가수	비율(%)	가수	비율(%)	가수	비율(%)
진입시점	1,616	100.0	1,294	100.0	333	100.0
2차년도	225	13.9	165	12.8	60	18.6
3차년도	147	9.1	102	7.9	45	14.0
4차년도	194	12.0	146	11.3	48	14.9
5차년도	182	11.3	135	10.4	47	14.6
6차년도	217	13.4	162	12.5	55	17.1
7차년도	187	11.6	155	12.0	32	9.9
8차년도	173	10.7	148	11.4	25	7.8
9차년도	175	10.8	165	12.8	10	3.1
10차년도	116	7.2	116	9.0	0	0

한편,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5.2%, 4차년도 9.0%, 5차년도 11.6%, 6차년도 15.9%, 7차년도 18.9%, 8차년도에는 21.2%, 9차년도에는 23.6%, 10차년도에는 23.8%에 이르고 있다.

(그림 2-4)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단위: %)



3. 비성공가구의 특성

10차년도까지 파악된 전체 조사 대상 가구는 모두 6,991가구(소멸가구 포함)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10차년도 응답가구를 제외한 비성공가구는 1,920가구이다. 이 중에서 143가구는 당해 연도에 분가했으나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가구이며, 나머지 1,777가구는 이전에 조사에 응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가구이다. <표 2-16>은 10차년도 비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 및 비성공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비성공가구들의 비성공 사유를 살펴보면, ‘강력 거절’이 절반을 넘은 지난해(51.1%)에 비해 소폭 감소한 49.9%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사를 하였으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추적할 수 없었던 ‘이사/추적 불가’가 36.0%로 지난해(29.8%)에 비해 6%포인트 가량 증가하였다. ‘접촉 안됨’도 8.8%로 지난해(6.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 외에도 사망 1.0%, 이민 1.9%, 그리고 합가가 0.2%를 차지하였다.

비성공가구에 대한 면접원의 접촉 횟수는 평균 2.2회로 성공가구의 평

〈표 2-16〉 10년도 비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가구수, %)

비성공 이유	전 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사례수	1,777	522	140	129	59	87	54	40	345
강력 거절	49.9	46.6	57.9	47.3	64.4	37.9	59.3	60.0	51.6
이사/추적불가	36.0	37.6	32.1	39.5	20.3	51.7	25.9	25.0	35.9
접촉 안됨	8.8	10.9	5.7	7.0	13.6	8.1	5.6	0.0	9.3
사 망	1.0	0.8	1.4	2.3	0.0	0.0	1.9	5.0	0.6
이 민	1.9	2.7	0.7	3.1	1.7	0.0	0.0	2.5	1.2
합 가	0.2	0.2	0.0	0.0	0.0	0.0	0.0	2.5	0.3
기 타	2.3	2.4	2.1	0.8	0.0	2.4	7.5	5.0	1.2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성공 이유	전 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사례수	1,777	44	40	31	53	29	98	96	2	8
강력 거절	49.86	31.8	65.0	74.2	39.6	37.9	46.9	55.2	100.0	0.0
이사/추적불가	35.96	63.6	2.5	12.9	45.3	48.3	35.7	37.5	0.0	0.0
접촉 안됨	8.78	4.6	27.5	6.5	3.8	6.9	10.2	1.0	0.0	25.0
사 망	1.01	0.0	0.0	3.2	0.0	0.0	3.1	0.0	0.0	0.0
이 민	1.86	0.0	2.5	0.0	1.9	0.0	2.0	2.1	0.0	25.0
합 가	0.23	0.0	0.0	0.0	0.0	0.0	0.0	1.0	0.0	0.0
기 타	2.3	0.0	2.5	3.2	9.5	7.0	2.0	3.1	0.0	50.0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비성공 사유 중 143가구는 비성공 사유가 기록되지 않음.

균 면접 횟수 2.6회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공가가와 비성공가구간에 체계적인 방문 횟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9차년도에는 비성공가구의 방문 횟수가 오히려 많았던 반면, 8차년도에는 성공가구의 방문 횟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구의 방문 횟수가 체계적으로 성공률을 높인다든지 혹은 낮춘다기보다는 면접원 개인의 성향, 기록의 성실성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는 1회가 31.3%로 성공가구의 1회 방문자의 비중인 37.0%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7 참조). 일반적으로 비성공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접촉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방문 횟수가 성공가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비성공 이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표 2-17〉 각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

(단위: 빈도, %)

	가구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전 체	6,843	68.8	89.7	55.0	87.1	90.2	90.7
비성공가구	1,777	31.3	10.3	45.0	12.9	9.8	9.3
성공가구	5,066	37.0	19.0	22.3	9.7	6.1	5.8

주: 비성공가구 중 148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표 2-18〉은 그러한 예측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강력 거절의 75.8%, 접촉 안됨의 91.0%가 3회 이상 방문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사하였거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88.0%가 1회 방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더 이상 추가적인 접촉이 어려운 가구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방문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18〉 각 비성공사유별 평균 방문 횟수

(단위: %)

비성공 이유	전 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강력 거절	100.0	15.6	8.6	61.9	7.2	3.6	3.2
이사/추적 불가	100.0	88.0	7.2	4.2	0.3	0.2	0.2
접촉 안됨	100.0	4.5	4.5	69.2	11.5	5.1	5.1
사 망	100.0	88.9	5.6	5.6	0.0	0.0	0.0
이 민	100.0	90.9	3.0	6.1	0.0	0.0	0.0
합 가	100.0	25.0	50.0	0.0	25.0	0.0	0.0
기 타	100.0	92.7	2.4	2.4	2.4	0.0	0.0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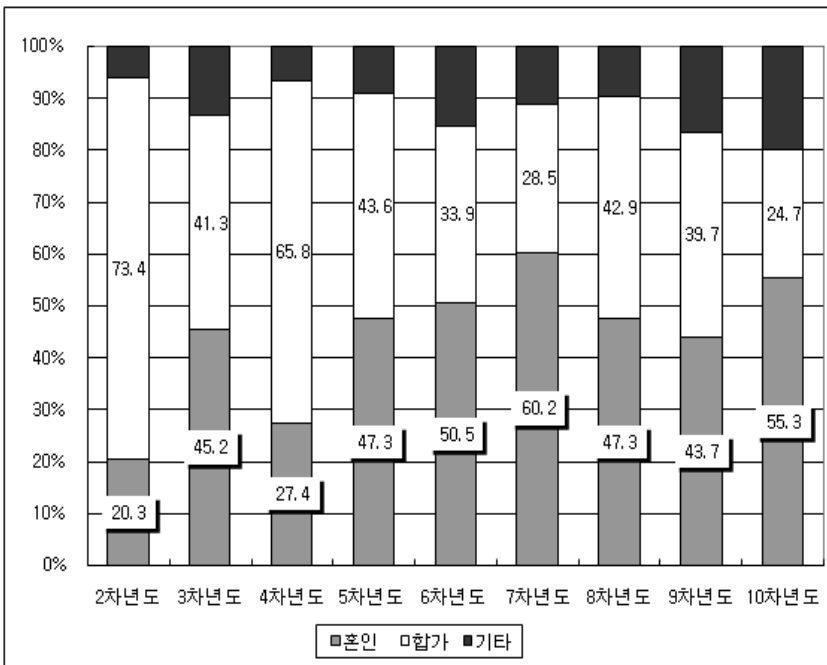
10차년도 KLIPS의 신규 조사자는 396명으로, 이 중 원표본가구에 속 하는 가구원은 218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 조사된 가구원은 178명 으로 파악되었다. 신규 조사자의 진입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첫 번째는 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되는 경우인데, 이 들은 1~10차 조사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10차년도 조사시 만 15세가 되어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비표본가구원의 진입인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비표본가구원이 새롭게 15세가 되는 등의 이유로 처음 개인조사에 응답하는 경우와, 혼인이나 합가로 인해 10차년도에 새롭게 조사 대상자로 추가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5]를 통해서 2~10차년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7차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혼인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합가로 인한 추가는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8차년도 이후 다시 합가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혼인으로 인한 추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비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추가된 이유(2~10차년도)

(단위: %)



10차년도 신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19 참조), 남성(50.8%)이 여성(49.2%)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원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53.9%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19〉 10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세)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전 체		396	100.0	178	100	218	100
성 별	남 성	201	50.8	82	46.1	119	54.6
	여 성	195	49.2	96	53.9	99	45.4
가구주와 의 관계	가구원	362	91.4	144	80.9	218	100.0
	가구주	34	8.6	34	19.1	0	0.0
혼인상태	미 혼	163	41.2	162	91.0	1	0.5
	기 혼	233	58.8	16	9.0	217	99.5
평균 연령		25.4		15.6		37.3	

전체 신규 조사자 중에서 가구주는 8.6%이지만, 대부분이 비원표본가구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41.2%를 차지한 가운데 원표본가구원은 대부분 미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원표본가구원 대부분이 15세가 되면서 신규로 개인조사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평균 연령은 25.4세로 기존 조사자들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원표본가구원의 평균 연령(15.6세)과 비원표본가구원(37.3세)의 연령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제 6 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표본조사 자료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KLIPS의 경우에도 인구센서스 및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 내 가구수와 동부 및 읍면부 도시 조사구 비중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매년도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중치의 부여방법 및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계산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이 ‘추출될 확률(selection probability)’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것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과 표본가구의 추출확률로 구분된다. 먼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인구센서스의 10% 표본조사구에 선정되고, 다시 KLIPS의 표본조사구로 선정될 확률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본조사구에서 최종 표본가구로 추출될 확률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로 총 접촉가구수를 나눈 값과 인구센서스 조사구 내의 전체 가구수로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를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최종적인 표본의 추출확률은 조사구 추출확률과 최종 표본가구 추출확률의 곱으로 계산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응답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역에 따라 응답가구와 비응답가구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응답률 계산에 지역 정보나 조사구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을 가중치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한편, KLIPS 가중치 부여에는 적절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관계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실시하지 않았다. 우선 KLIPS의 1차조사가 1998년임을 고려할 때 가구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나 이를 사용하여 사후층화를 하는 것은 시의성이 없다. 개인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 등이 있으나, 장래인구추계 자료는 광역시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한 연령·성별 인구분포 추계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는 전수조사 자료가 아닌 표본조사 자료이므로 사후층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KLIPS과 같은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는 자료의 특성상 1차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1차년

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이 2차년도 조사 이후에 응답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사간 표본이탈(panel attrition)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표본가구에 결혼·동거·입양·출생 등의 이유로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으로 인해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구성원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부여되었다. 1단계로 이미 산출된 1차조사의 개인가중치를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 여부에 관한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한 후 도출된 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가구원들의 응답 확률을 추정하게 된다. 이 응답 확률의 역수를 최초의 개인가중치에 곱하여 무응답 조정 가중치(non-response adjusted weights)를 산출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새롭게 산출된 해당 조사의 개인가중치를 평균하여 적절한 조정절차를 거친 후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이때 결혼·동거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가구 차원의 무응답 조정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스케일 조정을 거쳤다. 1998년 가구가중치는 이미 스케일 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2000~06년)의 5년간 총 가구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을 KLIPS 1차년도 가중치 합계에서부터 매년 곱해 주어 산출하였다. 개인가중치의 스케일 조정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농가 생산가능인구(1998~2002년)의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1차년도 개인가중치 합계에 평균 증가율 값을 매년 곱해 주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가중치의 결과 값은 <표 2-20>에 표기하였다.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가중치는 KLIPS의 분석 단위에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개략적인 사용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0〉 KLIPS의 가중치의 사례 수

(단위: 명)

	가구가중치			개인가중치				
	전 체	평균	s.d.	전 체	종단면		횡단면	
					평균	s.d.	평균	s.d.
1차년도	11,276,899	2,255	415	30,039,370	2,255	417	2,255	417
2차년도	11,453,518	2,541	575	30,503,448	2,534	675	2,534	576
3차년도	11,632,899	2,727	721	30,974,696	2,764	879	2,764	726
4차년도	11,815,100	2,781	851	31,453,224	2,846	1,055	2,846	854
5차년도	12,000,165	2,792	946	31,939,145	2,912	1,215	2,912	964
6차년도	12,188,092	2,654	1,001	32,432,573	2,810	1,314	2,810	1,028
7차년도	12,378,982	2,599	1,063	32,933,624	2,824	1,447	2,824	1,117
8차년도	12,575,245	2,593	1,124	33,442,416	2,888	1,608	2,888	1,210
9차년도	12,769,777	2,553	1,175	33,959,067	2,889	1,720	2,889	1,277
10차년도	12,969,778	2,558	1,216	34,486,033	2,909	1,811	2,909	1,327

먼저 가구 차원의 분석에는 가구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으며, 종단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 중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동일한 가중치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 차원의 분석에는 연구자의 분석 목적에 따라 개인 횡단면 가중치와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다.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의 추출 확률이 표본가구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표본가구원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을 제외하고 원표본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현재 개발된 가중치의 스케일이 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추계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대표 모집단의 총 사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음 장부터 제시될 요약 통계들에서는 각 특성별 비중만 제시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제 3 장

조사가구의 특성

본장에서는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 성공한 5,069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노동패널 조사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 변동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 1 절 가구 및 세대 구성

본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하며, 가구원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표 3-1〉은 10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평균 가구원수는 3.1인으로 나타난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원수는 3.11명, 광역시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원수는 3.10명, 도 지역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원수는 3.05명으로 거주지별 평균 가구원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가구원수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3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인(21.6%), 2인(16.9%)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 체 (가구수)	5,000	4,509	4,267	4,248	4,298	4,592	4,762	4,850	5,002	5,069
1인	10.2	9.8	10.3	10.9	11.2	12.4	13.4	14.3	16.2	16.5
2인	13.1	13.0	13.7	14.3	15.2	16.1	16.4	16.9	17.5	16.9
3인	19.4	19.7	19.7	18.7	19.4	19.9	20.8	21.5	20.8	21.6
4인	38.0	38.3	38.0	38.7	38.4	37.1	36.4	35.5	34.4	34.5
5인	13.8	14.3	13.6	13.3	12.3	11.4	10.5	9.5	9.0	8.7
6인 이상	5.5	4.9	4.7	4.2	3.6	3.2	2.7	2.3	2.2	1.9
평균(인)	3.5	3.5	3.5	3.4	3.4	3.3	3.2	3.2	3.1	3.1

10차년도 가구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1~3인 가구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가구추계자료¹⁴⁾에서 추정된 1인가구의

비중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KLIPS가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표집되었지만 10년의 조사 기간 동안 표본의 특성이 많이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차수가 길어질수록 인구센서스 전체 표본과 유사한 특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본의 인적 특성 변화는 제2절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가구의 세대 구성¹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65.0%로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2.3%를 차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 체 (가구수)	5,000	4,509	4,267	4,248	4,298	4,592	4,762	4,850	5,002	5,069
1인 가구	10.2	9.8	10.2	10.9	10.9	12.4	13.4	14.3	16.2	16.5
1세대 가구	10.1	10.2	10.7	11.0	11.8	12.1	12.1	12.6	12.9	12.3
2세대 가구	69.8	70.2	69.7	69.2	68.9	67.9	67.7	66.5	64.5	65.0
3세대 가구	9.8	9.8	9.4	8.9	8.3	7.6	6.8	6.6	6.3	6.2
4세대 가구	0.1	0.1	0.1	0.2	0.1	0.1	0.1	0.1	0.0	0.0

14) 인구센서스 및 가구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은 2002년 16.1%, 2003년 16.4%, 2004년 16.7%, 2005년 17.0%, 2006년 17.2%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15)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가구 :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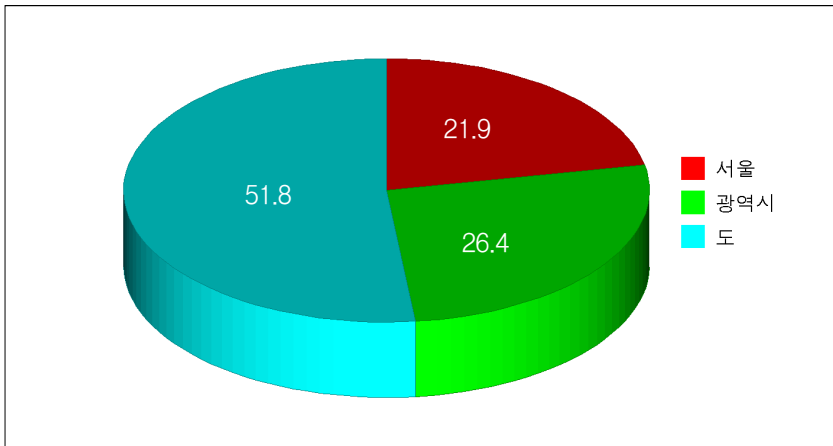
지하였다. 다음으로는 1인가구가 16.5%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6.2%였다.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세대 가구는 1차년도에 그 비중이 10.1%에 그쳤던 데 반해 9차년도 조사에서는 2.8%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1차년도 9.8%에 비해 오히려 3.5%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은 제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10차 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51.8%가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과 광역시 지역의 3세대 가구 비중을 합한 값보다도 많은 것으로 중소도시일수록 여전히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보여준다.

(그림 3-1) 10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단위: %)



<표 3-3>은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핵가족이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 단독),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한다. 먼저 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54.1%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 체(가구수)	5,000	4,509	4,267	4,248	4,298	4,592	4,762	4,850	5,002	5,069
핵가족가구	74.4	74.8	75.1	75.8	76.0	75.6	75.6	75.0	73.7	73.6
부부 단독	9.0	9.1	9.5	10.2	10.8	11.2	11.2	11.7	12.1	11.6
부모+미혼자녀	59.3	59.6	59.1	59.2	58.6	56.6	56.4	55.0	53.6	54.1
편부모+미혼자녀	6.1	6.1	6.5	6.4	6.6	7.7	8.0	8.2	8.0	7.9
1인가구	10.2	9.8	10.2	10.9	10.9	12.4	13.4	14.3	16.2	16.5
비핵가구	15.4	15.5	14.8	13.4	13.1	12.1	11.0	10.7	10.2	9.9

있다. 다음으로 부부 단독 가구가 11.6%, 편부모+미혼자녀 가구가 7.9%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4.4%, 2차년도 74.8%, 3차년도 75.1%, 4차년도 75.8%, 5차년도 76.0%, 6차년도와 7차년도가 모두 75.6%, 8차년도 75.0%, 9차년도 73.7%, 10차년도 73.6%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구추계 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0년 68.3%, 2001년 68.5%, 2002년 68.6%, 2003년 68.7%, 2004년 68.8%, 2005년 68.8%, 2006년 68.9%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약 5%포인트 정도 높은 가운데 핵가족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2 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본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⁶⁾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알

16)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수 있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10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0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81%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 체		4,989	4,473	4,227	4,221	4,230	4,548	4,684	4,763	4,923	4,986
성 별	남 성	86.1	86.1	86.1	85.9	85.4	83.5	83.2	82.0	81.5	81.0
	여 성	14.0	13.9	13.9	14.1	14.6	16.5	16.8	18.0	18.5	19.0
혼인 상태	미 혼	6.5	6.0	6.5	5.8	6.0	6.7	7.4	8.0	9.0	9.8
	기혼 유배우	79.6	79.5	78.8	79.1	78.8	77.0	75.6	74.2	72.8	72.1
	기혼 무배우	13.9	14.5	14.7	15.1	15.2	16.4	17.0	17.8	18.2	18.2
연령	30세 미만	6.3	5.1	4.3	4.7	4.3	5.1	4.7	5.2	5.0	5.1
	30대	26.9	26.8	25.4	23.1	22.9	22.8	22.8	22.4	22.5	22.6
	40대	28.4	28.2	28.7	30.0	28.9	28.6	28.1	27.0	26.1	25.6
	50대	20.1	19.7	19.8	19.2	19.3	18.8	19.6	20.2	20.9	20.4
	60세 이상	18.3	20.3	21.8	23.0	24.5	24.6	24.8	25.3	25.6	26.3
	평균(세)	46.8	47.5	48.2	48.7	49.1	49.1	49.4	49.6	49.8	50.0
교육 수준	무 학	6.2	6.2	6.2	5.9	6.0	5.8	5.5	5.5	5.3	5.1
	고졸 미만	32.3	31.7	31.5	32.0	30.5	29.0	27.8	26.6	25.1	24.0
	고 졸	36.0	35.5	35.2	33.7	33.6	33.5	32.6	31.8	31.2	30.3
	대재 및 중퇴	2.9	2.8	2.6	2.8	2.6	2.8	3.2	3.2	3.5	3.8
	대졸 이상	22.6	23.8	24.6	25.5	27.3	28.9	30.9	33.0	34.9	36.9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역시나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연령 계층 중 가장 많은 비중인 26.3%를 차지하였다. 9차년도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40대는 25.6%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10차년도에는 36.9%까지 증가하였다.

2.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개인 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1,855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표 3-5>에서는 10차년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보여준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1.4%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조사 차수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10차년도 조사에서는 여성이 47.7%, 남성이 52.3%로 전년도에 비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1.8세로 나타났다. 10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16.9%로 1차년도(13.5%)에 비해 3.4%포인트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10.8%)에 비해 2%포인트가 하락한 8.8%로 나타났다.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30대(21.3%)지만, 40대(19.6%)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두 연령대의 격차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자가 2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무학력자의 비중도 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미만의 학력 소지자도 25.5%에 이르고 있으나 1차년도(34.4%)에 비해서는 8.9%포인트나 감소하였다. 반면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32.8%로 1차년도 17.8%에 비해 15.0%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1~10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 체		13,321	12,038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11,855
성 별	남 성	48.6	48.9	49.3	49.6	49.9	50.1	50.8	51.1	51.8	52.3
	여 성	51.4	51.1	50.7	50.4	50.1	49.9	49.2	48.9	48.2	47.7
연 령	15~19세	10.9	11.0	10.1	9.4	8.9	8.9	8.9	8.7	8.7	8.8
	20~24세	9.3	9.1	9.6	10.1	9.8	9.6	9.5	8.4	8.2	7.7
	25~29세	10.9	10.8	10.8	10.8	10.4	10.9	10.8	11.4	11.5	11.7
	30~39세	23.0	22.7	22.2	21.4	21.7	21.3	21.5	21.6	21.1	21.3
	40~49세	19.6	19.5	19.6	20.5	20.4	20.5	20.5	20.4	20.1	19.6
	50~59세	12.8	12.5	12.6	12.4	12.6	12.6	12.9	13.3	13.9	14.0
	60세 이상	13.5	14.5	15.1	15.5	16.2	16.1	16.0	16.3	16.5	16.9
	평균(세)	39.7	39.9	40.3	40.6	40.9	41.0	41.1	41.4	41.6	41.8
혼인 상태	미 혼	28.8	29.7	30.9	30.9	31.1	31.9	32.6	33.0	33.5	34.4
	기혼 유배우	62.6	61.6	60.6	60.5	60.2	59.2	58.3	57.5	56.8	56.0
	기혼 무배우	8.7	8.7	8.6	8.6	8.7	8.9	9.1	9.5	9.7	9.7
교육 수준	무 학	6.5	6.3	6.0	5.7	5.6	5.2	4.9	4.8	4.5	4.3
	고졸 미만	34.4	33.3	32.3	31.8	30.5	29.5	28.4	27.5	26.6	25.5
	고 졸	32.8	32.7	32.4	30.8	30.4	29.8	28.9	28.4	27.4	26.7
	대재 및 중퇴	8.5	8.8	9.1	9.9	9.6	9.6	10.0	9.6	10.3	10.7
	전문대졸	5.5	6.0	6.5	7.2	8.1	8.6	9.2	9.8	10.0	10.6
	대졸 이상	12.3	13.0	13.7	14.6	15.8	17.4	18.7	20.1	21.2	22.2

제 3 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 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 군입대,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의 인구 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¹⁷⁾.

17) 이 절의 분석에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 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9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출생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10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1,600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2차년도 148명, 3차년도 122명, 4차년도 191명, 5차년도 150명, 6차년도 217명, 7차년도 209명, 8차년도 172명, 9차년도 188명, 9차년도 203명, 10차년도 20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차, 7차, 10차년도의 경우에는 여아의 비중이 각각 55.4%와 50.2%, 그리고 52.7%로 남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연도에는 남아의 비중이 여아의 출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3-6> 2~10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 체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 체	1,600	148	122	191	150	217	209	172	188	203
남 성	822 (51.6)	75 (50.7)	66 (54.1)	87 (45.6)	82 (54.7)	111 (51.2)	104 (49.8)	93 (54.1)	108 (57.4)	96 (47.3)
여 성	778 (48.6)	73 (49.3)	56 (45.9)	104 (55.4)	68 (45.3)	106 (48.8)	105 (50.2)	79 (45.9)	80 (42.6)	107 (52.7)

주: ()안은 전체 대비 비중임.

다음으로 1~10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자. 총 사망자는 637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64명, 3차년도 59명, 4차년도 92명, 5차년도 60명, 6차년도 80명, 7차년도 72명, 8차년도 80명, 9차년도 76명, 10차년도 54명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60.3%(384명), 여성이 38.9%(248명)로 남성이 21.4%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차년도의 경우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3차년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39.0%로 증가하고 4차년도에는 여성이 55.4%로 과반수를 초과하였다. 그

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표 3-7〉 2~10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체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체		637 (100.0)	64 (100.0)	59 (100.0)	92 (100.0)	60 (100.0)	80 (100.0)	72 (100.0)	80 (100.0)	76 (100.0)	54 (100.0)
성별	남성	384 (60.3)	44 (68.8)	36 (61.0)	41 (44.6)	36 (60.0)	50 (62.5)	50 (71.4)	47 (60.3)	46 (61.3)	34 (63.0)
	여성	248 (38.9)	20 (31.3)	23 (39.0)	51 (55.4)	24 (40.0)	30 (37.5)	20 (28.6)	31 (39.7)	29 (38.7)	20 (37.0)
사망 당시 연령	50세 미만	80 (12.6)	12 (19.1)	6 (10.3)	10 (10.9)	9 (16.1)	13 (16.9)	11 (15.3)	7 (8.8)	9 (11.8)	3 (5.6)
	50~ 59세	71 (11.1)	6 (9.5)	6 (10.3)	12 (13.0)	6 (10.7)	8 (10.4)	12 (16.7)	11 (13.8)	5 (6.6)	5 (9.3)
	60~ 69세	130 (20.4)	18 (28.6)	15 (25.9)	11 (12.0)	10 (17.9)	20 (26.0)	16 (22.2)	14 (17.5)	18 (23.7)	8 (14.8)
	70~ 79세	162 (25.4)	14 (22.2)	17 (29.3)	26 (28.3)	21 (37.5)	14 (18.2)	20 (27.8)	19 (23.8)	18 (23.7)	13 (24.1)
	80세 이상	185 (29.0)	13 (14.1)	14 (24.1)	33 (35.9)	10 (17.9)	22 (28.6)	13 (18.1)	29 (36.3)	26 (34.2)	25 (46.3)

주: 사망 시기를 응답하지 않아 사망 당시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명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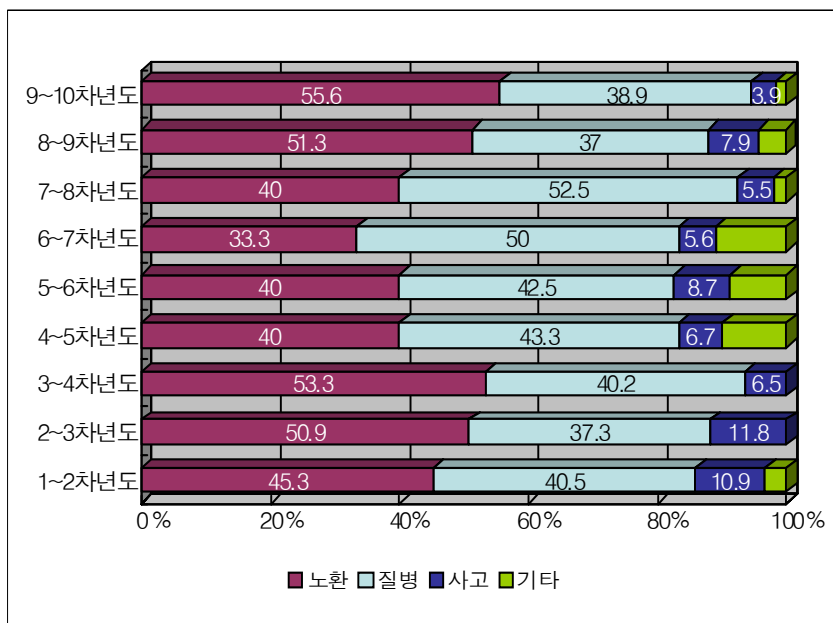
러나 5차년도에는 남성 사망자가 60%를 넘어서고 6차년도에는 62.5%를 보이다가 7차년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71.4%를 나타냈으며, 8차년도에는 60.3%, 9차년도에는 61.3%, 10차년도에는 63.0%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조사 기간 동안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12.6%이며, 50~59세가 11.1%, 60~69세는 20.4%, 70~79세는 25.4%, 80세 이상은 29.0%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사망한 가구원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2차년도 사망자는 65.5세, 3차년도 69.3세, 4차년도 70.7세, 5차년도 66.8세, 6차년도는 67.3세, 7차년도는 67.1세, 8차년도는 73세, 9차년도 72.4세, 10차년도 75.3세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3-2]와 같이 9~10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노환이 55.6%(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질병이 38.9%(21명), 사고

[그림 3-2] 사망자의 사망원인

(단위: %)



가 3.7%(2명), 기타가 1.9%(1명)로 각각 조사되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 결과 1~4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은 노환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을 나타냈으나, 5~8차년도 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증가하였다가 9차년도 이후부터 노환으로 인한 사망이 다시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등장했다.

제 4 장

가계경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10차년도(2006년) 조사에서도 9차년도 조사에 이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구소득 부분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소비를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 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하였다. 또한, 2~10차년도의 연간 총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제시하였다.

제 1 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 중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별히 9차년도 조사에서부터는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나누어 물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소득 또한 9차년도 조사에서는 그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¹⁸⁾.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10차년도의 경우 2006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응답하게 했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8) 10차년도에 조사된 기타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을 받은 금액 포함) (2)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3) 보험금-종신보험, (4) 퇴직금, (5) 증여·상속, (6) 축의금·조의금, (7) 복권이나 경마·오락 경기 등의 당첨 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8) 교통사고나 폭설·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9) 기타.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의 비교가능성을 생각하여 기타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온전한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⁹⁾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²⁰⁾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차년도의 연간 총소득은 3,690만 원(월평균 30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8만 원 정도 늘어났으며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²¹⁾하면, 9차년도에 비해 239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차년도(1998년 소득)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5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였다.

<표 4-1> 연간 가구의 총소득

(단위: 가구, 만 원)

	2차년도 (1998년)	3차년도 (1999년)	4차년도 (2000년)	5차년도 (2001년)	6차년도 (2002년)	7차년도 (2003년)	8차년도 (2004년)	9차년도 (2005년)	10차년도 (2006년)
명목 소득	1,894 (0.016)	2,019 (0.021)	2,173 (0.015)	2,663 (0.018)	2,818 (0.018)	2,966 (0.017)	3,111 (0.016)	3,372 (0.017)	3,690 (0.030)
실질 소득	2,302	2,433	2,559	3,016	3,103	3,156	3,197	3,372	3,611

주: ()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19) 성재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통권 14호) 참조.

20)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득액을 0으로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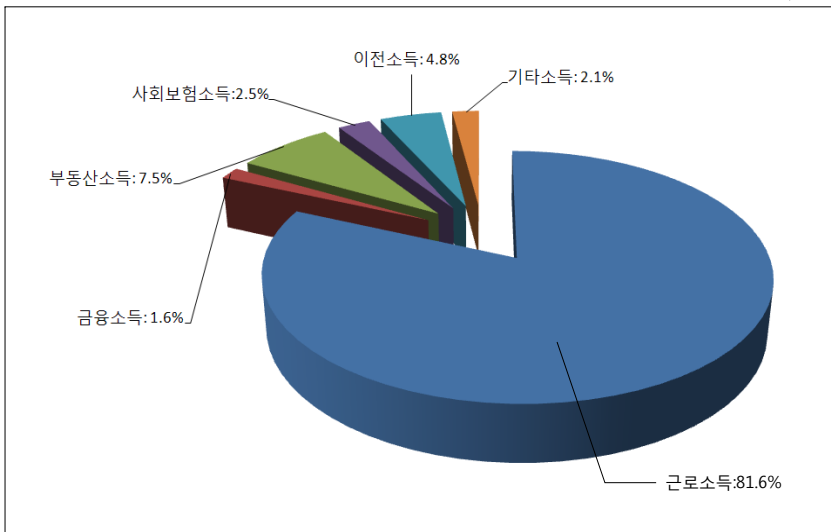
21) 실질소득=(명목소득/당해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100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조사』의 물가지수(2005년=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그림 4-1]과 <표 4-2>를 통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에 대해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5.1%였으며, 그 금액도 가장 큰 것(3,50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부동산소득이 연평균 2,398만 원으로 비교적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소득액이 가장 낮은 소득원천은 이전소득으로 연간 평균 345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득액 기준이 아닌 소득 유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53.4%의 가구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해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림 4-1)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단위: %)



한편 가구의 전체 소득액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을 살펴보면, 역시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81.6%)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득은 가구 총소득 중 1.6%에 지나지 않았으며, 연평균 금융소득액 또한 529만 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4-2〉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단위: 만 원, %)

	연평균 소득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근로소득	3,507	85.1
금융소득	529	11.3
부동산소득	2,398	10.7
사회보험소득	655	14.4
이전소득	345	53.4
기타소득	1,226	6.4

제 2 절 가구소비

이 절에서는 10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소비는 작년 한 해(10차년도의 경우 2006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 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용돈, 피복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서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9차년도 조사부터는 용돈 항목을 같이 사는 부모

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 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이후 9차년도 조사부터는 종신보험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1. 생활비

<표 4-3>은 2~10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제시하였다. 9차년도 조사에서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13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증가폭은 4차년도까지 점차 커지다가 5차년도부터는 완만해진 이후 10차년도 들어 다시 대폭 상승하였다.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2차년도 16.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차년도 조사에서는 8.2%까지 감소한 반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2차년도에는 2.9%에 불과했으나 5차년도부터는 크게 증가하여 10차년도에는 2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2~10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전 체	4,474	4,248	4,212	4,290	4,567	4,746	4,804	4,954	5,032
50만 원 미만	16.7	15.6	13.8	11.6	10.7	9.4	8.6	8.7	8.2
50만~100만 원 미만	34.9	31.1	28.7	21.3	20.3	18.3	17.6	16.5	15.8
100만~150만 원 미만	28.4	25.9	28.1	26.3	23.9	21.6	21.3	20.1	18.3
150만~200만 원 미만	11.3	14.5	15.5	19.0	18.7	19.7	18.7	17.8	16.9
200만~250만 원 미만	5.8	7.8	8.0	11.5	12.8	13.7	14.7	14.8	14.5
250만 원 이상	2.9	5.2	6.0	10.3	13.5	17.3	19.1	22.1	26.3
월평균 생활비(만 원) (변동계수)	101 (0.010)	108 (0.011)	118 (0.011)	137 (0.011)	151 (0.011)	163 (0.011)	169 (0.011)	177 (0.011)	190 (0.011)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²²⁾을 살펴보면(표 4-4 참조), 월평균 식비는 31만 원으로, 식비의 비중이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16.1%)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월평균 공교육비는 13만 원, 사교육비는 16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9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생필품 구입비는 월평균 5만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차년도부터 세분화하여 질문하고 있는 용돈의 경우에는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이 1만원, 자녀용돈이 10만원, 그 외 가구원의 용돈이 17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단위: 만 원, %)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생활비에서의 비중
식비	31	16.1
외식비	7	3.6
공교육비	13	6.9
사교육비	16	8.3
차량유지비	16	8.6
주거비	17	9.0
경조사비	7	3.6
보건의료비	5	2.8
교양오락비	4	2.1
내구재	2	0.9
통신비	12	6.1
같이사는 부모님 용돈	1	0.4
자녀 용돈	10	5.4
그외 가구원의 용돈	17	8.8
피복비	6	3.4
헌금 및 기부금	3	1.8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13	6.8
대중교통비	5	2.6
생필품 구입비	5	2.4
기타	0	0.2
전체 생활비	191	100.0

22) 한국노동패널 2차, 4~10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같이사는 부모님 용돈의 액수가 낮은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은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저축

10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9.7%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52.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참조).

〈표 4-5〉 2~10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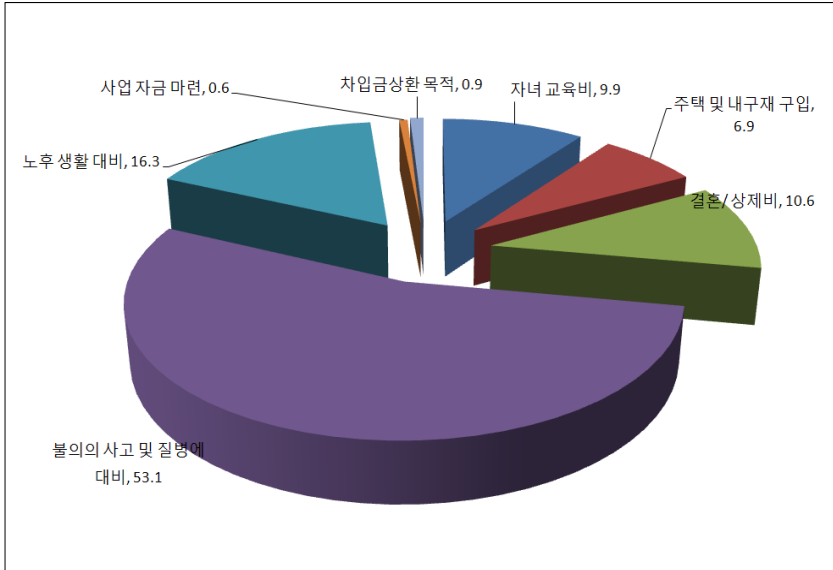
(단위: 가구, %, 만 원)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 체	4,458	4,247	4,186	4,292	4,592	4,762	4,849	5,001	5,069
저축 안함	47.9	48.7	31.0	26.9	34.4	35.1	31.5	31.2	30.3
저축함	52.1	51.3	68.9	73.1	65.6	64.9	68.5	68.8	69.7
월평균 저축액	24.8	28.7	34.5	41.7	40.7	42.9	44.8	46.1	52.6

2~10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하는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52.1%와 51.3%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4차년도에는 69.8%까지 증가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73.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에는 65.6%, 7차년도에는 64.9%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8차년도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2차년도 24만 8천 원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0차년도에는 큰 폭으로 늘어 52.6만 원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이나 생활비 지출과 그 맥락을 거의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10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53.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와 '자녀 교육비'가 각각 16.3%와 9.9%로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내구재 구입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6.9%로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림 4-2] 10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이 절에서는 따로 사는 가족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LIPS는 4차년도 이후 따로 사는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에 관해 조사해 왔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 부모님과의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교류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할 뿐,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9차년도 조사부터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과의 교류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가구의 사적 이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던 8차년도 이전 조사와는 달리 9차년도부터는 현금 교류액과 현물 교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표 4-6>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

〈표 4-6〉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단위 : %)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주는 도움
전 체	2,515		2,405		1,772	
없었음	75.1	29.5	76.1	34.3	33.5	74.1
있었음	25.0	70.5	23.9	65.7	66.5	25.9

이 25.0%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66.5%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70.5%, 65.7%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25.9%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교류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교류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평균 306만 5천원,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21만 7천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금액 또한 601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단위 : 만 원)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주었던 금액
지난해 연간 총금액	306.5	179.3	221.7	95.9	336.5	601.1
현 금	261.9	169.2	180.4	88.8	316.9	562.2
현 물	44.6	10.5	41.3	7.1	20.0	38.9

반면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은 각각 179만 3천 원, 95만 9천 원에 그쳤으며,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336만 5천 원에 그쳐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에게 이전되는 소득이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인 데 반해,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은 결혼자금, 학자금과 같이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현물보다는 현금을 통한 교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액이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액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3 절 주거형태 및 비용

본절에서는 10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²)을 초과하는 4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또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²) 이하의 4층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 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달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

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 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10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59.1%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전세 21.7%, 월세 13.1%로 나타났다. 2~10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의 비중이 2차년도 56.6%에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2차년도 39.2%에서 5.3%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8> 2~10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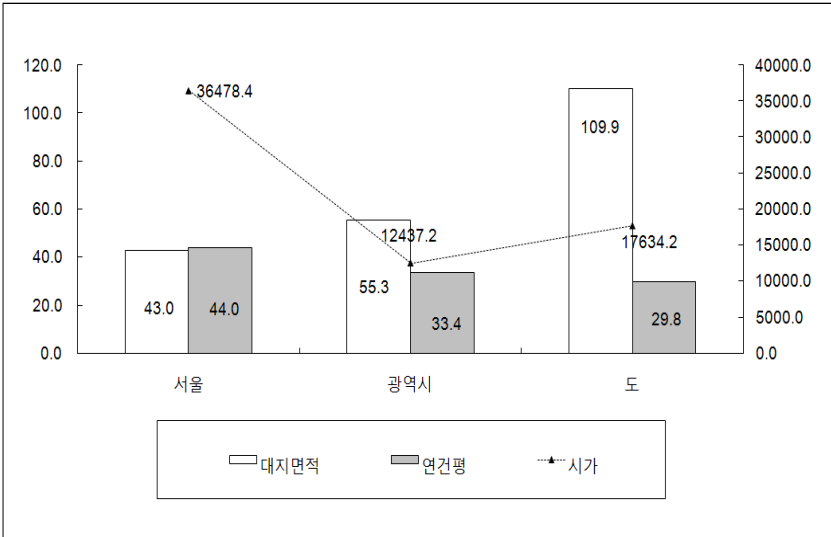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 체	4,508	4,258	4,247	4,286	4,592	4,762	4,850	5,002	5,069
자 가	56.6	56.8	59.2	60.1	61.1	60.7	60.7	59.7	59.1
전 세	30.1	30.4	28.6	27.7	23.8	23.1	23.3	22.8	21.7
월 세	9.1	8.4	7.6	7.3	9.2	10.6	11.3	11.7	13.1
기 타	4.2	4.3	4.6	5.0	5.9	5.7	4.7	5.7	6.1

[그림 4-3]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 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 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 면적은 평균 109.9m²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55.3m², 서울은 43.0m²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계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44.0m²인 데 비해서 도

[그림 4-3] 10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 면적·연건평 및 시가

(단위: 평,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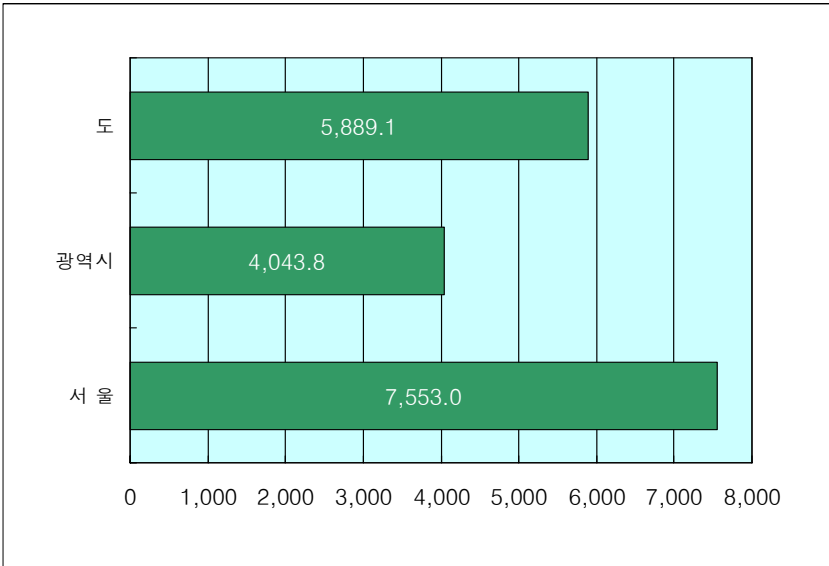


지역과 광역시는 각각 29.8², 33.4²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3억 6,478만 원인 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34.1%에 해당하는 1억 2,437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억 7,63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4-4], [그림 4-5]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거주 응답자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7,553만 원으로 광역시(4,044만 원)보다는 약 2배 정도 높으며, 도 지역(5,889만 원)보다도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세 거주자의 거주지별 보증금/월세를 살펴보면, 월세는 서울이 월 23.2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타 지역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임대보증금 금액에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서울의 월세계약 임대보증금은 평균 1,575만 원이었으며, 이는 광역시나 도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각각 2배, 1.4배 가량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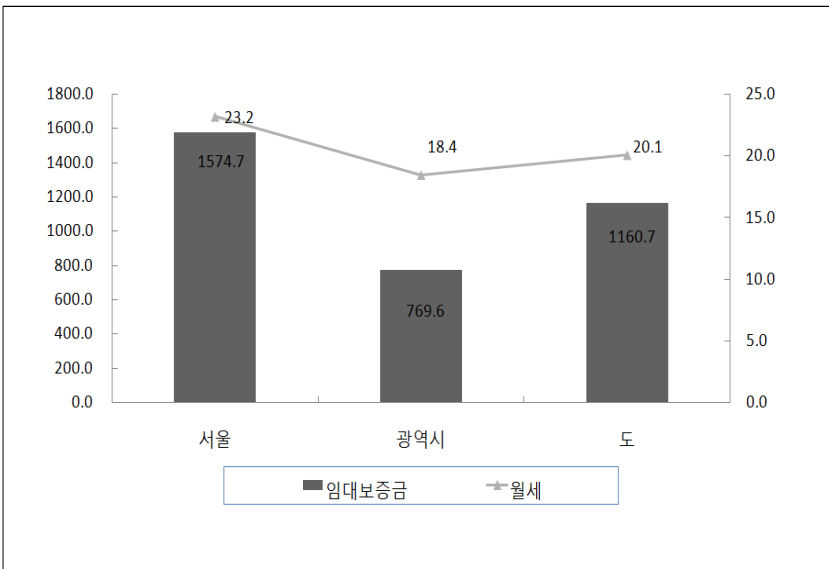
[그림 4-4] 10차년도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단위: 만 원)



[그림 4-5] 10차년도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

(단위: 만 원)



2. 주택의 종류

<표 4-9>는 2~10차년도 주택 종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0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45.6%를 차지하는 아파트이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28.4%를, 다세대주택이 12.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8차년도부터 기타에서 분리하여 질문하고 있고 있는 상가주택은 3.3%를 차지했다.

<표 4-9> 2~10차년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단위: 가구, %)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 체	4,506	4,250	4,248	4,286	4,592	4,762	4,850	5,002	5,069
단독주택	38.4	37.7	38.0	36.5	36.6	34.1	32.0	29.1	28.4
아파트	33.5	34.4	35.7	37.3	39.6	41.4	43.6	44.3	45.6
연립주택	7.8	8.0	7.8	7.7	7.5	8.3	8.7	8.4	8.7
다세대주택	15.3	15.1	12.0	12.3	10.2	10.1	11.2	13.5	12.5
상가주택	-	-	-	-	-	-	3.4	3.5	3.3
기 타	5.0	4.9	6.6	6.1	6.2	6.1	1.1	1.2	1.6

주: 상가주택은 8차년도 조사부터 추가적으로 질문한 항목으로, 이전 연도 조사에서는 기타로 분류되어 왔음.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2차년도 33.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차년도에 이르러 45.6% 포인트 증가한 반면, 나머지 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 비중의 감소(1970년 95% → 2005년 44.5%), 아파트의 비중 증가(1970년 0.7% → 2005년 41.7%)라는 추세가 KLIPS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 4 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10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소비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10차년도의 경우 2007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임야·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임야·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 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차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자산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10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3.7%로 전년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가 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10차년도의 경우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1.1%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2차년도에 1.5%에서 3차년도에 0.2%포인트 감소했으나, 10차년도에는 7.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3차년도와 4차년도에 각각 7.6%, 7.2%에 그치던 것이 5차년도부터 증가하여 10차년도에는 21.3%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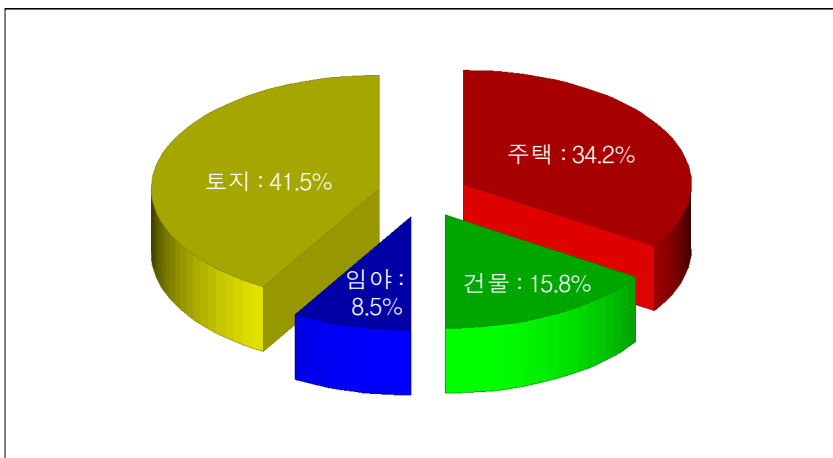
〈표 4-10〉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50	5,002	5,069
부동산 소유 여부									
없 음	78.7	80.0	77.7	77.7	78.8	78.7	77.2	76.6	76.3
있 음	21.3	20.0	22.3	22.3	21.2	21.3	22.8	23.4	23.7
1천만 원 미만	8.7	6.3	8.3	5.8	6.8	6.1	4.1	3.0	4.0
1천~5천만 원 미만	28.9	30.2	27.7	24.1	28.5	21.6	21.8	18.8	15.2
5천~1억 원 미만	24.2	24.0	26.5	26.5	19.1	19.2	18.0	18.1	20.2
1억~3억 원 미만	28.4	30.7	26.5	31.0	28.8	30.2	32.5	34.3	31.1
3억~5억 원 미만		5.3	4.4	5.9	7.1	9.4	10.1	11.3	11.4
5억~10억 원 미만	3.6	2.3	2.8	4.0	5.9	7.1	7.6	8.7	9.9
10억 원 이상	1.5	1.3	1.8	1.8	2.8	3.2	4.5	4.8	7.7
잘 모르겠음	4.6	-	2.0	0.9	1.0	3.2	1.3	1.1	0.5

10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6]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토지로 전체 응답 중 41.5%를 차지했다.

(그림 4-6) 10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주: 이 항목은 복수 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 개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다음으로는 주택이 34.2%, 건물이 15.8%, 임야가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자산

<표 4-11>를 통해서 10차년도에 조사된 가구 중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10차년도 65.8%로 지난 9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8차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여 10차년도에는 2,084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전 체	4,494	4,243	4,201	4,276	4,575	4,739	4,794	4,975	5,023
없 음	28.8	35.1	34.1	33.7	36.7	39.0	34.5	37.6	34.2
250만 원 미만	15.7	12.7	14.7	12.4	11.8	12.0	10.8	10.0	11.1
250만~500만 원	8.6	7.4	6.1	5.6	5.3	5.7	5.6	6.2	5.9
500만~1,000만 원	12.7	12.4	12.3	11.4	10.8	9.7	11.2	10.1	11.4
1,000만~5,000만 원	27.8	25.2	25.4	27.7	27.2	24.7	28.0	26.2	26.6
5,000만~1억 원	4.4	4.6	4.4	6.1	4.7	5.3	5.8	5.5	6.1
1억 원 이상	2.0	2.7	3.1	3.0	3.6	3.6	4.2	4.4	4.8
평 균(만원)	1,344	1,396	1,582	1,598	1,674	1,670	1,906	1,912	2,084

주: 금융자산 시가 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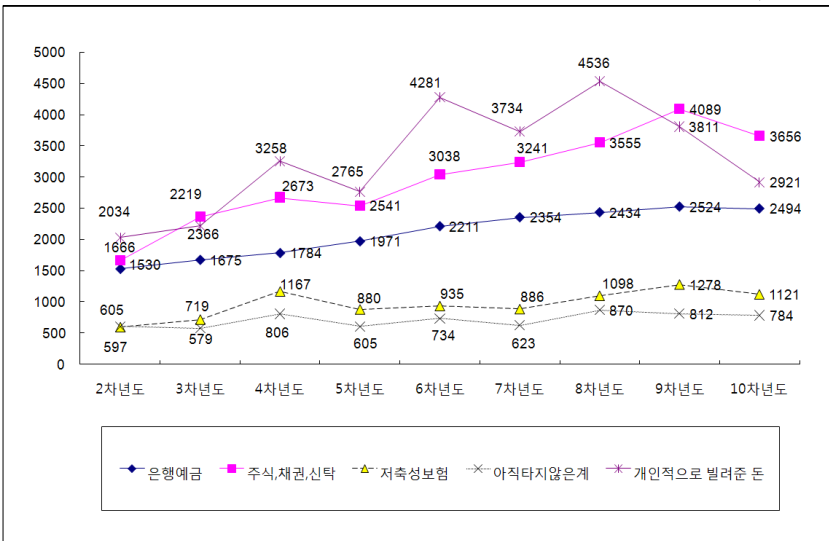
10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11.1%, 250만~5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5.9%, 500만~1,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소득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소득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소득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7차년도의 경우 금융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늘고,

5,000만~1억 원 미만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6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소폭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4-7]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속되어 온 증가 추세가 꺾이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7~9차년도 동안 크게 증가했던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의 비중이 10차년도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은 여전히 은행예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연도별로 증가하다가 10차년도에 감소하였다. 2차년도에는 주식/채권/신탁이 1,666만 원으로 은행예금(1,530만 원)보다 136만 원 정도 높지만,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각각 691만 원과 88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5차년도에는 조금 감소하여 570만 원으로 좁혀졌으나, 6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다시 827만 원이 되었고 7차년도에는 887만 원으로, 9차년도에는 1,56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가 10차년도에는 다시 1,162만 원으로 좁혀졌다.

(그림 4-7) 2~10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

(단위: 만 원)



주: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한편 저축성보험금과 계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구의 부채

10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52.4%를 차지하여 2차년도 조사(50.5%) 당시보다 약 1.9%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 반면 평균 부채 잔액은 2차년도 1,843만 8천 원이던 것이 3차년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10차년도에는 3,488만 6천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에는 49.5%였다가 3차년도에 53.3%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0차년도에는 47.6%로 소폭 상승하였다.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 잔액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가 1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며, 10차년도에는 1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부채 잔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전 체	4,491	4,259	4,225	4,281	4,581	4,742	4,829	4,988	5,046
부채 없음	49.5	53.3	50.6	50.0	49.6	49.2	48.5	47.4	47.6
500만 원 미만	7.1	5.5	5.5	5.2	4.5	3.8	4.1	4.3	3.9
500만~1천만 원 미만	7.1	6.1	6.5	6.2	5.7	5.0	4.4	4.4	4.5
1천만~5천만 원 미만	26.3	24.2	26.7	26.5	25.4	25.1	25.2	24.1	22.6
5천만~1억 원 미만	6.3	7.0	6.7	7.0	8.4	9.5	9.0	10.2	10.9
1억 원 이상	3.8	4.0	4.1	5.2	6.4	7.5	8.7	9.7	10.5
평균(만 원)	1,843.8	1,745.6	1,817.1	2,123.8	2,583.2	2,702.5	2,989.7	3,211.3	3,488.6

주: 가구의 부채 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제 5 절 자녀 교육비

KLIPS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5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로까지 확대 조사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 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각 가구의 자녀의 유무와 자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8.7%였으며, 2명인 경우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6.2%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7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4-13> 10차년도 가구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단위: %)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있 음	38.7	대학생 이상 자녀 유무	있 음	16.2
	없 음	61.3		없 음	83.8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	1명	39.8	대학생 이상 자녀수	1명	78.5
	2명	52.9		2명	21.0
	3명 이상	7.3		3명 이상	0.5

다음으로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47만 3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4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67.6%에 달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정의 2/3 이상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평균 643만 5천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평균 52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보다도 많은 84.3%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는 정규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4> 10차년도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단위: %)

		고등학생 이하 자녀	대학생 이상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27.8	56.6
	약간 부담된다	39.8	27.7
	보통이다	22.9	10.4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6.0	2.4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2.6	0.4
	모르겠다	0.9	2.6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 (만원)		47.3	643.5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 (만원)		29.4	528.5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7년도 제10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10개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연도간 비교 분석 시에는 중단면 가중치를, 10차년도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된 각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는 <표 5-1>에서 제시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1절 경제활동상태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²³⁾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

〈표 5-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 1~10차년도

(단위:명)

		전 체	개인 자료	신규 자료
1차년도		13,321	13,321	-
2차년도		11,709	11,236	473
3차년도		10,798	10,495	303
4차년도		10,499	10,268	231
5차년도		10,295	10,072	223
6차년도		10,657	10,381	276
7차년도		10,692	10,450	242
8차년도		10,521	10,313	208
9차년도		10,591	10,378	213
10차년도	종단 분석	10,591	10,373	218
	횡단 분석	11,840	11,446	394

주: 1~9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10차년도 종단 분석도 동일하게 계산. 10차년도 횡단 분석 사례수는 횡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일이 있는 주에는 일자리를 구해 조사 당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류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23)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표 5-2〉 경제활동상태 비교 : 1~10차년도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년도	48.3 (48.3)	7.6 (9.4)	44.1 (42.3)
2차년도	51.8 (51.8)	3.8 (4.5)	44.5 (43.7)
3차년도	51.4 (51.4)	2.4 (2.9)	46.3 (45.7)
4차년도	52.4 (52.4)	2.1 (2.6)	45.5 (45.0)
5차년도	53.9 (53.9)	2.0 (2.3)	44.1 (43.8)
6차년도	53.6 (53.6)	2.5 (2.8)	43.9 (43.6)
7차년도	53.4 (53.4)	2.8 (3.2)	43.8 (43.4)
8차년도	53.0 (53.0)	2.8 (3.4)	44.2 (43.7)
9차년도	53.2 (53.2)	2.7 (3.2)	44.0 (43.6)
10차년도	53.0 (53.0)	2.4 (2.9)	44.7 (44.2)

주: ILO 기준 실업자 정의. () 안은 OECD 기준 실업자 정의.

합쳤을 때 100.0이 안 되거나 넘는 경우는 모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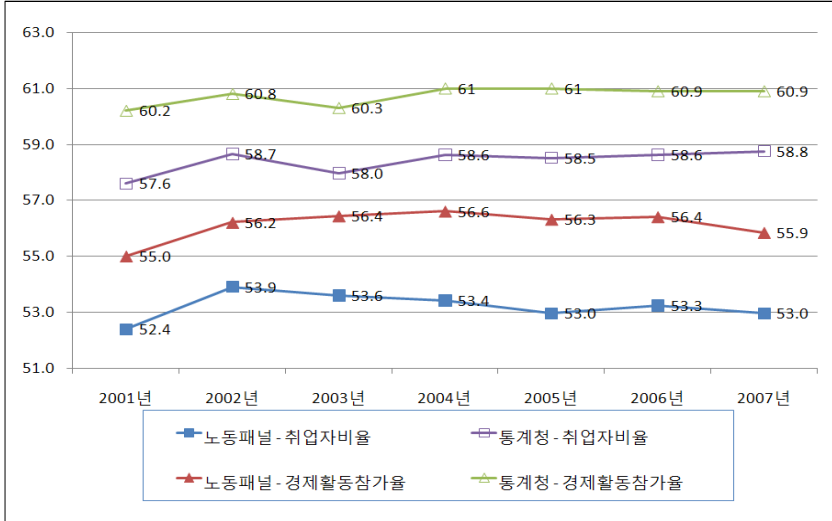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은 5차년도(2002년)를 정점으로 다소 하락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48.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5차년도에 53.9%까지 증가하였다가 하락하여 10차년도의 경우 53.0%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업자²⁴⁾의 비중은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해 10차년도 현재 2.4%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0차년도 현재 44.7%를 기록했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지난 7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인구비율)과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 비율은 약 3~4%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로 실업률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4) 현재 공식 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 기준은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OECD 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 통계에서 전자를 실업자의 정의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후자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ILO 기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림 5-1) 최근 7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 2001~2007년

(단위 : %)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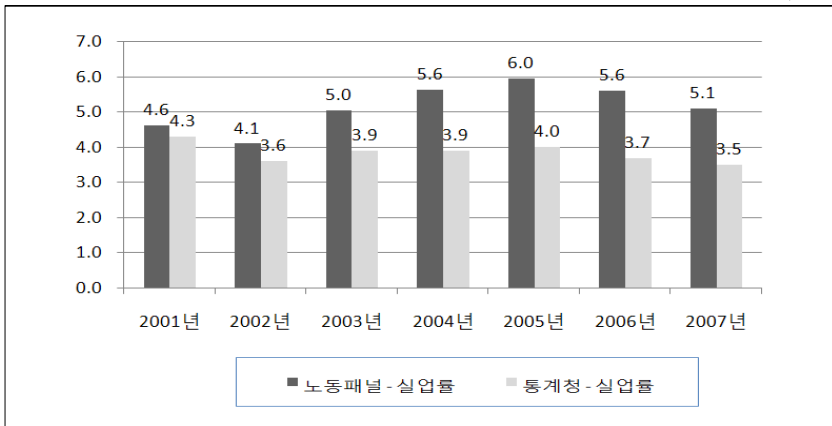
취업인구비율 = 취업자/생산가능인구 × 100.

실업자를 OECD 정의에 근거해 산출했을 경우 계산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그림 5-2) 최근 7년간 실업률 비교 : 2001~2007년

(단위 : %)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조사」, 비농가부문임. 실업률 = 실업자(OECD 정의)/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두 자료는 가구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상태 분류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조사 대상 기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댓값의 차이는 있지만 패턴의 측면에서는 KLIPS가 비농가 부문의 경제활동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업률의 경우는 최근 4년간 격차가 생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취업자의 특성

<표 5-3>과 <표 5-4>는 산업별로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KLIPS에서도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산업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산업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7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년	9.3	21.4	69.4
1999년	8.7	22.5	68.9
2000년	8.3	22.7	69.0
2001년	7.4	21.4	71.2
2002년	6.6	21.3	72.2
2003년	6.3	20.9	72.8
2004년	5.7	20.0	74.3
2005년	5.5	20.5	74.0
2006년	5.0	21.0	74.0
2007년	5.0	20.4	74.6

주: 1) 2002년에 개정된 제7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2) 1차 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

3차 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3) 경제활동인구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기.

4)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4〉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7년

(단위:%)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년	12.0	19.7	68.2
1999년	11.3	19.9	68.7
2000년	10.6	20.4	69.0
2001년	10.0	19.9	70.2
2002년	9.3	19.2	71.5
2003년	8.8	19.1	72.1
2004년	8.1	19.1	72.8
2005년	7.9	18.6	73.5
2006년	7.7	18.1	74.2
2007년	7.4	17.7	75.0

주: 제7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준함.

2차 산업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9차년도(2006년) 조사에서 소폭 늘어났다가 10차년도에는 다시 8차년도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표 5-5〉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종사자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의 증가 대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의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전문관리직은 1998년 당시 20.8%를 차지하였으나, 이 비중이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7년에는 29.2%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폭으로 증가했는데, 1999년 10.7%에서 2007년에는 14.3%까지 증가하였다. 반대로 서비스판매직은 1998년 25.5%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19.4%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농림어업직(1998년 9.4% → 2007년 4.9%)과 생산직(1999년 35.6% → 2007년 32.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표 5-6〉에 제시된 경활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 면에서 두 조사 간에 약간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문관리직의 경우 경활조사에서는 뚜렷한 증가 추세가 관찰되지 않으나 KLIPS에서는 전문관리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서비스판매직도 경활조사에서는 뚜렷한 감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7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년	20.8	14.0	25.5	9.4	30.3
1999년	20.8	10.7	24.4	8.5	35.6
2000년	21.5	11.0	23.3	8.1	36.1
2001년	21.9	12.1	23.8	7.3	34.9
2002년	23.2	12.3	23.3	6.4	34.7
2003년	24.9	12.8	22.1	6.3	34.0
2004년	26.0	13.7	21.1	5.7	33.5
2005년	27.6	14.0	20.4	5.4	32.7
2006년	28.0	15.0	19.3	4.9	32.8
2007년	29.2	14.3	19.4	4.9	32.2

- 주 : 1)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을 포함.
- 2) 통계청의 직업분류의 변경을 반영하여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모든 수치를 2002년에 개정된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조정함.
- 3)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6〉 경활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7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년	18.8	12.4	23.6	11.5	33.7
1999년	19.1	11.3	23.7	10.7	35.1
2000년	18.9	11.6	23.8	10.0	35.7
2001년	20.9	12.1	25.6	9.2	32.2
2002년	21.3	12.4	25.5	8.6	32.2
2003년	20.1	14.3	25.2	8.3	32.2
2004년	20.5	14.1	25.0	7.5	32.8
2005년	20.9	14.3	24.7	7.5	32.7
2006년	21.6	14.2	24.1	7.2	32.8
2007년	22.2	14.1	23.8	6.9	33.0

- 주 : 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2001년부터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단, 연도별 비교를 위해 제4차 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중에서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시함.

소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도 차이이다. 또한, 상대적인 구성 면에서는 KLIPS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생산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경찰조사의 경우 전문관리직보다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10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5-7>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타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광공업(22.7%)에, 여성의 경우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1.3%)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에는 60대 이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는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20% 이상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광공업은 청년층, 30대, 40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융 및 부동산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

<표 5-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 10차년도

(단위 : %)

		농림 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금융 부동산	공공 행정	기타 서비스	전 체
성 별	남 성	4.9	22.7	13.0	17.1	3.0	4.1	35.1	100.0
	여 성	6.2	16.7	1.6	31.3	4.3	2.5	37.4	100.0
연 령	15~29세	0.4	22.4	4.0	21.1	4.4	4.3	43.4	100.0
	30~39세	0.8	21.1	8.2	21.3	4.5	4.2	40.1	100.0
	40~49세	2.7	24.1	8.7	25.7	3.6	2.6	32.6	100.0
	50~59세	6.7	18.4	11.6	24.4	2.6	3.9	32.5	100.0
	60세 이상	32.0	7.0	9.4	17.1	1.4	2.5	30.8	100.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8.1	19.3	11.7	25.2	0.7	1.8	23.3	100.0
	고 졸	3.1	24.7	9.9	27.4	3.0	2.6	29.2	100.0
	대재중퇴	0.6	12.2	7.2	25.5	4.7	3.1	46.8	100.0
	전문대졸	1.3	21.1	6.6	21.4	5.2	2.8	41.7	100.0
	대졸 이상	0.6	15.7	5.2	14.8	5.6	6.4	51.8	100.0

주: 기타서비스업은 3차 산업 중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대졸 이상은 기타 서비스업에, 고졸 미만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농림어업에도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많이 위치해 있었다.

<표 5-8>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에서는 서비스판매직에서는 여성(30.4%)이 남성(13.7%)보다 약 2배 가량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생산직의 경우에는 남성(42.5%)이 여성(19.9%)보다 약 2배 이상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청년층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38.4%, 사무직이 25.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약 40% 전후가 생산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앞서 산업별 비중과 유사하게 농림어업직(30.9%)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의 종사자가 겨우 3.3%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의 경우 이러한 비중이 60.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직의 분포는 고졸 미만의 경우 52.1%를 넘는 데 비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10.0%를 차지하였다.

<표 5-8>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 : 10차년도

(단위 : %)

		전문관리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생산직	전 체
성 별	남 성	28.6	10.2	13.7	5.0	42.5	100.0
	여 성	25.9	17.9	30.4	6.0	19.9	100.0
연 령	15~29세	38.4	25.4	16.6	0.4	19.1	100.0
	30~39세	38.6	19.5	15.7	0.9	25.4	100.0
	40~49세	23.7	11.3	24.6	2.7	37.9	100.0
	50~59세	19.0	4.5	24.6	6.7	45.2	100.0
	60세 이상	9.3	1.4	17.9	30.9	40.6	100.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3.3	2.1	24.8	17.8	52.1	100.0
	고 졸	14.7	12.1	25.4	2.9	44.9	100.0
	대재 중퇴	35.1	18.9	23.9	0.6	21.5	100.0
	전문대 졸	34.9	24.0	17.8	1.2	22.1	100.0
	대졸 이상	60.2	18.3	10.8	0.8	10.0	100.0

제 3 절 미취업자

1. 구직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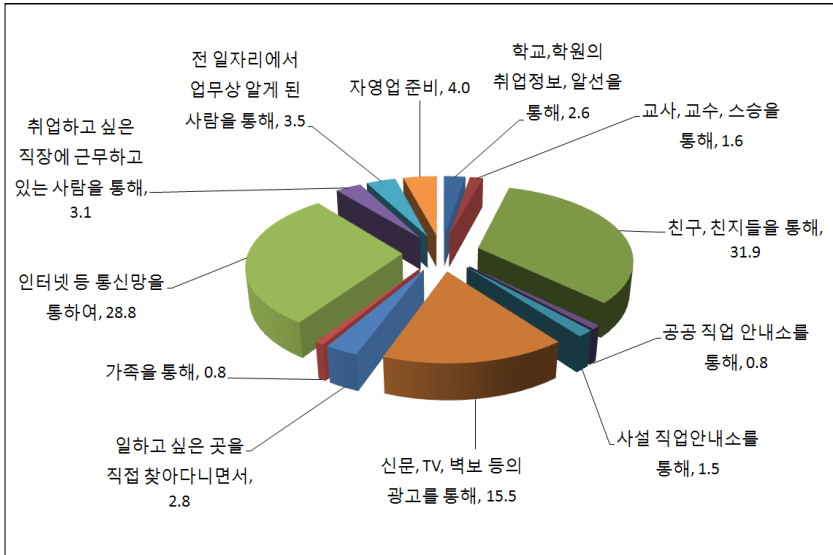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와 연관된다. 10차년도 KLIPS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 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5-3]은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친구·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31.9%를 차지했으며,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여 28.8%로 나타났다. 신문 및 TV, 벽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15.5%, 학교·학원의 취업정보와 알선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2.6% 등이었다.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중은 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전년도에 비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⁵⁾.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 친구, 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가는 경우를 가리킨다.

25)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5-3]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 10차년도



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표 5-9>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표 5-9> 특성별 구직방법 : 10차년도

(단위 :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계
성 별	남 성	52.3	45.2	2.5	100.0
	여 성	58.4	37.7	3.9	100.0
연령별	15~29세	74.4	22.3	3.3	100.0
	30~39세	67.5	32.0	0.5	100.0
	40~49세	29.2	70.8	0.0	100.0
	50~59세	19.3	67.7	13.1	100.0
	60세 이상	16.1	83.9	0.0	100.0
학력별	고졸 미만	15.7	74.5	9.8	100.0
	고 졸	43.9	55.3	0.8	100.0
	대재중퇴	63.2	36.8	0.0	100.0
	전문대졸	62.3	33.7	4.0	100.0
	대졸 이상	83.9	16.1	0.0	100.0

는 비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30대와 30대 미만 젊은 층의 경우 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40대 이상은 비공식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40~50대 정도 되면 비공식적 방법이라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식적 방법의 의존이 줄고 비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고졸 미만은 직접 접촉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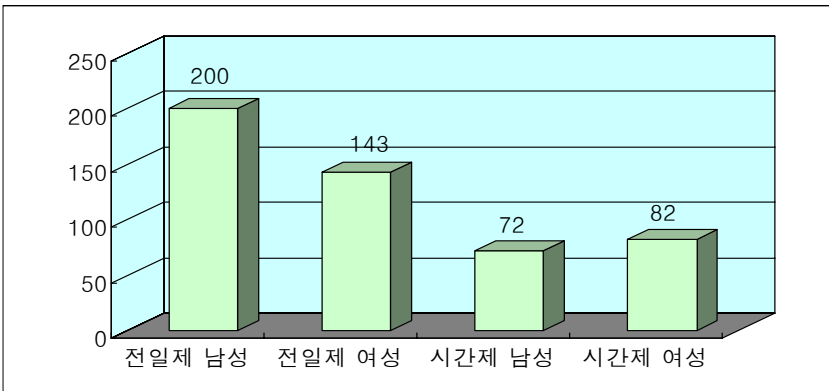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희망임금, 구직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5-4]에서 희망하는 임금수준에 대해 성별, 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2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그림 5-4]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단위: 만 원)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이 143만 원을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72만 원을 희망하였다.

<표 5-10>에서는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표에는 이와 관련된 9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평균 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로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라는 항목에 대해 평균 2.0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일자리의 수입’(2.2점)이나 ‘취업 또는 창업 정보의 부족’ 및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의 불일치’(각 2.6점)를 각각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차별 요인에 대해서는 구직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 일자리의 수입이나 근로조건, 혹은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정보 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단위: 점)

	전체	남성	여성
1.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2.0	2.0	2.1
2.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2.4	2.4	2.4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1	3.2	3.0
4. 경험이 부족하다	3.0	3.1	2.8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2	2.2	2.3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2.6	2.6	2.6
7. 나이가 너무 많다	3.1	3.0	3.2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8	2.8	2.8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3.8	-	3.2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 점수임. 설문지상의 응답 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수급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고 있다.

<표 6-1>에서는 1~10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10차년도에는 전체 4,346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다. 취업자 대비로 볼 때 1차년도 62.4%에서 꾸준히 늘어 7차년도에는 취업자의 69.6%가 임금근로자였으나, 8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68.3%에 그쳤다. 그러나 다시 9차년도부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10차년도에는 70.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1 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절에서는 10차년도(2007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표본 4,346명을 대상으로 횡단면 가중치(w10_pc)를 부여해 계산한 것이다. 또한, 1~10

〈표 6-1〉 임금근로자수와 비중

(단위: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여성(%)	
1차년도	4,010	62.9	37.1	62.4
2차년도	3,967	60.3	39.7	64.3
3차년도	3,742	61.5	38.5	65.3
4차년도	3,843	60.8	39.2	67.3
5차년도	3,975	60.3	39.7	68.1
6차년도	4,211	60.0	40.0	69.4
7차년도	4,257	60.7	39.3	69.6
8차년도	4,085	61.5	38.6	68.3
9차년도	4,300	62.0	38.0	70.3
10차년도	4,346	61.9	38.2	70.9

주: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중단면 가중치 적용.

차년도의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를 제시하였다.

먼저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자의 비중이 3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대졸자로 23.5%였다. 여성의 경우는 고졸 미만과 전문대졸 이하에서 전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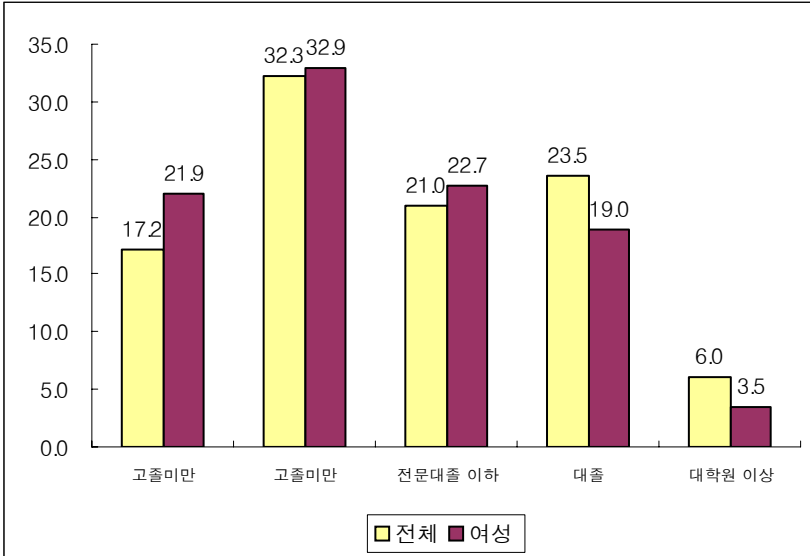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3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40대가 26.8%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는 20대에서 특히 높은 비중(29.4%)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 시기가 빠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등 일시적으로 노동공급이 중단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공공서비스업이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광공업(24.1%)이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0.8%로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²⁶⁾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39.9%가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였으나,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광공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5.6%)이었다.

26) KLIPS 표본 추출시 도시 지역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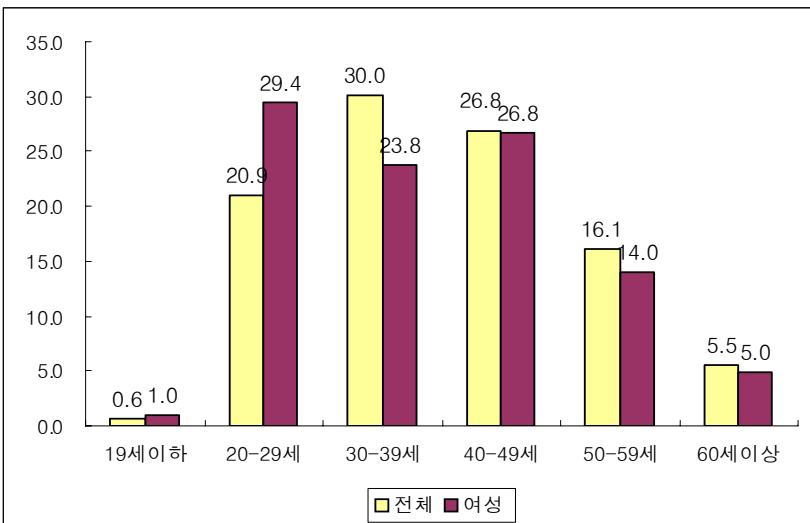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 : 2007년

(단위 : %)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 : 2007년

(단위 : %)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 2007년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산 업	농림어업	0.7	0.5	1.0
	광공업	24.1	26.6	20.4
	건설업	10.4	15.9	1.9
	전기·가스 및 수도업	0.8	1.1	0.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2	11.6	25.6
	운수통신업	6.2	8.1	3.2
	금융 및 부동산업	4.8	4.7	4.9
	공공서비스업	34.8	31.4	39.9
	가사서비스업	1.1	0.0	2.8
	직 종	전문관리직	30.4	31.4
사무직		17.5	13.9	22.9
서비스직		14.0	8.0	23.1
농림어업직		0.7	0.6	0.8
생산직		37.5	46.2	24.4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9.7	35.9	45.5
	10~29인	14.3	15.1	13.0
	30~99인	13.2	13.5	12.6
	100~299인	9.4	10.1	8.3
	300~499인	3.9	4.2	3.3
	500인 이상	19.6	21.1	17.4
기업 형태	민간회사	75.7	75.7	75.7
	외국인회사	1.1	1.0	1.2
	공기업	4.0	4.5	3.2
	법인단체	4.8	4.1	5.8
	정부기관	9.9	9.3	10.7
	비소속	3.8	4.3	2.9
	기 타	0.8	1.0	0.4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함	89.4	87.6	92.2
	2조 2교대제	6.3	7.7	4.3
	3조 3교대제	2.7	2.7	2.8
	기타 교대제	1.5	2.1	0.7
종사상 지위	상용직	78.4	80.7	74.9
	임시직	10.9	7.5	16.2
	일용직	10.7	11.9	8.9

주: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직종에 따라서는 생산직이 37.5%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30.4%)이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전체 분포에 비해 전문관리직(28.9%), 생산직(24.4%)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이 3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0인 이상(19.6%)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분포에 비해 10인 미만(45.5%)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다수가 민간회사(75.7%)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부기관(9.9%)이 그 다음이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대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5%였으며, 남성(12.5%)이 여성(7.8%)보다 많았다. 교대제를 할 경우 대부분이 맞교대제(2조2교대제)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8.4%였고, 임시·일용직은 21.6%였다. 통계청은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46.0%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KLIPS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조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퇴직금의 유무 등 부가급여를 받는지 등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KLIPS의 경우는 기간 이외의 다른 것을 분류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상용직과 일용직 비중이, 여성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장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용직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건설업의 경우 산업특성상 남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제 2 절 근로시간

제10차년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

간 및 주당 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은 종료되며,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게 된다. 또한, 초과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1. 평균 근로시간

우선 평균 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평균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쳐서 계산하였다.

<표 6-3>을 보면 1998년 임금근로자들은 53.0시간을 근무하였으나, 10차년도인 2007년에는 48.7시간만을 근무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차년도를 제외하면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비하여 수준으로는 약

<표 6-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조사시점	평균근로시간	전년대비 증가율
1차년도	53.0 (0.005)	-
2차년도	52.7 (0.005)	0.8
3차년도	52.2 (0.005)	-1.0
4차년도	51.0 (0.005)	-2.4
5차년도	50.8 (0.005)	-0.2
6차년도	50.6 (0.005)	-0.4
7차년도	49.9 (0.005)	-1.5
8차년도	49.3 (0.005)	-1.2
9차년도	48.7 (0.005)	-1.2
10차년도	48.7 (0.005)	0.0

주: 1) 중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2) 증가율은 $\{(\text{해당 연도}-\text{전년도})/\text{전년도}\} \times 100$ 으로 계산.

3) 근로시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결측처리함.

4) ()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5.3시간 가량 길었으나²⁷⁾,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매월노동통계조사가 5인 이상 상용직의 근로시간만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50.5시간)이 여성(46.1시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당 4.4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9.7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대가 41.4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은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2007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전 체		48.7	50.5	46.1
연령별	19세 미만	41.4	46.3	38.6
	20~29세	47.2	49.7	45.1
	30~39세	48.9	50.9	44.8
	40~49세	49.7	50.8	47.9
	50~59세	49.4	49.2	49.6
	60세 이상	48.3	53.4	39.2
학력별	고졸 미만	49.8	51.4	48.2
	고 졸	51.3	53.3	48.2
	전문대졸 이하	47.4	50.2	43.7
	대 졸	47.0	48.6	43.6
	대학원 이상	43.8	44.8	40.4

주: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2007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상용직	50.3	51.7	47.9
임시직	45.6	50.9	41.8
일용직	40.9	42.0	38.6

주: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27) 2007년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당 총근로시간은 43.4시간(월188.4)으로 나타났다.

10대와 60대처럼 노동시장 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연령대를 제외하고 보면 30대에서 가장 격차가 컸는데,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60세 여성의 근로시간은 50대에서 가장 길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30대에서 가장 길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 미만과 고졸은 주당 근무시간이 각각 50.0시간과 51.6시간인 데 반해, 대졸자는 46.9시간,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43.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50.3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성별로 보아도 상용직인 남성이 51.7시간, 여성은 47.9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임시직인 경우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6시간으로 상용직보다 5시간 가량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나 농림어업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을 제외하면, 건설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6.0시간으로 짧은 편이며, 운수통신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6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이 51.3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록했으며,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46.6시간과 46.2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근로시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29인이 51.5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500인 이상이 47.1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과근로시간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표 6-7>과 같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0차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7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직종별	전문관리직	46.6	48.1	44.2
	사무직	46.2	48.6	44.0
	서비스직	51.3	53.3	50.3
	농림어업직	39.9	47.5	31.9
	생산직	50.9	52.4	46.8
산업별	농림어업	39.0	48.5	31.1
	광공업	51.2	52.1	49.5
	건설업	46.0	46.2	43.3
	전기·가스 및 수도업	45.2	46.2	40.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0.5	53.1	48.6
	운수통신업	51.6	54.2	41.3
	금융 및 부동산업	47.2	49.1	44.4
	공공서비스업	47.0	49.9	43.5
가사서비스업	49.3	-	49.3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47.6	49.0	45.9
	10~29인	51.5	53.0	48.9
	30~99인	51.1	53.2	47.6
	100~299인	49.7	52.4	44.7
	300~499인	47.9	49.8	44.3
500인 이상	47.1	48.8	44.1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2007년

(단위: %)

초과근로를 안함		71.9
초과근로를 함		28.1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8.4
초과급여 지급 안함		38.0
초과급여 지급함		62.0
초과 급여 지급 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81.3
	일정 금액	15.4
	기준 없음	3.0
	모름/ 무응답	0.4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천 원)		8.4

년도에 28.1%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4시간으로 예년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⁸⁾

한편,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62.0%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에 따라 결정(81.3%)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15.4%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약 8천 원으로 나타났다.

제3절 임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 지급주기, 임금 산정방식, 임금수준, 성과급 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그리고 임금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에 대하여 종사상 지위,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표 6-8>을 통해 임금 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3.0% 정도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일 지급받는다’와 ‘수시로 지급받는다’의 응답은 각각 3.5%, 2.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지급주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1.9%)과 여성(94.8%)의 대부분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나타났으며, 월급제의 비중은 76.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4.4%), 여성(80.6%) 모두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28) 제9차(2006)년도 「한국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p. 106 참조.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 : 2007년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지급주기	한 달	93.0	91.9	94.8
	보름/주	0.7	0.7	0.8
	매 일	3.5	3.9	3.0
	수 시	2.6	3.5	1.3
	기 타	0.1	0.1	0.1
임금산정방식	연봉계약제	9.6	11.8	6.3
	월 급	76.9	74.4	80.6
	주급/격주	0.1	0.1	0.2
	일 당	9.4	11.0	7.1
	시간급제	2.3	1.2	3.9
	도급제	0.4	0.3	0.5
	실적급	1.1	1.0	1.4
	기 타	0.2	0.2	0.2

높으며, 연봉제는 남성(11.8%)이 여성(6.3%)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49.0%인 반면 건설업은 8.2%로 차이가 상당했으며,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은 29.1%가 적용받는 반면, 생산직은 11.1%에 불과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은 성과급제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편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43.0%가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10인~29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 월평균 임금

KLIPS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 이외에도 “현재 이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월평균 임금(세후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 : 2007년

(단위: %)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 별	남 성	23.2	76.8
	여 성	15.2	84.8
업 종	농림어업	10.9	89.1
	광공업	23.5	76.5
	건설업	8.2	91.8
	전기·가스 및 수도업	49.0	51.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9	86.1
	운수통신업	22.7	77.3
	금융 및 부동산업	42.4	57.6
	공공서비스업	20.9	79.1
직 종	전문관리직	29.1	70.9
	사무직	28.1	71.9
	서비스직	13.9	86.1
	농림어업직	9.4	90.6
	생산직	11.1	88.9
종사상 지위	상용직	23.9	76.1
	임시직	10.3	89.8
	일용직	1.9	98.1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13.3	86.7
	10~29인	9.4	90.6
	30~99인	15.4	84.6
	100~299인	20.2	79.8
	300~499인	27.0	73.0
	500인 이상	43.0	57.0

〈표 6-10〉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지난 10년간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135만 원)에 비해 2차년도 조사(124만 6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3차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해 10차년도에는 182만 6천 원에 달했다.

성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10차년도에 여성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34만 4천 원으로 남성의 59.3%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임금의 변동은 『매월노동통계조사』²⁹⁾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하면 2007년 월평균 임금액은 268만

29)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만 원, %)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11.1 (0.010)	135.0 (0.010)	130.9 (0.010)	159.0 (0.010)	77.4 (0.015)	94.1 (0.015)
2차년도	103.4 (0.010)	124.6 (0.010)	123.7 (0.011)	149.0 (0.011)	72.5 (0.015)	87.3 (0.015)
3차년도	110.0 (0.010)	129.5 (0.010)	130.8 (0.011)	154.1 (0.011)	76.7 (0.015)	90.3 (0.015)
4차년도	121.2 (0.011)	137.3 (0.011)	144.4 (0.013)	163.5 (0.013)	85.5 (0.015)	96.8 (0.015)
5차년도	132.1 (0.011)	145.4 (0.011)	156.7 (0.012)	172.6 (0.012)	94.5 (0.016)	104.1 (0.016)
6차년도	145.0 (0.011)	154.4 (0.011)	171.7 (0.012)	182.8 (0.012)	105.0 (0.018)	111.9 (0.018)
7차년도	158.8 (0.011)	163.2 (0.011)	188.1 (0.013)	193.3 (0.013)	113.2 (0.017)	116.4 (0.017)
8차년도	169.0 (0.011)	169.0 (0.011)	200.4 (0.013)	200.4 (0.013)	118.9 (0.017)	118.9 (0.017)
9차년도	180.1 (0.014)	176.3 (0.014)	213.0 (0.018)	208.4 (0.018)	126.5 (0.017)	123.8 (0.017)
10차년도	191.3 (0.015)	182.6 (0.015)	226.5 (0.019)	216.1 (0.019)	134.4 (0.019)	128.2 (0.019)

주: 1)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5년 = 100)

2) 중단면 가중치 적용.

3) 괄호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32천 원인데, KLIPS는 191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더라도 1999년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1.1% 증가했지만, KLIPS의 경우 오히려 -7.7% 감소했다. 이렇게 KLIPS에서 추정되고 있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주요하게는 조사 대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LIPS의 경우는 가구조사로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의 임금을 조사하므로 1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기업체 조사로 비농부문 상용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체³⁰⁾의 상용근로자가 조사 대상이며, 1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중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다.

<표 6-11>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별·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에 월평균 임금이 270만 3천 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157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 집단에서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교육수준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의 경우 고졸보다 141.6%(250만 6천 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고졸 미만은 고졸의 62%(110만 5천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 2007년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연 령	19세 이하	76.2	90.8	67.3
	20~29세	143.4	150.7	137.6
	30~39세	210.0	234.0	157.4
	40~49세	212.8	270.3	125.0
	50~59세	214.8	266.0	118.0
	60세 이상	105.6	128.5	64.3
학 력	고졸 미만	110.5	139.1	82.5
	고 졸	177.0	220.2	113.0
	전문대졸 이하	172.3	193.0	144.9
	대 졸	250.6	280.5	187.2
	대학원 이상	328.6	356.6	233.1

주: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 상대임금은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졸을 100으로 하여 계산.

30)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99년 이전에는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 대상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5인 이상 자료를 수록한 『2008 KLI 노동통계』, 2008(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2>에 제시되어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14만 2천 원으로 임시직은 상용직의 47%, 일용직은 52.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 2007년

(단위: 천 원)

		월평균 임금	
		평균액(천원)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4.2	100
	임시직	101.2	47.3
	일용직	112.6	52.6

주: 1) 상대임금은 상용직 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계산.

다음으로 <표 6-13>는 산업별·직업별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313만 6천 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280만 7천 원)과 공공서비스업(205만 5천 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광공업 월평균 임금의 70.5%(138만 1천 원)로 가사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수준은 직업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관리직의 월평균 임금은 255만 2천 원으로 사무직의 126.8%이며, 생산직과 서비스직은 사무직의 77.6%, 67.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외국인 회사가 가장 높은 277만 3천 원이었으며, 공기업이 그 다음이었다. 기타를 제외하면 민간회사는 가장 낮은 175만 7천 원이었다.

종업원 규모별 임금수준은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가 268만 2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 2007년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산 업	농림어업	104.1	177.4	43.3
	광공업	195.9	236.5	115.5
	건설업	178.7	179.2	172.1
	전기·가스 및 수도업	313.6	339.0	193.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8.1	188.3	103.2
	운수통신업	202.5	212.9	161.9
	금융부동산업	280.7	348.2	179.8
	공공서비스업	205.5	248.8	153.4
	가사서비스업	88.1	-	88.1
직 업	전문관리직	255.2	304.5	174.3
	사무직	201.3	246.1	159.9
	서비스직	136.7	204.9	100.9
	농림어업직	102.2	156.6	45.1
	생산직	156.3	180.2	87.7
종 업 원 규 모	10인 미만	162.5	195.1	123.2
	10~29인	158.5	184.7	112.3
	30~99인	182.2	211.9	133.6
	100~299인	195.0	227.9	133.8
	300~499인	233.9	288.4	128.4
	500인 이상	268.2	322.0	168.0
기 업 형 태 별	민간회사	175.7	214.3	116.9
	외국인회사	277.3	334.3	204.3
	공기업	274.5	323.0	170.8
	법인단체	244.5	301.0	183.9
	정부기관	270.3	319.2	205.5
	소속이 없음	120.1	139.2	77.3
	기 타	140.3	149.4	105.7

주: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제 4 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5차년도부터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1~10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조사 항목으로는 임금근로자용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어 오던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및 자기 판단에 기초한 정규-비정규 여부, 근로계약 기간의 유무 등이 있다. 이 외에 5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고 있는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외에 취업자용 설문 중 문9~문15³¹⁾에서 조사된 근로의 지속가능성 여부, 향후 지속가능 기간, 근로지속 불가능 이유,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 항목들을 이용하여 아래에서는 다양한 고용 유형을 판별하고 각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비정규직의 규모

다음으로 <표 6-14>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시간제(25.4%)이며 다음으로 일용대기근로(24.6%)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각각 8.9%와 13.5%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준별로 살펴볼 때 KLIPS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에서 볼 수 있듯이, KLIPS에서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1.6%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1) 10차년도 취업자용 설문 문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 200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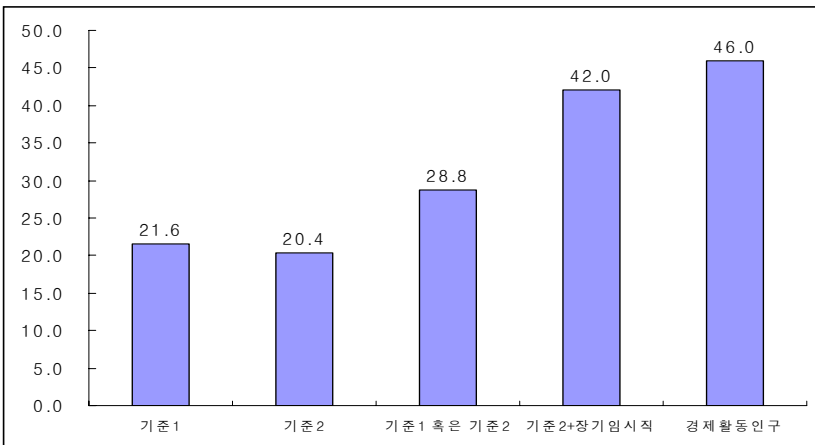
	정규직	일용 대기	과 건	용 역	독립 도급	가 내	시간제	단기 계약	전 체
전 체	79.6	5.0	1.8	2.8	2.9	0.8	5.2	2.0	100.0
		24.6	8.9	13.5	14.2	3.9	25.4	9.6	100.0
남 성	82.3	6.3	1.7	2.8	3.1	0.2	2.0	1.7	100.0
		35.5	9.4	15.6	17.5	1.3	11.2	9.5	100.0
여 성	75.6	3.1	2.0	2.8	2.6	1.7	10.0	2.4	100.0
		12.5	8.3	11.3	10.6	6.8	41.0	9.6	100.0

주: 1) 각 고용형태는 개별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표에서 제시된 항목의 순서에 따라 분류된 결과임.

2) 단기계약직이란, 근속이 1년 안된 사람들 중 향후 계속 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를 의미함.

〔그림 6-3〕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 2007년

(단위: %)



주: 기준1은 KLIPS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기준2는 위의 고용형태별 정의를 이용. 기준2+ 장기임시직에서 장기임시직은 부가급여를 받는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지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 가능한데, 여기서는 퇴직금을 받는지 여부로 통제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7년도 비농가부문 임시·일용직 비중임.

46.0%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에 속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에 속하는 경우(기준1 혹은 기준2) KLIPS에서 추정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8.8%까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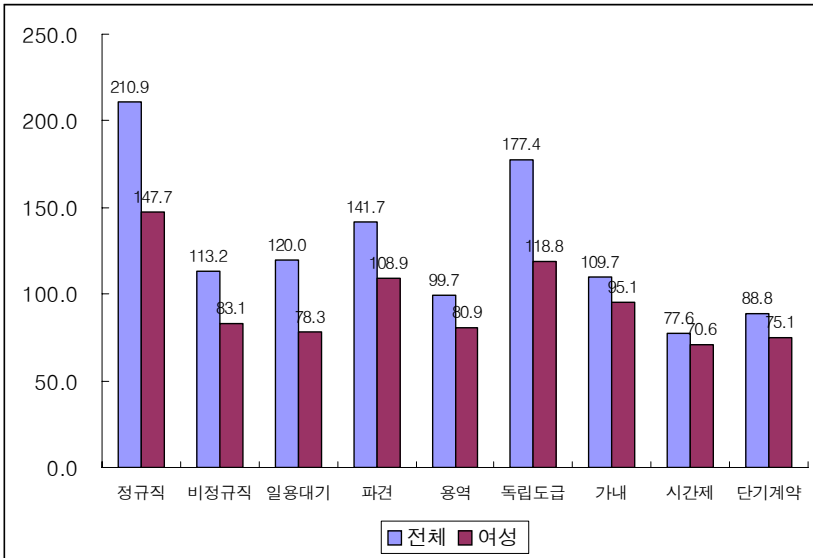
또한 기준 2에 장기임시직을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는 42.0%로 크게 증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슷한 비정규직 규모가 추산된다. 결국 두 조사 간 조사 방법상의 차이점³²⁾을 감안하면 양 조사에서의 비정규직 규모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여기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한 비정규직의 조작성 정의(기준 2)를 기준으로 이들의 임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6-4]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3만 2천 원으로 정규직(210만 9천 원) 근로자의 약 53.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림에는 표시되어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 2007년

(단위: 만 원)



주: 임금수준은 명목임금임.

32) KLIPS에서는 각종 사회보험 및 퇴직금 가입 여부와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상여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상여금이나 각종 부가급여 제공 등을 감안하여 조사 요원이 직접 종사상 지위를 판별하여 기입한다.

있지 않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7,1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1만 600원)의 67.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도급근로일 때의 임금(177만 4천 원)은 정규직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파견근로(141만 7천 원), 일용대기(120만 원)는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보다는 높지만 정규직의 57~67%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용역(99만 7천 원), 단기계약(88만 8천 원), 시간제(77만 6천 원) 등에서 더 심해졌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 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본장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 1~10차년도의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를 제시하였다.

주요 설문 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들이 조사되고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적자를 보는 경우 적자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1~10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단위: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비중	여성 비중	
1차년도	2,415	58.6	41.5	37.6
2차년도	2,247	59.7	40.3	35.7
3차년도	2,071	60.5	39.5	34.7
4차년도	1,984	59.8	40.2	32.7
5차년도	1,980	61.0	39.0	31.9
6차년도	2,000	61.4	38.6	30.7
7차년도	2,027	61.8	38.2	30.4
8차년도	2,125	60.8	39.2	31.7
9차년도	2,049	61.1	38.9	29.7
10차년도	2,045	61.6	38.4	29.1

제 1 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이때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 이상 종업원이 있는 경우를 이르며,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를 통해 10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7.4%, 자영업자 55.2%,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7.5%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차년도에 22.1%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10차년도 17.5%를 기록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8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57.8% 달하였다가 이후 10차년도에 약간 감소하여 5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KLIPS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는 통계청의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8.9%로 KILPS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21.1	56.8	22.1
2차년도	23.7	53.6	22.6
3차년도	23.7	52.8	23.5
4차년도	24.8	51.2	24.1
5차년도	26.4	50.3	23.3
6차년도	25.8	50.9	23.2
7차년도	27.5	50.8	21.8
8차년도	23.6	57.8	18.6
9차년도	24.3	57.4	18.3
10차년도	27.4	55.2	17.5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성 별	남 성	33.5	63.4	3.1
	여 성	15.0	43.7	41.3
연 령	20~29세	17.1	68.7	14.2
	30~39세	35.9	49.5	14.6
	40~49세	29.9	49.6	20.5
	50~59세	26.6	55.5	17.9
	60세 이상	11.3	68.9	19.8
학 력	고졸 미만	11.6	60.9	27.4
	고 졸	25.0	56.2	18.8
	전문대졸 이하	29.9	55.3	14.8
	대 졸	52.0	42.7	5.4
	대학원 이상	42.9	57.2	-
산 업	농림어업	6.3	60.1	33.6
	광공업	43.6	34.9	21.5
	건설업	36.0	57.8	6.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8.6	50.0	21.4
	운수통신업	7.7	89.5	2.8
	금융 및 부동산업	21.2	71.0	7.8
	공공서비스업	35.2	52.7	12.2
	가사서비스업	13.4	86.6	-

산업별 특성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63.4%), 고용주(33.5%), 가족종사자(3.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자영업자(43.7%)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와 60대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30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49.5%로 20대에 비해 19.2%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³³⁾로는 광공업(43.6%), 건설업(36.0%), 공공서비스업(35.2%)에서 고용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 2 절 근로시간

본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일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사업 또는 일 자체를 ‘하다, 안하다’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하여서는 “이 일 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고 각각 조사하고 있다.

33) 2000년 개정 산업표준분류.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는 <표 7-4>와 같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73.8%, 불규칙적인 경우가 26.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계절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한 경우가(18.7%)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 2007년
(단위 :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일수(일)
			계절영향 없음	계절영향 있음	
전 체		73.8	7.5	18.7	5.8
종사상 지위	고용주	89.5	3.8	6.7	6.0
	자영업자	68.7	9.4	21.9	5.6
	가족종사자	67.0	7.1	25.9	6.1
산업	농림어업	23.4	5.2	71.5	6.0
	광공업	84.9	7.2	7.8	5.7
	건설업	52.8	6.2	41.0	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9.0	5.4	5.6	6.3
	운수통신업	70.5	8.7	20.8	5.1
	금융 및 부동산업	83.2	11.0	5.8	5.3
	공공서비스업	84.8	11.4	3.9	5.5
	가사서비스업	77.3	22.7	0.0	3.8

근로시간의 규칙성에 대해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고용주가 89.5%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68.7%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중이 고용주(6.7%)보다는 자영업자(21.9%)와 가족종사자(25.9%)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종사자의 76.7%와 47.2%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각각 71.5%와 4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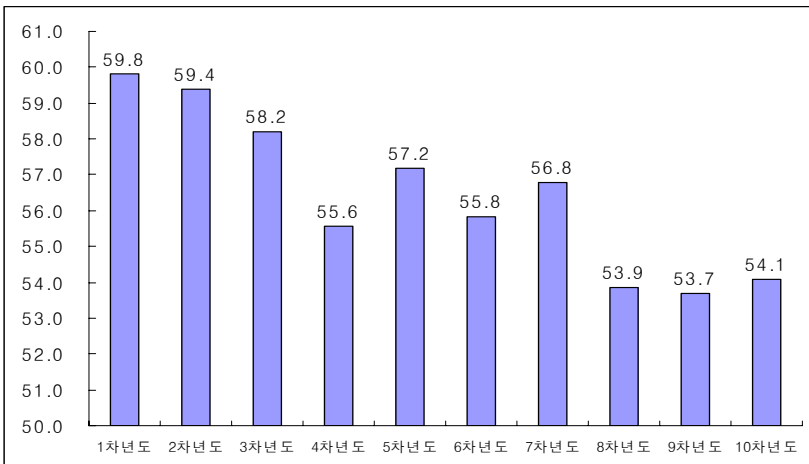
한편, 10차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평균 근로일수는 5.8일이며 종사상 지위별로 자영업자의 근로일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에는 가사서비스업(3.8일)에서 주평균 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짧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3일)과 농림어업(6일)로 길었다.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4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 조사 이후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1]에서 볼 수 있듯이, 1차년도(59.8시간)와 2차년도(59.4시간)에 조사된 주당 근로시간은 3차년도에 58.2시간, 4차년도에는 55.6시간까지 감소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57.2시간으로 1.6시간 가량 증가하였고, 6차년도에 55.8시간으로 1.4시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7차년도에는 다시 1시간 증가하여 56.8시간, 8차년도와 9차년도에는 각각 53.9시간, 53.7시간으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10차년도에는 54.1시간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년도	59.8 (0.009)	58.8 (0.016)	59.8 (0.012)	60.8 (0.019)
2차년도	59.4 (0.130)	62.1 (0.016)	58.6 (0.013)	58.7 (0.019)
3차년도	58.2 (0.009)	60.2 (0.017)	57.8 (0.013)	57.2 (0.019)
4차년도	55.6 (0.010)	57.5 (0.018)	55.2 (0.015)	54.4 (0.021)
5차년도	57.2 (0.009)	58.3 (0.016)	56.6 (0.014)	57.2 (0.018)
6차년도	55.8 (0.010)	58.6 (0.018)	55.3 (0.014)	54.1 (0.021)
7차년도	56.8 (0.009)	58.5 (0.015)	56.6 (0.013)	54.9 (0.018)
8차년도	53.9 (0.009)	56.8 (0.016)	52.4 (0.014)	54.7 (0.020)
9차년도	53.7 (0.009)	55.4 (0.019)	53.0 (0.014)	53.8 (0.022)
10차년도	54.1 (0.009)	57.7 (0.016)	51.8 (0.015)	55.7 (0.021)

주: 괄호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를 제외하면 고용주가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10차년도의 경우 고용주는 주당 평균 57.7시간, 자영업자는 51.8시간, 가족종사자는 55.7시간을 근로하였다.³⁴⁾

〈표 7-6〉은 주당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비임금근로자의 69.7%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4.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약 48.7시간)보다 5시간 정도 더 긴 수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시간 가량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남성 비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50.5시간)보다 주당 4.8시간 정도 더 일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46.1시간)보다 6.5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50~59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7.9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연령대는 43.1시간의 2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68시간이라고 응답한 개인은 하루 24시간 근로를 의미하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 2007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 체		4.6	12.4	13.5	19.4	32.4	17.9	54.2
성 별	남 성	3.2	9.2	12.7	23.7	33.5	17.7	55.3
	여 성	6.6	17.0	14.6	13.0	30.7	18.2	52.6
연 령	20~29세	29.9	11.3	1.4	13.8	25.5	18.1	43.1
	30~39세	6.5	10.8	13.8	22.0	29.1	17.9	52.8
	40~49세	2.3	9.0	13.5	21.3	34.8	19.1	56.3
	50~59세	2.7	10.2	11.9	19.0	35.7	20.6	57.9
	60세 이상	5.4	23.6	17.7	15.0	26.8	11.5	48.1
학 력	고졸 미만	3.1	17.4	13.2	13.7	33.4	19.3	54.8
	고 졸	2.2	8.3	11.3	20.4	35.4	22.3	58.1
	전문대졸 이하	11.2	10.7	14.3	20.9	29.2	13.8	49.8
	대 졸	7.0	12.4	17.2	26.0	28.5	9.0	49.2
	대학원 이상	12.2	12.0	20.5	27.5	15.9	12.1	44.6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58.1시간)가 가장 긴 주당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대학원 이상’(44.6시간)의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주당 평균 13.5시간이었다.

〈표 7-7〉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 2007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평균 근로시간
산업	농림어업	3.0	29.4	20.7	13.8	28.4	4.7	45.2
	광공업	1.4	10.8	13.8	33.7	27.7	12.7	52.3
	건설업	2.9	14.5	18.8	27.8	20.3	15.6	50.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8	4.8	7.4	13.7	40.2	31.1	64.2
	운수통신업	3.7	8.3	11.5	21.5	40.6	14.4	55.3
	금융 및 부동산업	3.5	9.1	31.0	21.7	29.0	5.8	48.5
	공공서비스업	8.1	14.7	12.0	23.2	26.8	15.2	49.5
	가사서비스업	71.7	25.1	0.0	3.2	0.0	0.0	13.6
종업원 규모	1~4인	4.9	12.9	12.6	18.3	33.4	17.9	54.3
	5~9인	0.0	6.1	20.2	33.5	18.8	21.4	55.2
	10인 이상	1.1	7.1	27.3	27.5	24.5	12.6	51.8

로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64.2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7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응답자가 이 산업에서 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체의 경우가 55.2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3.4시간 가량 짧은 51.8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3 절 근로소득

<표 7-8>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난 10년간 월평균 명목소득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 132만 6천 원에서 2차년도에 128만 원 3천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10차년도에 들어 255만 6천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2차년도뿐 아니라 6차년도와 8차년도에 이어 10차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간 소득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10차년도의 여성 월평균 명목소득은 166만 8천 원으로 남성(290만 원)의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7-2]에 제시되어 있다.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그 격차는 1차년도 26만 1천 원에서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6차년도에 72만 3천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7차년도에 90만 2천 원의 차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 이후 그 격차는 다소 감소하여 10차년도에는 61만 3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8〉 월평균 소득 비교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1차년도	132.6 (0.026)	161.1 (0.026)	149.2 (0.030)	181.3 (0.030)	88.5 (0.042)	107.6 (0.042)
2차년도	128.3 (0.023)	154.5 (0.023)	142.6 (0.026)	171.8 (0.026)	83.7 (0.042)	100.8 (0.042)
3차년도	144.9 (0.027)	170.6 (0.027)	160.6 (0.029)	189.2 (0.029)	95.8 (0.062)	112.8 (0.062)
4차년도	181.6 (0.047)	205.7 (0.047)	202.5 (0.054)	229.4 (0.054)	121.0 (0.072)	137.0 (0.072)
5차년도	214.8 (0.042)	236.6 (0.042)	237.3 (0.047)	261.3 (0.047)	144.3 (0.092)	158.9 (0.092)
6차년도	213.8 (0.039)	227.7 (0.039)	237.7 (0.044)	253.1 (0.044)	142.3 (0.065)	151.5 (0.065)
7차년도	246.5 (0.049)	253.4 (0.049)	275.1 (0.056)	282.7 (0.056)	154.0 (0.068)	158.2 (0.068)
8차년도	240.5 (0.119)	240.5 (0.119)	275.5 (0.144)	275.5 (0.144)	152.3 (0.082)	152.3 (0.082)
9차년도	251.7 (0.067)	246.2 (0.067)	282.2 (0.082)	276.1 (0.082)	173.2 (0.066)	169.4 (0.066)
10차년도	255.6 (0.035)	243.9 (0.035)	290.0 (0.040)	276.7 (0.040)	166.8 (0.059)	159.1 (0.059)

주: 1)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5년=100).

2)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3) 중단면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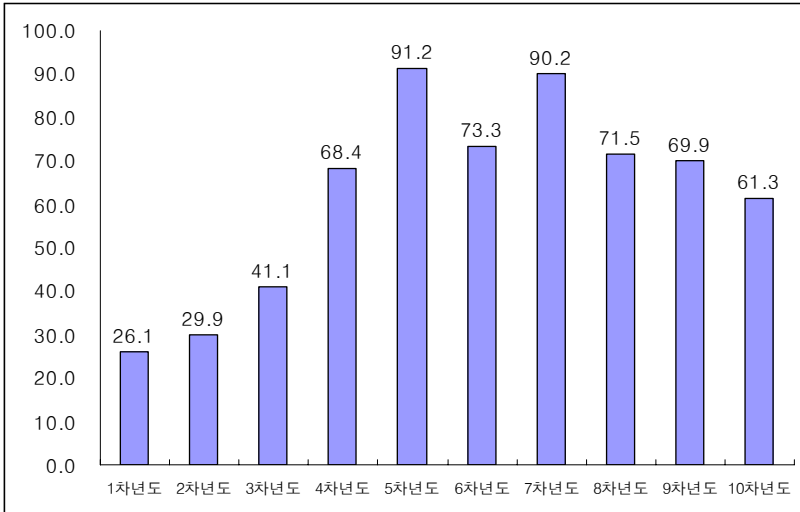
4) 괄호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한편,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령별 월평균 소득액을 보면 40대에서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이 300만 원 이상에 분포하는 사람은 40대가 40.6%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300만 원 이상에 가장 많은 34.8%가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 50대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32.2%)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 및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300만 원 이상에 51.8%가 위치하고 있었던 반면, 고졸 미만은 단지 12.3%만이 300

(그림 7-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 차액 비교

(단위: 만 원)



주: 소득차액 =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2007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원)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2.8	20.8	25.7	19.8	30.9	247.1
연 령	20~29세	4.5	31.0	22.7	16.0	25.8	204.4
	30~39세	2.4	12.0	24.0	26.9	34.8	270.0
	40~49세	2.3	10.4	21.9	24.8	40.6	291.6
	50~59세	4.0	15.9	32.2	18.8	29.1	260.9
	60세 이상	1.9	54.3	24.2	6.5	13.2	131.2
학 력	고졸 미만	2.0	40.5	32.9	12.4	12.3	143.3
	고 졸	2.9	14.1	25.9	25.2	31.8	240.6
	전문대졸 이하	3.3	15.5	20.6	24.1	36.6	263.3
	대졸 이하	3.8	7.8	18.8	18.8	50.8	358.7
	대학원 이상	1.8	12.8	15.9	17.7	51.8	545.2

주: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횡단면 가중치 적용.

만 원 이상에 분포하고 있었다.

<표 7-10>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 사업체 특성 및 매출액 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 : 2007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원)
		적 자	100만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산 업	농림어업	3.3	54.4	23.7	6.0	12.6	123.6
	광공업	1.5	12.1	16.0	22.4	47.9	329.2
	건설업	2.9	6.7	21.4	27.2	41.7	266.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4	17.8	23.9	19.9	35.1	270.8
	운수통신업	0.9	10.0	44.4	21.3	23.4	214.6
	금융 및 부동산업	5.0	13.7	25.1	23.3	33.0	283.4
	공공서비스업	2.4	16.7	28.3	25.0	27.5	247.7
	가사서비스업	0.0	62.7	31.7	1.2	4.5	83.2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2.6	29.1	30.9	19.2	18.2	185.3
	1~4인	3.7	3.9	16.0	24.9	51.6	336.9
	5~9인	1.6	0.0	10.1	12.7	75.6	477.3
	10인 이상	3.3	3.8	11.3	8.7	73.0	519.1

주: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횡단면 가중치 적용.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329만 2천 원)이 가장 높으며, 금융 및 부동산업(283만 4천 원)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70만 8천 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수가 0(자영업자)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185만 3천 원이며, 사업체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333만 8천 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8차년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적자액의 규모는 <표 7-11>에서 알 수 있다. 10차년도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7%로 비교적 작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적자액의 평균은 173만 8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범주별로는 100만 원 미만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아 47.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 : 2007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적자의 분포						
적자 아님	적자임	적자액				월평균 적자액 (만 원)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97.3	2.7	47.9	26.3	9.2	16.7	173.8

제 4 절 사업체의 창업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84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³⁵⁾, 이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체의 창업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7-12>를 통해 창업 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3.9%)보다는 91.7%가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의 경우가 자영업자보다 창업 비율이 다소간 더 높았다.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 2007년

(단위: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 업	91.7	94.0	91.2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3.9	3.1	3.5
기 타	4.4	2.9	5.3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는 응답자에게 사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표 7-13>을 통해 보면, 응답 대상자의 68.4%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사업 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사채업자의 지

35)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 2007년

(단위 :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68.4	75.7	65.0
동업자	1.4	0.4	1.7
은행 등의 용자	12.0	13.8	10.6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4.3	7.0	3.2
사채업자	0.0	0.0	0.0
정부의 보조	0.4	0.0	0.6
기 타	1.3	0.0	1.9

원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친지에 의한 자본금 조달비중이 75.7%,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가 1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금조달 방식이나 그 비중은 고용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 8 장

고용형태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주요한 이슈에 대한 심층조사로 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 3차년도(2000년)에는 만 3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고, 4차년도(2001년도)에는 ‘건강과 은퇴’의 주제로 만 15세 이상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노동시장의 활동과 연계된 내용이 다루어졌다. 6차년도(2003년)에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의 은퇴생활과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및 노후생활 준비 그리고 가족관계 및 경제적 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7차년도(2004년)에는 근로시간과 여가를 주제로 일자리에서의 시간 배분과 결정 과정, 휴가, 일상에서의 시간 배분과 여가생활에 대해 조사하였다. 8차년도(2005년)에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주제로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일자리에서의 노동조합, 노사 협의회, 인적자원관리 등 노사관계 실태를 조사하였다. 9차년도(2006년)에는 3차년도에 이루어진 청년층에 대한 조사를 만 35세까지 확대하고 설문 문항도 대폭 확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0차년도(2007년) 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10차년도 부가조사는 고용형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여 비정규직의 다양한 정의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고용형태의 특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고용형태에 관한 부가조사는 기존의 본 조사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게 고용형태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용형

태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설문 문항들을 다수 포함하여, 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고용형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선호 여부와 현재 고용형태 선택 이유, 정규직 대비 근로조건 차별적 적용,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 비슷한 고용형태를 갖는 동료 근로자의 존재 여부, 이전 일자리에서의 고용형태 등을 질문하여 고용형태별 특성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더해 고용형태에 따른 특수한 질문들, 예를 들어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속감, 주된 업무 지시 등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일자리의 특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설문을 설계하였다.³⁶⁾

제 1 절 고용형태

이 절에서는 고용형태에 관한 부가조사를 가지고 구성 가능한 고용형태에 대해 알아본 후, 그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용형태에 관한 부가조사를 통해서는 크게 5가지 유형의 고용형태의 구성이 가능하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상의 비전형적인 고용형태, 둘째, 일하는 곳과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다른 고용형태, 셋째, 일일/호출근로 등의 일자리, 넷째, 임금과 비임금의 경계선상에 있는 특수형태의 고용, 다섯째, 시간제 근로이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상의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이하 임시적 고용)란 근로계약 기간이 임시적이거나 업무의 성격이 임시적이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고용형태들이다. 여기에는 한시근로, 프로젝트 베이스, 대체근로, 성과계약제, 임시직, 계절근로 등이 포함된다.

둘째, 일하는 곳과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다른 고용형태에는 파견/용역 근로나 사내하청 등의 고용(이하 간접고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용형태

36) 고용형태에 관한 부가설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 『노동패널 10차년도 고용형태 부가조사의 개요 및 주요 결과』, 『노동리뷰』 2008년 7월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는 KLIPS의 개인용 설문에서도 질문하고 있으나, 설문 개발 당시부터 고용형태 부가조사와 개인용 설문이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되었으므로, 부가조사의 응답 내용과 개인 설문 응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일일/호출근로 등의 일자리란 근로계약의 유무에 제약받지 않고 ‘필요할 때 연락을 받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고용’되거나 ‘인력시장, 직업소개소 등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용주나 고용할 업체 등에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면 일일 단위로 일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개인용 설문 구조와는 달리 앞서의 고용형태들과 중복 응답이 가능하다.

넷째, 임금과 비임금의 경계선상에 있는 특수형태 고용(이하 특수고용)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과 같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한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이들을 근로자로 판단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경영의 독립성 여부이며, 만약 경영이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 별도의 문항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는’ 형태의 일자리인지, 도급/지입제 고용형태인지, 프리랜서인지 등을 질문하여, 이러한 고용형태에 해당할 경우는 특수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시간제 근로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로 정의된다.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조사 응답자는 총 4,447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임시적 근로의 비중이 29.2%로 가장 높았다. 이 중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거나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 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시근로의 비중은 12.5%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프로젝트베이스, 대체근로, 성과계약제,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그만두어야 하는 유기-임시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그만두어야 하는 무기-임시직, 계절근로 등을 포함하는 비한시 근로의 비중이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한시 근로 중에서

〈표 8-1〉 고용형태별 비중

(단위: %, 가구)

		비 중
임시적 고용		29.2
	한시근로	12.5
	비한시근로	16.7
	프로젝트베이스	4.0
	대체근로	0.2
	성과계약제	2.1
	무기-임시직	15.0
	유기-임시직	3.1
	계절근로	0.7
간접고용		5.2
	파견/용역	4.1
	사내하청	1.1
일일호출근로		8.3
특수고용		4.8
	특수고용형태 및 도급/지입제	4.5
	프리랜서	0.2
	시간제근로	5.8
전 체		4,447(100.0)

주: 1) 전체는 빈도, () 안은 비중을 의미하며, 가중치 사용 안한 수치임.

2) 각 고용형태별 비중은 전체 대비 해당 고용형태의 수치이며, 복수 응답이 허용됨.

3) 각 고용형태별 비중은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4) 비한시근로에 속하는 프로젝트베이스, 대체근로 등의 합이 비한시근로의 비중보다 큰 것은 해당 항목에 중복 응답이 허용되었기 때문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기-임시직으로 15.0%에 달했다.

한편 파견/용역의 비중은 4.1%, 사내하청이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일/호출근로가 8.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고, 시간제근로는 5.8%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은 4.8%였는데, 그 중 프리랜서는 0.2%에 불과했으며 특수고용과 도급/지입제 고용이 4.5%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형태별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일/호출근로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이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수고용이나 시간제 근로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9-2 참조). 연령별로

〈표 8-2〉 고용형태별 인적 특성

(단위: %, 세)

		임시적 근로	간접고용	일일/호출 근로	특수고용	시간제 근로
성 별	남 성	53.1	55.7	71.7	43.8	26.5
	여 성	46.9	44.3	28.3	56.2	73.5
연령별	30세 미만	19.8	12.6	6.9	9.1	28.9
	30~39세	19.3	12.4	13.2	32.1	18.9
	40~49세	27.7	28.2	33.0	35.1	31.8
	50~59세	20.3	24.2	28.6	17.1	12.4
	60세 이상	12.9	22.6	18.4	6.6	8.0
평균 연령		43.3	48.0	48.7	42.7	39.8
학력별	고졸 미만	32.1	43.2	50.2	10.5	27.2
	고 졸	37.7	36.1	39.6	52.3	34.6
	(전문)대졸 이하	17.7	11.6	8.0	20.8	23.7
	대 졸	9.9	8.4	2.0	15.8	9.9
	대학원 이상	2.5	0.9	0.2	0.6	4.6

- 주: 1) 각 고용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를 100으로 보고 계산한 수치임.
 2)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3) (전문)대졸이하에는 전문대졸이 포함됨.

는 전체적으로 40대의 비중이 높았으나, 일일/호출근로나 간접고용의 경우가 특수고용이나 시간제 근로에 비해 높은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일/호출근로의 경우 고졸 미만이 50.2%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특수고용의 경우에는 고졸 미만이 10.5%로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임시적 근로나 간접고용, 시간제 근로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업이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일/호출근로는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이 61.4%로 월등히 높았다. 또 특수고용의 경우에는 금융부동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직종별로는 임시적 근로, 간접고용의 경우는 생산직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특수고용의 경우에는 서비스직이나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는 생산직이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서비스직 또한 34.7%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8-3〉 고용형태별 일자리 특성

(단위: %)

		임시적 근로	간접고용	일일/호출 근로	특수고용	시간제 근로
산업별	농림어업	1.7	0.5	4.4	0.0	0.9
	광공업	13.9	13.9	6.2	6.3	15.3
	건설업	21.7	18.0	61.4	4.6	4.3
	전기·가스·수도업	0.2	0.0	0.0	0.0	0.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1.3	17.6	10.7	27.3	40.7
	운수통신업	4.5	1.8	2.3	14.6	2.5
	금융부동산업	3.6	7.2	1.1	31.6	1.6
	공공서비스업	30.0	40.4	9.4	15.1	29.2
가사서비스업	3.1	0.4	4.5	0.5	5.2	
직종별	전문관리직	13.6	5.5	1.9	32.1	15.0
	사무직	10.2	3.6	1.4	8.4	8.8
	서비스직	19.7	18.6	12.5	34.8	34.7
	농림어업직	1.5	0.3	3.7	0.0	0.9
	생산직	55.1	72.1	80.5	24.7	40.6
기업규모별	10인 미만	51.3	17.1	71.1	68.4	57.7
	10인 이상 30인 미만	14.0	15.7	13.0	7.0	10.7
	30인 이상 100인 미만	9.6	17.7	6.4	6.3	6.4
	100인 이상 300인 미만	8.5	16.7	3.2	7.1	8.4
	300인 이상 500인 미만	3.5	5.3	1.2	1.6	2.8
	500인 이상	13.2	27.5	5.0	9.6	14.0

주: 1) 각 고용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를 100으로 보고 계산한 수치임.

2)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마지막으로 기업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임시적 근로나 간접고용, 시간제 근로의 경우 50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기업규모가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경우에 비정규 고용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비정규 근로의 일자리 특징

이 절에서는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선호 여부와 현재의 고용형태를 선택한 이유, 정규직과 근로조건의 차별적 적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또 부가조사에 응답한 전체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문항을 비교해 봄으로써, 비정규 일자리의 특징을 알아본다.

우선 “응답한 고용형태의 일자리보다 규칙적이고 상시적으로 일하면서 회사가 없어지지만 앓는다면 본인의 잘못이 없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비정규 근로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전일제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 근로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8.1%로 나타나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보다 정규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면서도 현재의 고용형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특수고용이나 시간제 일자리일 경우에 이 항목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또 현재의 고용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제 근로의 경우 학업/직업훈련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13.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현재 일자리에 정규직이 존재하는가³⁷⁾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의 경우 70.5%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임시적 근로의 경우

37) 정규직 존재 여부는 ‘___님과과는 다르게 ()로 일하면서 회사가 없어지지만 앓는다면 본인이 잘못하지 않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는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남.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의 경우 (전일제)라고 질문하였으며, 간접고용의 경우는 (실제 일하는 회사와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다른 고용형태)라고 질문하였다.

〈표 8-4〉 정규직 선호 여부 및 고용형태 선택 이유

(단위: %)

		임시적 근로	간접고용	일일/호출 근로	특수고용	시간제 근로
정규직 선호 여부		85.1	83.7	83.6	72.0	51.9
고용 형태 선택 이유	지금 직장에서 퇴직(또는 정리해고)후 다시 재취업	2.9	4.1	-	1.4	1.2
	정규직을 구할 수 없어서	55.7	63.2	58.9	27.0	30.0
	정규직으로 전환가능성이 있어서	2.5	2.8	1.0	1.0	3.5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	4.3	3.3	5.6	22.5	11.5
	가사	2.0	0.5	1.0	1.8	6.8
	육아, 자녀 돌봄	1.8	-	1.1	3.1	8.2
	학업/직업훈련 때문	4.3	-	1.8	0.6	13.6
	많은 임금보장	2.0	1.4	2.1	9.9	1.8
	경험을 쌓기 위해	5.0	3.6	1.2	3.9	2.6
	단기간만 일하길 원해서	2.0	-	1.8	2.5	2.6
	돈이 급해서	6.6	10.8	9.3	2.7	7.6
	건강상 이유로	1.5	0.3	3.9	1.4	4.0
	은퇴후 소일거리	0.7	2.7	0.4	1.0	1.2
	일의 성격상 계절적이어서	7.0	5.8	11.4	21.4	3.4
기 타	1.7	1.4	0.6	-	2.1	

주: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에는 49.0%로 직장 내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직장 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정규 근로자와 정규 근로자 간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임시적 근로의 경우 동일한 승진 기회가 주어진 경우가 16.6%, 동일한 인사고과가 적용되는 비중은 15.2%에 그쳤다. 임금에 있어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응답이 24.1%, 더 적게 나오는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응답이 47.8%로 나타났다. 퇴직금과 상여금에서도 비정규 근로자가 정규 근로자에 비해 더 낮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동일한 교육훈련을 받는다는 응답이 39.9%로 비교적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 간에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 여부에

〈표 8-5〉 정규직 존재 여부 및 근로조건 차이

(단위: %)

		임시적 근로	간접고용	시간제 근로
정규직 존재 여부		49.0	70.5	60.9
승진 기회	예	16.6		3.4
	아니오	75.1		78.1
	내 직급 위에는 사장밖에 없음	8.3		18.5
인사 고과	예	15.2		
	아니오	68.4		
	이 회사는 인사고과 같은 것이 없음	16.4		
교육 훈련	예	39.9	30.7	21.3
	아니오, 더 많이 받음	7.7		
	아니오, 더 적게 받음	51.7	68.8	78.0
	모름	0.7	0.4	0.7
임금 책정	예	24.1		
	아니오, 더 적게 나오는 기준 적용	47.8		
	아니오, 더 많이 나오는 기준 적용	2.4		
	이 회사에는 임금 지급 기준이 없음	7.1		
	모름	18.6		
퇴직금	예	18.8		9.3
	아니오, 더 적게 나오는 기준 적용	26.0		
	아니오, 더 많이 나오는 기준 적용	0.7		56.6
	이 회사는 퇴직금이 없음	31.4		27.2
	모름	23.2		6.9
상여금	예	14.6		3.7
	아니오, 더 적게 나오는 기준 적용	24.1		
	아니오, 더 많이 나오는 기준 적용	0.3		62.2
	이 회사는 상여금이 나오지 않음	25.7		24.4
	모름	24.3		9.7
사회 보험	예	46.7		17.0
	아니오	31.1		54.5
	이 회사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음	15.5		23.8
	모름	6.8		4.8

주: 1)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2) 회색 부분은 조사가 되지 않음을 의미.

있어서도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라는 응답이 46.7%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간접고용과 시간제 근로의 경우에는 임시적 근로에 비해 질문 문항이 적었다. 시간제 근로의 경우 승진 기회뿐 아니라, 교육훈련, 퇴직금, 상여금, 사회보험에서 모두 정규직과 다른 기준이 적용받는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8-6>은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없다’라는 응답이 8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가”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의 경우 90%가량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데 반해 특수고용의 경우에는 39.6%, 시간제 근로의 경우에는 40.5%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수고용이나 시간제 근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비정규 고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시적 근로의 경우 ‘심사를 통한 전환제도가 있다’는 응답이 49.4%,

<표 8-6> 정규직으로의 전환

(단위: %)

		임시적 근로	간접고용	특수고용	시간제 근로
전환 가능성	예	20.4	16.1	14.5	14.0
	아니오	79.6	83.0	85.1	82.7
전환 제도(심사)	예	49.4			
	아니오	50.6			
전환 제도(자동)	예	22.8			
	아니오	77.2			
실제 전환 여부	예	45.4			
	아니오	49.0			
전환 희망 여부	매우 그렇다	33.3	46.6	13.8	13.9
	그런 편이다	32.2	42.6	25.8	26.6
	그렇지 않는 편이다	22.3	8.9	37.5	35.3
	전혀 그렇지 않다	12.3	1.6	23.0	24.2

주: 1)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2) 각 응답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모름 응답이 있기 때문임.

3) 회색 부분은 조사가 되지 않음을 의미.

‘자동으로 고용형태가 전환된다’는 응답이 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전환 여부를 묻는 문항에 45.4%가 전환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일자리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사원이 있다는 응답은 임시적 근로의 경우 60.1%, 시간제 근로는 58.5%, 간접고용이 4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급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하급자는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비정규 고용이 하급직에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급자가 있을 경우 그 상급자가 응답자와 동일한 고용형태를 갖는 비중은 간접고용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았으며, 하급자가 응답자와 동일한 고용형태를 갖는 경우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간접고용의 경우 응답자의 상급자도 간접고용인 비중이 50.6%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사내하청이나 팀 단위로 움직이는 업무일 경우에 간접고용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8-7〉 동일 업무 수행자 및 상급자/하급자

(단위: %)

		임시적 근로	간접고용	특수고용	시간제 근로
동일 업무 수행자 중 정규직 여부	예	60.1	47.0		58.5
	아니오	39.9	53.0		41.5
상급자 존재 여부	예	73.4	79.2	64.3	67.9
	아니오	26.6	20.8	35.7	32.1
상급자의 고용형태	예	28.3	50.6	24.2	12.4
	아니오	71.1	47.8	74.6	87.6
하급자 존재 여부	예	17.7	8.2	10.3	5.2
	아니오	82.3	91.8	89.7	94.8
하급자의 고용형태	예	85.0	75.1	88.9	75.0
	아니오	14.3	24.9	11.1	25.0

주: 1)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2) 각 응답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모름 응답이 있기 때문임.

3) 회색 부분은 조사가 되지 않음을 의미.

다음 <표 8-8>과 <표 8-9>는 부가설문 응답자 전체에게 묻는 공통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업무의 성격 및 문제 해결능력, 호봉제, 퇴직금 산

〈표 8-8〉 업무 성격 및 업무 적응

(단위: %)

		전체 근로자	임시적 근로	간접 고용	일일/ 호출 근로	특수 고용	시간제 근로
업무적응 기간	3개월 미만	33.7	51.0	59.2	44.3	37.0	59.9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5.9	19.9	18.9	15.7	24.8	17.8
	6개월 이상~1년 미만	18.4	12.8	11.0	15.4	20.2	12.7
	1년 이상~2년 미만	12.1	9.1	6.2	14.1	10.6	4.4
	2년 이상	9.9	7.2	4.7	10.5	7.4	5.2
업무 성격	관에 박힌 일임	43.4	56.2	64.4	54.4	35.5	68.3
	예외 상황이 가끔 발생	42.9	35.9	28.9	37.0	42.4	25.2
	예외 상황이 자주 발생	10.5	4.9	5.4	5.3	13.6	4.1
	하나하나 새로움	3.2	3.0	1.3	3.3	8.6	2.4
문제 발생시 원인 파악	거의 정확히 알	54.0	51.2	46.9	48.3	54.7	54.0
	어느 정도 알 수 있음	41.0	41.6	45.6	43.0	38.3	36.4
	대강 추측하는 정도	4.7	6.6	7.2	8.1	6.6	8.5
	거의 모름	0.4	0.6	0.3	0.6	0.4	1.1

주: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표 8-9〉 호봉제 여부, 전직 희망, 퇴직금 방식

(단위: %)

		전체 근로자	임시적 근로	간접 고용	일일/ 호출 근로	특수 고용	시간제 근로
호봉제 여부	예	27.3	6.1	10.2	0.8	2.8	1.7
	아니오	50.9	62.4	63.9	60.6	63.0	70.8
	회사가 호봉제 적용안함	21.9	31.5	25.9	38.6	34.2	27.5
전직 희망	예	12.7	20.7	18.4	26.9	15.6	24.0
	아니오	87.3	79.3	81.6	73.1	84.4	76.0
퇴직금 방식	퇴직할 때 받음	55.1	21.1	40.1	5.0	9.5	9.3
	임금에 퇴직금 포함	2.2	2.0	3.6	0.2	0.2	0.7
	무조건 중간정산	3.9	4.0	6.7	0.2	0.6	1.7
	퇴직금이 없음	36.0	69.6	44.2	93.7	86.8	84.6
	모름	2.8	3.4	5.5	0.8	2.9	3.7

주: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정방식, 전직 의사 등에 관한 것이다.

우선 업무 적응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개월 미만인 경우가 많

있는데 임시적 근로나 간접고용, 시간제 근로의 경우가 일일/호출근로나 특수고용에 비해서는 업무 적응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9.9%가 업무 적응기간이 2년 이상으로 상당히 장기간의 업무 적응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으며, 일일/호출근로의 경우는 그것보다 많은 10.5%가 2년 이상의 업무 적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이나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 ‘판에 박힌 일’이라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특수고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응답이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체 근로자의 27.3%가 호봉제 임금을 받고 있는데 반해, 비정규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호봉제 적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 근로자들 중에서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비정규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일/호출근로나 특수고용, 시간제 근로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퇴직금이 없다는 응답이 높을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임시적 근로나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직을 원하는 비중 또한 비정규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높았다.

제 3 절 간접고용의 특징

이 절에서는 간접고용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간접고용은 ‘일을 하는 장소와 임금을 주는 회사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접고용의 경우, 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와 임금을 주는 회사 둘 다 조사했다.

<표 8-10>에 따르면, 임금 주는 회사와 일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가 88.1%였으며, 그 회사가 파견/용역회사인 비중이 77.9%였다.

〈표 8-10〉 파견용역회사 근무 여부

(단위: %)

	예	아니오
파견/용역 근로 여부	88.1	11.9
파견회사 여부	77.9	21.9

주: 1)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2) 각 응답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모름 응답이 있기 때문임.

〈표 8-11〉 주된 업무 지시 및 고객회사 종업원과의 업무 여부

(단위: %)

		비중
주된 업무지시 주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관리자나 직원	44.5
	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의 관리자나 직원	43.8
	둘 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음	11.7
현재 하는 업무에 고객 회사 종업원 배치 여부	예	46.3
	아니오	53.3

주: 1)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2) 각 응답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모름 응답이 있기 때문임.

그렇다면, 업무 지시를 하는 회사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하고 있는 곳의 관리자나 직원이라는 응답이 44.5%,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의 관리자나 직원이라는 응답이 43.8%, 둘 다에게서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응답이 11.7%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하는 업무에 고객회사 종업원도 함께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보다 약간 적은 46.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다수의 고객 회사와 일을 하는 경우보다 하나의 고객 회사와 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8-12 참조). 또 간접고용된 근로자 본인도 하나의 고객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는 경우가 91.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대체로 고객 회사에서 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4.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고객 회사와 임금 지급업체 간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 근로자의 복귀에 관한 응답은 <표 8-13>과 같다. 우선 고객 회사와 임금 지급업체 간의 계약 종료 후 근로자의 일자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는 회사로 복귀한다는 응답이 30.2%, 다른 회사로 배치된다는 응답이 34.2%, 계

〈표 8-12〉 복수 고객회사 근무

(단위: %)

		비중
복수 고객회사 근무여부	예	41.0
	아니오	58.3
복수 고객회사 근무 빈도	하나의 고객 회사를 위해 일함	91.5
	복수의 고객 회사를 위해 일함	8.5
주로 일하는 곳	대체로 고객 회사에서 일함	94.6
	대체로 고객 회사에서 일하지 않음	5.4

주: 1)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2) 각 응답의 합의 100%가 되지 않는 것은 모름 응답이 있기 때문임.

〈표 8-13〉 계약 종료 후 복귀

(단위: %)

고객 회사와 계약 종료후 배치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로 복귀	30.2
	정기적인 임금지급 임금지급 안됨	53.9
		43.2
	다른 고객 회사로 배치	34.2
	모든 근로계약 종료	35.7
임금 지급업체와 계속 근로 여부	예	94.2
	아니오	5.2
고객 회사 배치 전 임금 지급	같은 액수를 지급받음	34.2
	임금보다 적은 액수를 수당처럼 지급받음	2.0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함	37.6
	끝나자마자 바로 다른 고객 회사로 배치됨	26.2
고객 회사 배치 전 교육훈련 기회	예	14.1
	아니오	54.4
	끝나자마자 바로 다른 회사로 배치	25.7
	제공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업체 입사시 교육훈련 받음	5.1

주: 1)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2) 각 응답의 합의 100%가 되지 않는 것은 모름 응답이 있기 때문임.

약이 종료된다는 응답이 35.7%로 엇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다만 고객 회사와의 계약 종료 후 임금을 주는 회사로 복귀한 경우에도 그 전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응답은 절반을 약간 넘는 53.9%에 그쳤다.

한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원한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임금 지급업체와 계속 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94.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른 고객 회사로 배치 전까지의 임금에 관해서는 임금을 받는 경우³⁸⁾가 36.1%로 아무것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응답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 회사 배치 전 교육훈련 기회가 없다는 응답이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 8-14>는 간접고용의 경우 임금 지급업체와 실제 일하는 곳을 비교한 것이다. 근로계약 여부별로는 전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 체결시에는 실제 일하는 곳보다는 임금 지급업체와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대한 소속감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실제 일하고 있는 곳에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8-14> 임금 지급업체 vs 실제 일하는 곳

(단위: %)

		임금 지급업체	실제 일하는 곳
근로계약 체결 여부	예	36.3	9.0
	아니오	63.7	91.0
소속감	매우 소속감 느낌	11.1	7.7
	소속감 느끼는 편	54.5	63.1
	소속감 느끼지 않는 편	26.3	21.0
	전혀 소속감 느끼지 않음	8.2	8.2

주: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각종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납입업체에 관해서는 <표 8-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된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60% 내외였으며, 국민연금의 경우는 49.4%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실제로 일하는 회사를 통해서가 아닌 임금 지급회사가 납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간외 근로수당은 19%만이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업체가 준다는 응답이 92.8%로 나타났다.

38)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는 경우와 임금보다 적은 액수를 수당처럼 받는다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8-15〉 사회보험 등 가입 여부 및 납입 주체

(단위: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납입 주체	가 입	61.2
	임금지급회사 일하는 회사 모 림	86.6 1.2 12.2
	비가입 모 림	37.1 1.7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납입 주체	62.8
	임금지급회사 일하는 회사 모 림	86.4 2.0 11.6
비가입 모 림	36.6 0.6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납입 주체	가입	49.4
	임금지급회사 일하는 회사 모 림	89.3 1.5 9.2
	비가입 모 림	46.5 4.2
	시간외 근로수당 여부 및 지급업체	19.0
	임금지급업체 일하는 회사	92.8 7.2
아니오	81.0	

주: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제 4 절 특수고용의 특징

이 절에서는 특수고용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응답하는 문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앞서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고용이란 임금과 비임금의 경계선상에 있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수고용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

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 <표 8-16>은 특수고용 근로자의 계약체결 형태와 경영 독립성에 관한 특성을 보여준다. 본사 또는 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62.1%였으며, 대리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절반 가량인 33.6%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8-16> 특수고용 근로자의 계약체결 및 경영 독립성

(단위: %)

계약체결형태	대리점과 체결	33.6
	본사 또는 지사와 체결	62.1
	계약 없음	0.2
업무지시여부	업무 지시를 받음	74.0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함	26.0
도구 및 원재료 제공여부	무료로 제공	50.5
	직접 돈을 들여서 구입해야 함	49.5
사업자등록증 취득 여부	예	33.5
	아니오	66.5

주: 1)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2) 각 응답의 합의 100%가 되지 않는 것은 모름 응답이 있기 때문임.

한편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상 비임금근로자라 할지라도 임금 근로자처럼 계약을 맺은 업체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업무 지시(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제공 방법 통제 등)를 받고 있는 경우가 3/4 가량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및 원재료 등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는 절반이 겨우 넘는 50.5%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했는가와 관련해서는 취득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6.5%로 취득했다는 응답보다 2배가량 높았다.

마지막으로 <표 8-17>은 특수고용 근로자들의 전속 계약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한 표이다. 우선 특수고용 근로자의 대부분은 하나의 업체와만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속 계약되어 있는 비중은 65.0%로 하나의 업체와만 계약한 이유가 전속계약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계약기간은 22.5개월이었으며, 그 중 45.7%는 계약기간보다는 더

〈표 8-17〉 특수고용 근로자의 전속 계약

(단위: %, 개월)

계약업체 수	하나의 업체와만 계약되어 있음 두 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되어 있음	93.4 6.6
전속 계약 여부	예 아니오	34.5 65.0
평균 계약기간		22.5
예상 계약기간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보다 길게 계약기간보다 짧게 모름	9.4 45.7 3.6 41.3
계약종료후 타 업체 계약 여부	예 아니오, 사실상 그 회사 전속이기 때문 모름	50.8 30.9 18.3

주: 1) 개인 횡단 가중치를 사용한 수치임.

2) 각 응답의 합의 100%가 되지 않는 것은 모름 응답이 있기 때문임.

길게 일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업체와 계약 종료 후 다른 업체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절반인 50.8%, 사실상 전속 계약으로 더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0.9%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 9 장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따라서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에서 발생한 변화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매우 큰 장점으로서 패널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횡단면 자료에서 회고적 조사를 통해 패널조사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고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회고 기간이 길수록 회고 오차의 문제는 더욱 커지므로 중단 분석에 사용하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장은 바로 패널자료의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가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은 특히 동태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패널자료의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9장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9차년도 및 10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비교를 위해 8차년도와 9차년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모든 분석은 기준년도의 중단 가중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9차년도에서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가 10차년도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분석할 경우 9차년도 중단 가중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9-1>은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는 흔히 언급되고 있듯이 이행 확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쉽게 읽기 위해 100을 곱

〈표 9-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단위: %)

이전 상태	이후 상태	8차 → 9차	9차 → 10차
취업	취업	91.32	91.51
	실업	1.94	1.60
	비경제활동	6.74	6.89
실업	취업	48.73	42.68
	실업	18.06	16.01
	비경제활동	33.21	41.31
비경제활동	취업	10.55	10.12
	실업	2.55	2.14
	비경제활동	86.90	87.74

하여 나타냈다. 이행 확률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8차년도에 취업상태에 있던 100명 가운데 다음 기인 9차년도에 실업으로 옮겨간 사람 수는 1.94명이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는 91.32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간 사람의 수가 6.74명이다. 이를 확률로 해석해도 좋다. 즉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행확률은 0.0194이다. 그리고 취업상태에서 다른 노동력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9차년도에서 10차년도의 경우에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에서 보듯이 취업에 그대로 머물 가능성이 91.51%로서 전년의 91.32와 매우 유사하고 실업으로 이동 역시 1.60으로 전년의 1.94와 비슷하다.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 역시 전년과 유사한 6.89이다.

한편 실업상태에 있었던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방금 보았던 취업상태의 경우와 달리 이행 확률들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9차에서 10차년도로 이행을 보면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42.68로서 전년의 48.73에 비해 상당 정도 낮아져 실업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할 확률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실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16.01로서 이 역시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실업에 머물 가능성도 낮아졌고 취업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낮아졌으므로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갈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의 수는 100명 가운데 41.31명이나 되며 전년의 33.21명에 비

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가 정확히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변화는 취업상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이다. 표에서 보듯이 비경활에서 취업으로의 이동은 10.12로서 전년의 10.55와 매우 유사하고 실업으로의 이동 역시 2.14로서 전년의 2.55와 비슷하다. 비경활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역시 87.74로서 전년의 86.90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경제활동상태에서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9-2>는 이를 요약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은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에 있어 매우 구분되는 특징들을 보여준다. 먼저 취업상태에서의 변화를 보면 여성이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남성의 경우에 상당히 낮은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즉 남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9차→10차의 경우 93.55인데 여성

<표 9-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 상태	이후 상태	8차 → 9차	9차 → 10차
남 성	취 업	취 업	93.44	93.55
		실 업	1.81	1.78
		비경제활동	4.75	4.67
	실 업	취 업	53.52	43.96
		실 업	20.04	23.33
		비경제활동	26.45	32.71
비경제활동	취 업	11.88	10.74	
	실 업	3.51	2.90	
	비경제활동	84.62	86.36	
여 성	취 업	취 업	87.94	88.19
		실 업	2.13	1.31
		비경제활동	9.93	10.50
	실 업	취 업	40.80	40.83
		실 업	14.79	5.38
		비경제활동	44.41	53.79
비경제활동	취 업	9.79	9.74	
	실 업	2.01	1.68	
	비경제활동	88.20	88.57	

의 경우는 88.19에 불과하다. 반면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여성의 경우 10.50으로서 남성의 4.67에 비해 매우 높다.

실업상태에서 변화를 보면 여성의 경우 실업에서 비경활로의 이동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표에서 보듯이 9차→10차에서 여성의 경우 비경활로의 이동이 53.79로서 남성의 32.71에 비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실업에 그대로 머물 가능성은 여성이 5.38로서 남성 23.33에 비해 매우 낮다. 여성의 이러한 강한 비경제활동화 경향은 여성 노동력이 갖는 매우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아울러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는 그대로 머무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표에서 보듯이 여성의 비경제활동 지속 경향은 88.57로서 남성의 86.36에 비해 다소 높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 간의 구분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모호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자. <표 9-3>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취업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40대에서 가장 높고 40대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84.03으로서 가장 낮다. 반면 40대가 취업상태에서 계속 머물 확률은 94.76으로 높다. 30대와 50대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각각 93.26과 92.67로서 40대에 근접할 정도로 높다. 60세 이상에서 경우는 89.17로서 20대 청년보다는 높은 취업 지속률을 유지한다.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탈출은 역시 40대에서 66.20으로 가장 높다. 반면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은 40대에서 19.34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실업상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30대에 가장 높아 24.45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이 장기실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구체적으로 20대의 경우 이 확률은 72.03인 반면, 30대 82.23, 40대 82.22, 50대 88.94,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97.18이다. 청년의 비경활 지속확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경제활동상태로 쉽사리 옮겨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20대가 비경활에서 취업으

〈표 9-3〉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 상태	이후 상태	8차 → 9차	9차 → 10차
20대	취업	취업	83.53	84.03
		실업	3.45	2.43
		비경제활동	13.01	13.54
20대	실업	취업	55.38	39.60
		실업	18.97	13.13
		비경제활동	25.65	47.27
20대	비경제활동	취업	26.77	22.46
		실업	6.41	5.52
		비경제활동	66.82	72.03
30대	취업	취업	93.35	93.26
		실업	1.81	1.74
		비경제활동	4.84	5.01
30대	실업	취업	42.74	31.17
		실업	24.46	24.45
		비경제활동	32.80	44.38
30대	비경제활동	취업	15.55	14.25
		실업	4.51	3.52
		비경제활동	79.93	82.23
40대	취업	취업	94.97	94.76
		실업	1.69	1.32
		비경제활동	3.34	3.92
40대	실업	취업	57.78	66.20
		실업	13.02	14.47
		비경제활동	29.21	19.34
40대	비경제활동	취업	13.14	16.08
		실업	3.23	1.70
		비경제활동	83.63	82.22
50대	취업	취업	92.85	92.67
		실업	1.20	1.32
		비경제활동	5.95	6.01
50대	실업	취업	44.85	42.07
		실업	15.06	9.97
		비경제활동	40.09	47.95
50대	비경제활동	취업	8.61	8.85
		실업	1.92	2.21
		비경제활동	89.46	88.94
60세 이상	취업	취업	87.09	89.17
		실업	0.99	0.79
		비경제활동	11.92	10.04
60세 이상	실업	취업	29.03	46.67
		실업	6.18	20.52
		비경제활동	64.79	32.81
60세 이상	비경제활동	취업	1.70	2.53
		실업	0.25	0.29
		비경제활동	98.05	97.18

로 이행할 가능성은 22.46으로 가장 크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 가능성은 낮아져 60세 이상의 경우 2.58에 불과하다. 비경황에서 실업으로의 이동도 20대 청년에서 13.13으로 가장 높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에 이르면 0.29에 불과하다. 이는 젊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0대 청년 노동시장이 매우 역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황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른 노동력 상태로 손쉽게 이동하고 있어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표 9-4>는 학력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들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졸 이하를 제외할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고졸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기대로 머무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89.60명이나 전문대졸의 경우 92.21명으로 높아지며 대졸 이상 학력 집단의 경우 93.88로 높아진다.

실업상태에 계속 머물 확률은 학력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즉 중졸 이하의 실업지속 가능성은 16.68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고졸 16.40, 전문대졸 15.39, 대졸 이상 15.36로 낮아진다. 이는 저학력자일수록 실업기간이 길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확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지거나 대졸 이상의 비경황 지속확률은 높아진다. 즉 대졸 이상의 경우 비경황 지속 가능성은 85.63으로 전문대졸 78.31, 고졸 81.11보다 더 높다. 중졸 이하의 경우 이 가능성은 94.50으로 가장 높다. 대졸 이상에서 비경황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며 고학력화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표 9-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

	이전 상태	이후 상태	8차 → 9차	9차 → 10차
중졸 이하	취 업	취 업	89.93	91.48
		실 업	1.70	1.17
		비경제활동	8.38	7.35
중졸 이하	실 업	취 업	50.81	46.60
		실 업	7.67	16.68
		비경제활동	41.52	36.73
중졸 이하	비경제활동	취 업	3.73	4.46
		실 업	0.88	1.04
		비경제활동	95.39	94.50
고 졸	취 업	취 업	89.76	89.60
		실 업	2.15	1.96
		비경제활동	8.09	8.44
고 졸	실 업	취 업	48.67	39.91
		실 업	19.71	16.40
		비경제활동	31.61	43.69
고 졸	비경제활동	취 업	15.70	15.85
		실 업	4.27	3.04
		비경제활동	80.03	81.11
전문대졸	취 업	취 업	92.54	92.21
		실 업	2.58	2.07
		비경제활동	4.88	5.72
전문대졸	실 업	취 업	54.42	37.91
		실 업	19.78	15.39
		비경제활동	25.80	46.70
전문대졸	비경제활동	취 업	17.55	16.95
		실 업	6.68	4.74
		비경제활동	75.77	78.31
대졸 이상	취 업	취 업	94.33	93.88
		실 업	1.50	1.19
		비경제활동	4.17	4.93
대졸 이상	실 업	취 업	43.19	48.77
		실 업	22.54	15.36
		비경제활동	34.27	35.87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취 업	18.91	11.83
		실 업	2.30	2.54
		비경제활동	78.79	85.63

◆ 執筆陣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 배기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제10차(2007)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 | |
|---------|---|
| • 발행연월일 | 2009년 4월 27일 인쇄
2009년 4월 30일 발행 |
| • 발행인 | 박기성 |
|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35
☎ 대표 (02) 785-5080 FAX (02) 3775-0697 |
|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2) 2164-3232 |
|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록번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정가 9,000원

ISBN 978-89-7356-741-6